



월간 북한동향

제8권 제1호 (2014년 1·2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월간 북한동향

제8권 제1호 (2014년 1-2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ontents

1 January 2014

| | |
|------------------|--|
| ❶ 주차_01.01-01.05 | 1. 대내 동향 6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
| | 2. 대외 관계 13 |
| | 3. 대남 동향 15 |
| ❷ 주차_01.06-01.12 | 1. 대내 동향 18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
| | 2. 대외 관계 26 |
| | 3. 대남 동향 29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
| ❸ 주차_01.13-01.19 | 1. 대내 동향 34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
| | 2. 대외 관계 41 |
| | 3. 대남 동향 46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
| ❹ 주차_01.20-01.26 | 1. 대내 동향 52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
| | 2. 대외 관계 56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
| | 2. 대남 동향 61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
| ❺ 주차_01.27-01.31 | 1. 대내 동향 68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
| | 2. 대외 관계 74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
| | 3. 대남 동향 80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

인쇄: 2014년 3월 발행: 2014년 3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북한연구센터 편집간사: 김아영 연구원
 등록: 제2-02361호(911.4.23)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900-4300 / (직통) 901-2525 /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인쇄: (주) 예원기획 02)745-8090
 (비매품)

2 February 2014

| | |
|------------------|---|
| ❶ 주차_02.01-02.02 | 1. 대내 동향 84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
| | 2. 대외 관계 86 |
| | 3. 대남 동향 87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
| ❷ 주차_02.03-02.09 | 1. 대내 동향 90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
| | 2. 대외 관계 98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
| | 3. 대남 동향 103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
| ❸ 주차_02.10-02.16 | 1. 대내 동향 108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
| | 2. 대외 관계 117 |
| | 3. 대내 동향 122 |
| ❹ 주차_02.17-02.23 | 1. 대내 동향 126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
| | 2. 대외 관계 132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
| | 3. 대남 동향 136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
| ❺ 주차_02.24-02.28 | 1. 대내 동향 142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
| | 2. 대외 관계 149 |
| | 3. 대남 동향 152 |
| ■ 1월 일지 / 156 | |
| ■ 2월 일지 / 157 | |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1.01-01.05

1월

1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3. 대남 동향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조선총련 의장에 새해 축전(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1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허종만 의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축전에서 허 의장을 비롯한 조선총련 일꾼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지난해 지역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닥치는 온갖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이겨내면서 총련 조직을 반석같이 다지고 재일 조선인 운동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한 데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힘.

- **北 김정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올해 첫 공식활동(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일 “김정은 동지께서 리설주 동지와 함께 새해 2014년에 즈음해 1월 1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고 밝힘.
 -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입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셨다”고 소개하면서, 또 김 제1위원장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상에 자신 명의의 화환을 헌화함.
 - 참배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김기남·최태복·박도춘 당비서,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강석주 내각 부총리,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이 수행함.

- **北 김정은 신년사, 남북관계 개선 강조…南 호응 촉구(1/1,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남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했다고 조선중앙TV를 통해 전한 것을 연합뉴스가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오전 9시 조선중앙TV 등을 통해 육성으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북남 사이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백해무

익한 비방·중상을 끝낼 때가 됐으며 화해와 단합에 저해를 주는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힘.

- 이어 “우리는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갈 것이고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 개선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함.

● **北 매체 ‘신년사 과업 관철’ 결의 대대적 선전·독려(1/2,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2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힘차게 열어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과 4면 ‘승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넘쳐 희망찬 새해의 진군길에 나섰다’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신년사 과업’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고 역설함.
- 신문은 사설에서 신년사는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비약과 혁신의 지름길을 밝힌 강령적 지침”이라며 “전체 인민이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때 올해에 우리의 사상과 위업의 필승불패성을 힘있게 과시하고 강성국가 건설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조선신보가 분석한 북한 신년사…“농업에 초점”(1/2, 조선신보)**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올해 신년사가 농업을 강조한 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고 밝힘.
- 신문은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한 ‘2014년 신년사가 예고하는 새로운 비약’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신년사가 농업, 건설, 과학기술 등 3개 부문의 혁신과 성과를 지적했다며 “여기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정한 것”이라고 분석함. 또한, 신문은 “김정은 시대의 ‘인민정치’는 우선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며 “최고영도자의 의향에 따라 최근 시기 이 부문에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연구, 도입하는 사업이 적극 추진되었다”고 밝힘. 그러면서 협동농장에서 가족영농제와 비슷한 포전담당제의 실시로 농민의 ‘일욕심’이 커지고 증산이 이뤄졌다고 주장함.

● 北 김영남·박봉주도 ‘한발’ 앞서 금수산 참배…왜(1/2,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김정은 제1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전날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사진을 1면에 크게 실음.
- 사진을 살펴보면 김정은 제1위원장 부부와 김영남 상임위원장, 박봉주 총리 등 4명만 다른 간부들보다 한발 앞에 서 있음. 또한, 리설주 바로 오른쪽의 최룡해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등 군 간부들과 박봉주 왼쪽에 선 김기남·최태복 노동당 비서 등 다른 간부들은 모두 한발 뒤편에 있음.

● 北, 금속공업상 교체…‘張 속칭’ 관련성 주목(1/2, 조선중앙TV)

- 북한이 내각 금속공업상을 김용광으로 교체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고 조선중앙TV를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함.
-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금속공업성 간부들의 ‘반향’을 내보내며 첫 발언자를 ‘금속공업상 김용광’으로 소개함.
- 김용광 신임 금속공업상은 김책공업종합대학 출신으로, 2008년 6월 금속공업성 부상에 올랐으며 2010년 9월부터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지배인을 지냈고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에는 국가장의위원회에 포함됨.

● 北 노동신문 ‘청춘 김정은 시대’ 띄우기…그 속내는(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2면 ‘청춘조국 송가’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마식령스키장 등 김 제1위원장의 치적 사업들을 열거하며 북한이 “상상조차 하기 어렵게 젊어지고 솟구치고 있다”라고 주장함.
- 김 제1위원장이 지닌 젊음은 ‘축복’이고, ‘행운’이라며 “젊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우리 조국은 오늘도 위대하지만 내일은 더 눈부실 것”, “불타는 젊은 속에 세상을 놀래우는 원숙함이 있고 우리 조국의 창창한 미래가 약속돼 있다”라고 강조함.

● 北 김정은, 2년째 연말연시 ‘올해의 사람들’ 챙기기(1/3,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군부대 수산사업소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주 동안이나 평양에 머물며 특별한 환대를 받아 눈길을 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일 “인민군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이 오늘 평양을 떠났다”고 전했는데, 평양 방문 목적은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군 수산부문 열성자회의에 참석하는 것이었지만 회의가 끝나고도 1주일 넘게 평양에 머물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최 연회와 신년 경축행사에 참석하고 각종 놀이공원 관람은 물론 치과 치료까지 받으며 ‘호사’를 누림.

● 北 박봉주 총리, 건설현장 잇단 시찰…이번엔 발전소(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박봉주 내각 총리가 평안북도 향산군의 희천발전소 2단계 공사인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장 등 경제 현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함.
- 박 총리는 희천 5호, 8호, 9호, 11호 발전소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협의회를 열어 발전소 완공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함.

● 北 ‘張숙청’ 후 잇단 내각 물갈이…석탄공업상도 교체(1/5,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5일에는 석탄공업상이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5일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열린 평안남도 북창지구탄광연합기업소 창립 60주년 기념 보고회 소식을 전하며 보고회에 참석한 석탄공업상을 문명학으로 소개함.
- 과거 북한 매체 보도에서 석탄공업상이 마지막으로 등장한 것은 작년 1월 3일이며 당시 석탄공업상은 립남수였음.

■ 김정은동향

- 1/1,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12.31 인민군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선물 전달(1.1, 중통·중·평방)
- 1/1, 김정은 黨 제1비서, 1.1 새해 ‘신년사 발표(1.1, 중통·중·평방·조중TV)
- 2013년은 ‘병진노선을 받들고 총공격전을 벌려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과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해’라고 평가하며 ‘2014년은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선군조선의 변영기를 열어나갈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라고 강조하고

- '올해에 농업·건설·과학기술부문이 앞장에서 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며 과업을 제시
- '나라의 방위력 강화와 정치사상 진지강화는 중요한 과업'이라며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하여 대중적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동시켜야 한다'고 지적
- 또한 '남북 사이의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며 '비방중상을 끝낼 때가 되었으며, 화해와 단합에 저해를 주는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 1/1, 김정은-리설주, 1.1 새해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1.1,중통·중·평방)
-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김영춘, 양형섭, 강석주, 김원홍 등 참가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은 신년사 과업관철 위한 인민무력부 군인궐기모임, 1.4 4.25문화회관에서 진행(1.4,중통)
- 리영길(軍 총참모장), 장정남(인민무력부장, 보고) 등 참가
- 박봉주(내각 총리), 청천강계단식발전소-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및 평남 개천시 용진협동농장 현지요회(1.5,중통·중방)
- 평안남도 북창지구탄광연합기업소 창립('84.1.6) 30주년 기념보고회, 1.5 문명학(석탄공업상·흥인범(평남 당책) 참가) 진행 및 黨 중앙위 축하문 전달(1.5,중통·중방)
- ※ 석탄공업상 : 리영용 → 문명학 교체 확인

나. 경제

● 北 '희토류 전쟁' 또 소개...자원수출 다양화 관심(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세계적인 초점을 모으는 희유(희귀)금속문제'라는 제목의 글에서 세계적으로 희토류를 비롯한 희귀금속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함.
- 신문은 희토류가 전자공업,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제품 생산에 필수적이라며 "현시기에 와서 희토류금속 생산량이 대폭 줄어들어 수출가격이 급격히 높아지는 속에서 희토류를 손에 넣기 위한 여러 나라들 사이의 대립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함.

● 北 "마식령속도, 김정은 진군속도"...경제건설 독려(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최근 완공한 강원도 마식령 스키장을 앞세워 경제 건설에 총력을 쏟아고 호소함.
- 신문은 1면에 게재한 사설 '마식령 속도를 창조한 기세 드높이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켜나가자'에서 "오늘의 총진군은 마식령 전역에서 창조된

새로운 진군속도로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전면적 공세”라고 주장함.

- 이어 “지금 전체 당원과 인민군 장병, 인민들은 마식령 스키장의 완공과 더불어 건설의 최전성기를 안아온 크나큰 공지에 넘쳐있다”며 ‘마식령 속도’를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진군속도”로 찬양함.

● 국제적십자연맹 올해 대북예산 560만 달러(1/4, 미국의소리(VOA))

- 국제적십자연맹(IFRC)은 지난 3일 발표한 ‘2014년 대북사업계획’ 보고서에서 올해 예산으로 560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 전함.
- 지난해 대북사업 예산 664만 달러에서 15.7%(104만 달러) 줄어든 것이며, IFRC는 올해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도의 주민 825만 명을 대상으로 보건과 위생, 재난관리 등의 활동을 펴겠다고 밝힘. .

다. 군사

● 北, 김정은 신년사 과업 관철 軍 쫓기모임 개최(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내놓은 ‘전투적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인민무력부(우리의 국방부에 해당) 군인 쫓기 모임이 4일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열렸다고 5일 보도함..
- 신문은 리영길 총참모장과 장정남 인민무력부장이 쫓기 모임에 참석했다고 밝혔으나 최룡해 총정치국장은 호명하지 않음.

라. 사회문화

● 새해 첫날에 들뜬 北…불꽃놀이·공연 이어져(1/1, 조선중앙TV)

- 평양에서는 1일 새벽 0시 대규모 불꽃놀이가 벌어졌고, 전국 각지에서 설맞이 공연이 열렸다고,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이 전함.
- 조선중앙TV는 새벽 평양 김일성광장을 가득 메운 평양시민이 환호하며 불꽃놀이를 구경하는 모습을 생중계했으며, 노동신문도 ‘강성조선의 미

래를 약속하는 환희의 불보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평양에서 축포가 발사됐다고 전하며 현장의 축제 분위기를 담은 사진을 함께 실음.

● 北 함흥에도 현대식 물놀이장 건설(1/4, 노동신문)

- 북한 함경남도 함흥시 성천강변에 현대적인 물놀이장이 완공됐다고 노동신문이 4일 전함.
- 9개월 만에 완공된 함흥물놀이장은 4만 5천여㎡의 부지에 야외물놀이장과 실내물놀이장, 유희시설, 체육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신문이 설명했다. “함흥시의 곳곳에 청년공원유희장, 은정공원, 성천공원 등이 꾸려지고 종합적인 물놀이장이 건설돼 당원과 근로자, 청소년 학생이 한겨울에 물놀이를 하게 됐다”고 밝힘.

2 대외 관계

- “北, 관광객에 점차 개방적…새해 첫날 가정집 공개”(1/2, 미국의소리(VOA))
 - 북한이 새해 첫날 일반 가정집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개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일 전함.
 - 미국인 관광객 5명을 데리고 북한을 방문 중인 북한전문여행사 ‘우리투어’의 안드레아 리 대표는 1일 VOA와 인터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례적으로 새해 첫날 북한의 가정집을 방문했다고 밝힘.
 - 리 대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은 가정집 2곳은 북한이 과학자 가족을 위해 새로 지은 주택단지라며 관광객들은 북한 주민과 거주지, 직업, 가족관계 등에 관한 대화를 했다고 소개함. 이에 앞서 미국인 관광객들은 1일 0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15~20분 가량 열린 불꽃놀이 행사에도 참석함.

- “北 마식령 스키장에 유럽산 장비 설치”(1/3,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지난달 31일 개장한 강원도 마식령스키장에 고가의 유럽산 장비가 설치돼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전함.
 - 북한전문 인터넷매체 ‘엔케이뉴스’(NKnews)의 채드 오크렐 편집장은 RFA와 인터뷰에서 마식령스키장 사진에서 캐나다와 스웨덴, 이탈리아, 독일 기업이 생산하는 눈 자동차와 제설기, 스키장용 중장비 차량이 쉽게 목격됐다고 밝힘.

- 北 국립서커스단, 中 하얼빈 빙설축제 참가(1/3, 동북망(東北網))
 - 북한의 국가급 서커스단이 중국의 대표적인 겨울축제인 헤이룽장성 하얼빈(哈爾濱) 빙설축제에 올해 처음으로 참가했다고 3일 중국 인터넷 매체인 동북망(東北網)이 전함.
 - 매체 따르면 북한 국립서커스단 단원 24명은 지난 1일부터 제15회 하얼빈 빙설대세계(冰雪大世界)에 참가해 하루 4차례 빙상서커스 공연을 선보이고 있음.
 - 단원들은 한복을 개량한 화려한 복장을 하고 스케이트를 신은 채 얼음 위에서 경쾌한 음악에 맞춰 단체로 줄넘기를 하고 한 사람이 7~8개의

홀라후프를 동시에 돌리는 등의 묘기로 관객들의 찬사를 받음.

● **작년 美 입국 탈북자 14명에 불과(1/4, 자유아시아방송(RFA))**

- 지난해 미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14명에 그쳤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미 국무부를 인용해 4일 전함.
- 미국 국무부는 이달 초 갱신한 난민입국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밝히고 지난 9월부터 탈북자를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함.

● **국제민간단체, 올여름 北서 배구연수 계획(1/4, 자유아시아방송(RFA))**

- 체육 지도자로 구성된 국제민간단체인 ‘국제감독단’(Coaches Team International)이 올해 여름 북한에서 배구 연수를 추진 중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전함.
- 이 단체의 루크 엘리 대표는 올해 7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여성 배구 선수들과 방북한다고 밝힘.

● **北, 스페인 주재 대사에 김혁철 임명(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4일 김혁철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로 임명됐다고 보도함.
- 김혁철 대사는 2010년 11월 에티오피아 주재 대사에 임명됐고 2011년 말부터 수단 대사도 겸임해 와 북한이 스페인에 대사관을 개설하면서 부임지를 옮긴 것으로 보임.

● **로드먼, 평양 친선경기 농구팀 명단 발표(1/5, AP통신)**

- 미국프로농구(NBA) 출신 스타 데니스 로드먼이 오는 8일 북한 평양에서 개최되는 미-북 친선 농구경기에 참가할 NBA 출신 농구팀 명단을 발표했다고 AP통신이 5일 밝힘.
- 농구팀은 케니 앤더슨, 클리프 로빈슨, 빈 베이커, 크레이 호지스, 덕 크리스티, 찰스 스미스 등 NBA 출신 은퇴 선수들로 구성됨.

3 대남 동향

- **北 대화공세 본격화하나…조평통 내세워 “관계개선”(1/2, 우리민족끼리TV)**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새해 벽두부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TV’가 이런 내용을 담은 조평통 서기국의 전종수 부국장과 황철 부장, 로학철 부장의 인터뷰 방송을 내보냈다.
 - 전종수 부국장은 지난해 6월 무산된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첫 남북 당국간 회담의 북측 대표단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며, 황철 부장은 남북 사회문화 교류와 이산가족 상봉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 **北 매체, 연일 “남북관계 개선” 공세(1/3, 우리민족끼리)**
 -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3일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발언을 지지하는 기고문을 잇달아 게재했다.
 -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의 고동철은 기고문에서 김 제1위원장이 제시한 ‘우리민족끼리’의 원칙이 통일을 위한 “가장 정당한 방향과 방도”라며 “올해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대남기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의 김혜경도 “나라의 통일은 철저히 ‘우리민족끼리’의 입장에 설 때 민족의 이익과 요구에 맞게 실현해나갈 수 있다”며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 **北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장, 남북관계 개선 결의(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접한 각계 반향이라며 작년 6월 남북 당국회담이 이른바 ‘격’(格) 논란으로 무산됐을 때 북한이 수석대표로 내세운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강지영 명의의 ‘결의’를 실었다.
 - 강지영 서기국장은 “우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안의 전체 일꾼들은 원수님의 신년사를 자자구구 깊이 학습하여 그 진수를 파악하고 조국통일운동 전반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北조평통, 南 신년군사훈련 비난…“남북관계에 찬물”(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우리 군이 최근 벌인 훈련 등을 거론하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제안한 데 대해 남한 정부가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난함.
 -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지만 “남조선에서는 그와 정반대되는 상서롭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힘.

01.06-01.12

1월

2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평양시 군중대회, 신년사 과업 관철 다짐(1/6,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 북한이 6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 관철을 다짐하는 평양시 군중대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TV가 보도함.
 - 방송은 “김정은 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 군중대회가 6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됐다”라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등 당·정 간부들이 주석단에 나왔다고 전함.
 - 문경덕 노동당 비서 겸 평양시당 책임비서는 보고(연설)에서 “수도(평양시)의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조국을 일떠세우는(건설하는) 투쟁의 앞장에서 혁신의 봉화를 들고 나가야 한다”라며 평양시를 더 웅장·화려하게 변모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 **北 김정은, 취약계층 위한 軍 수산사업소 신설 지시(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7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군의 보급을 전담하는 인민무력부 후방총국으로 알려진 인민군 제534군부대가 새로 건설한 수산물냉동 시설을 시찰했다고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교, 양로원들에 1년 365일 하루도 번지지(빠놓지) 말고 물고기를 공급해주는 사업을 인민군대가 맡아 하자”며 육아원 등에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수산사업소를 조직하라는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함.

- **북한, 3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실시(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8일 헌법 제90조에 따라 오는 3월 9일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최고인민회의를 실시하자는 상임위원회 결정이 7일 발표됐다고 전함.

- **北통신, 김정은 생일 첫 공식 확인(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8일 밤늦게 김정은 제1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평양 체육관에서 로드먼 등 NBA 출신 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한 소식을 전하면서 경기에 앞서 발언한 로드먼이 “원수님(김정은)의 탄생일을 맞으며 조선에 왔다”고 말했다고 밝혀 북한매체로는 처음으로 김 제1위원장의 생일을 공식확인함.

- **北 과학자들, 2년째 신년사 군중대회서 존재감 과시(1/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강원도와 남포시에서 전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관철하기 위한 군중대회가 각각 열렸다고 하며 토론자 가운데 과학자 간부가 포함돼 있다고 전함.
 - 강원도 군중대회에서는 리일섭 도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도농촌경리위원장, 도지방건설건재관리국장 등과 결의토론을 했고 박정남 도당위원회 책임비서가 보고자로 나섬.
 - 신문은 보고자 및 토론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고 소개함.

- **北, 채취공업상도 교체…‘張숙청’ 후속 조치인 듯(1/10, 연합뉴스;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광물 생산과 수출을 관장하는 내각 채취공업상을 강민철에서 리학철 부상(차관급)으로 교체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첫 금요노동에 동원된 성·중앙기관 간부들과의 인터뷰를 내보내면서 리학철을 채취공업상으로 소개함.

- **北 김정은 “군인생활 향상이 올해 군사사업 중심”(1/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대 보급을 전담하는 군 후방총국 지휘부를 시찰하면서 “군인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 올해 군사 사업의 중심고리”라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군 제534군부대 지휘부를 시찰했다”라며 김 제1위원장이 “2014년을 인민군대 후방사업에서 변이 나는 해로 만

들고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패승을 안아오기 위해 군부대를 찾아왔다”고 말했다고 전함.

● 北,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중앙선거위 구성(1/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가 최고인민회의의 제13기 대의원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위를 조직했다”라며 이 같은 내용의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 결정이 7일 발표됐다고 전함.
- 중앙선거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 부위원장과 김평해 당 비서 겸 간부부(인사담당) 부장이 각각 임명됐으며 홍선옥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 서기장이 중앙선거위 서기장을 맡음.
- 중앙선거위 위원으로는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우리의 경찰청장),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 김영호 전 내각 사무국장, 전용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위원장, 현상주 직업총동맹 위원장, 리명길 농업근로자동맹 위원장, 로성실 민주여성동맹 위원장, 렬철성 군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김완수 최고인민회의의 부의장, 윤정호 천도교청우당 부위원장 등이 위촉됨.

■ 김정은동향

- 1/7,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수산물 냉동시설 시찰(1.7,중통·중·평방)
 - 최룡해, 서흥찬, 박정천, 조남진, 황병서, 김병호 동행
- 1/8, 김정은 黨 제1비서, 1.8 리설주와 함께 ‘로드먼’ 등 美 NBA 출신 前 선수들과 북한 선수들의 농구경기(평양체육관) 관람(1.8,중통·중·평방)
 - 박봉주·최룡해·강석주 및 駐北 외교·국제기구 대표들 부부동반 관람
- 1/12,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제534군부대 지휘부 시찰(1.12,중통·중방)
 - 최룡해(총정치국장), 김경옥(당 중앙위 제1부부장), 황병서(당 중앙위 부부장)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은 신년사 관철’ 평양시 군중대회, 1.6 문경덕(평양시당 책임비서/보고)·리일환(평양시당총 비서/사회) 등 참가하 김일성광장에서 진행(1.6,중·평방 녹음실황·중통)
 - 주석단 : 김영남, 박봉주,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곽범기, 문경덕, 로두철, 김용진, 리무영, 리철만, 김인식 등
- ‘노동당이 새로운 100년대에 선군혁명의 위대한 항도자로서 그 위용을 떨칠 수 있는 근본요인은 김정은이 진두에 있기 때문’이라며 ‘김정은을 선군조선의 위대한 태양’으로 칭송(1.6,중통·노동신문)
- 신년사 ‘건설부문’ 관련 김정은 서한(당의 주체적 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번영기를 열어나가지)은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서한에 제시된 사상이론을 철저히 구현해 장엄한 투쟁의 해, 변역의 해를 수놓아 가지’고 호소(1.7,중통·노동신문)
- ‘김정은 신년사 과업 관철’ 위한 평안남도·함경남도·함경북도·나선시 군중대회, 1.8 현지에서 각각 개최(1.8,중통·중·평방)

- 성·중앙기관·정무원들, 1.10 각지 협동벌들에서 첫 ‘금요노동’ 진행 (1.10,중통·중방)
 - 현상주(직총 중앙위원장), 김영철(직총 중앙위 부부장), 리학철(채취공업상, 前 강민철이 교체), 김일국(체육성 1부상) 등
 - 강원도·평안북도 당원들, 파철을 수집하여 금속공장들 지원(1.10,중방)
 - 자강도·함경북도 당원들, 1.5 농촌들에 거름 지원(1.10,중방)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1.7 최고인민회의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위원회 조직(1.11,중통)
 - 위원장 : 양형섭, 부위원장 : 김평해, 서기장 : 홍선옥, 위원 : 최부일, 김영대, 김영호, 전용남, 현상주, 리명길, 로성실, 렬철성, 김완수, 윤정호

나. 경제

● 北 “농업에 역량 집중해야”...연일 ‘증산’ 강조(1/6, 노동신문;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 노동신문은 6일 2면 ‘올해 총진군의 중요전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농사를 잘 지어야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할 수 있다”라며 “농사에 모든 힘을 집중해 알곡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라고 촉구함.
-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 등도 식량 증산 의지를 다지는 농업 부문 간부들의 결의를 소개하며 선진 영농기술 도입 등을 통해 식량 생산에 양양을 일으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임.

● 北 경공업·건설 부문 원료 ‘국산화’ 독려(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학습하는 내각 당조직들을 소개하며 “경공업성 일꾼(간부)과 정무원(공무원)들은 경공업공장들에서 원료·자재의 국산화 비중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놓고 진지하게 학습토론을 벌이고 있다”고 전함.

● 유럽·아시아 투자자 7명 내달 북한 방문(1/7, 자유아시아방송(RFA))

-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대만, 태국, 호주 등의 투자자 7명은 다음달 14일부터 20일까지 평양 등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하며 투자처를 물색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함.

- 스페인 민간단체인 북한·스페인 친선협회가 이들의 방북을 주선했으며 북한은 이들에게 희토류를 비롯한 지하자원 개발사업과 한약재 수출사업 등을 투자 유치 희망 분야로 제시함.

● **세계식량계획 지난해 대북 식량 지원 역대 최저(1/8, 자유아시아방송(RFA))**

- 나나 스카우 WFP 북한 담당 대변인은 7일 RFA에 WFP가 지난해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3만8천t으로, 애초 계획된 지원량의 30% 수준에 그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함.
- 이는 WFP가 북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1996년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이며 이는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기부금 모금이 부진한데 따른 것이라고 스카우 대변인이 설명함.

● **북한, 장성택 처형으로 국경 밀무역 타격(1/8, 환구시보)**

-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랴오닝성 단둥(丹東)과 지린성 투먼(圖們) 등 북한 접경도시의 밀무역 종사자들을 인용해 북한이 최근 국경 경비를 대폭 강화하면서 그동안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져 온 밀무역이 크게 위축됐다고 8일 보도함.
- 북한 측이 주문한 물품을 배에 실어 몰래 전달해온 단둥의 한 상인은 “지난달 30일 저녁에 북한의 거래 파트너가 모터보트를 타고 강을 건너와 평안북도 숙주, 박천, 평양 등지의 주문서를 건네며 물품을 준비해달라고 했지만, 이튿날 낮에 전화를 걸어와 돌연 거래를 취소했다”면서 “이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도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말함.

● **작년 북한 입법활동 초점은 ‘경제강국 건설’(1/9, 민주조선; 연합뉴스)**

- 민주조선의 작년 12월 27일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잠업법’, ‘항무감독법’, ‘재생에너르기법’, ‘공원·유원지관리법’ 등을 제정하는 등 북한이 지난해 제·개정된 법률은 주로 경제 관련 법률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함.
- 민주조선은 “새로 채택 및 수정·보충된 법률은 모두 경제강국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다 원만히 보장해주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함.

- **北, 쿠웨이트에 대북투자 요청(1/1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쿠웨이트에 교역 확대와 투자를 요청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쿠웨이트 현지 신문을 인용해 11일 보도함.
 - 쿠웨이트 일간 ‘알완탄’은 서창식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가 최근 자사와의 인터뷰에서 양국 간 교역규모가 아직 바람직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교역확대를 희망했다고 전함.

- **北, 컴퓨터통신 관련법 제정…“경제 정보화” 목표(1/12, 연합뉴스)**
 - 북한이 경제 정보화를 목표로 정보기술(IT) 기반 구축을 위해 컴퓨터 통신 관련법을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연합뉴스가 전함.
 -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2011년 12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컴퓨터망관리법’과 ‘전자인증법’을 채택했으며 이 법들은 “인민경제의 정보화를 다그치는 데 이바지한다”고 제정 목적을 명시함.

- **北 노동신문 “온 나라가 농촌 지원사업 적극 나서야”(1/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사설에서 ‘사회주의농촌테제’ 발표 50주년인 올해를 알곡 증산으로 빛내자며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농촌 지원사업에 적극 참가해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야 한다”고 촉구함.
 - 이어 “농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농촌테제가 밝힌 농촌문제 해결의 중요한 원칙”이라며 특히 “내각과 성, 중앙기관, 연관 단위들에서 농업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무조건 보장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함.

- **北 ‘환율-쌀값 정비례’ 법칙 20년 만에 깨지나(1/12, 연합뉴스)**
 - 북수의 대북소식통은 12일 “북한 시장에서 작년 12월부터 달러 환율은 상승하는데 쌀값은 반대로 하락하는 희귀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새해 들어서도 이런 현상은 여전하다”고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밝힘.
 - 대북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 시장의 쌀값은 탈곡 완료 전인 지난해 11월 1kg당 5천원 대에서 탈곡이 끝난 그 다음달 1천원 가량 큰 폭으로 내린 이후 지금까지도 4천원 대를 유지하고 있음.

다. 군사

● 北 “자위력만이 평화 담보…오직 ‘선군의 길’”(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논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평화를 굳건히 수호 해나갈 것이다’에서 ‘강력한 자위적 힘’을 강조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 내용을 언급하며 자위력만이 자주권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며 ‘선군’을 거듭 강조함.

● 北 ‘전승기념관’에 3차 핵실험 자료도 전시(1/8, 연합뉴스; 조국)

- 연합뉴스가 8일 입수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월간지 ‘조국’ 1월호는 전승기념관을 소개한 특집기사에서 작년 2월의 3차 핵실험 관련 자료가 기념관에 전시돼 있다고 전함.
- 이 월간지에 따르면 전승기념관에는 6·25전쟁뿐 아니라 북한이 정권수립 이후 대외적으로 감행한 모든 군사적 도발 관련 자료가 ‘총정리’돼 있으며 기념관은 주로 김정일 시대 이후의 군사적 도발 자료를 모아 ‘선군혁명승리관’(승리관)에 전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작년 2월의 3차 핵실험 자료도 있다고 보도함.

● 北, 훈련 중 사망 해군장병 유가족에 식료품 하사(1/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1면에 ‘해군용사들의 유가족들이 받아 안은 뜨거운 은정’이라는 기사에서 “해군용사들에게 당의 사랑이 끝없이 베풀어지고 있다”라며 “조국의 바다를 지켜 장렬하게 희생된 조선인민군 해군 제790군부대 용사들의 유가족들이 은정어린 고급 식료품들을 받아 안았다”라고 전함.

라. 사회문화

● 北, 2013년 10대 최우수 선수 선정…역도선수 5명(1/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선정한 지난해 10대 최우수 선수에 2013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와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남자역

도의 엄윤철·김은국과 여자역도의 려은희·량춘화·조복향 선수가 포함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함.

- 지난해 제52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6회 동아시아경기대회 탁구 혼합복식에서 우승한 김정(여)·김혁봉(남)도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동아시아컵과 동아시아경기대회 여자축구경기에서 팀 우승에 기여한 허은별과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와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서 각각 우승한 윤원철(남자 레슬링), 설경(여자 유도) 등도 최우수 선수로 포함됨.

● 北 군중대회 시작·끝 모두 ‘김정은 노래’(1/8, 연합뉴스; 노동신문)

- 새해 들어 북한 군중대회에서 ‘김정일 찬양가’는 사라지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찬양하는 노래가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함.
- 노동신문은 8일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자강도, 양강도에서 전날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관철하기 위한 군중대회가 열렸다고 “대회들은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고 전함.
-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는 북한이 작년 12월 초 장성택을 숙청한 뒤 새로 발표한 노래로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강조한 노래임.

● “부르주아 사상문화 침투 막아라”…北 연일 강조(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라는 장문의 글에서 “부르주아 사상문화는 매우 무서운 독소를 가진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수단”이라며 사상교양사업 등 이를 막기 위한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함.
- 신문은 제국주의자들은 “협력과 교류 등 각종 허울 좋은 간판을 들고 보다 적극적이며 공개된 방법으로 부르주아 사상문화를 유포시키고 있다”라며 이는 “자주의식과 혁명의식을 마비시켜 다른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함.

● 北 4명중 1명 흡연…세계평균보다 높아(1/11, 미국의소리(VOA))

- 북한 주민 4명 중 1명꼴로 담배를 피워 흡연율이 전 세계 평균을 크게 웃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1일 보도함.

- 미국의학협회저널(JAMA) 최신호에 실린 미국 워싱턴대학과 호주 멜버른대학 공동 연구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현재 북한의 흡연율은 23.4%로, 전 세계 평균인 18.7%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추정됨.

2 대외 관계

● 방북 로드먼 “반복된 평양방문에 살해 위협받아”(1/7, AP통신)

- 8일 열린 친선경기를 위해 평양에 도착한 미국프로농구(NBA) 출신 농구 스타 데니스 로드먼은 반복된 방북으로 죽이겠다는 위협도 받았으면서 경기 수익금은 북한 청각장애인을 위해 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함.
- 로드먼은 6일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친선경기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생일선물이 될 것”이라며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힘.

● 아이슬란드 관광단, 4월 첫 북한 여행(1/8, 미국의소리(VOA))

- 아이슬란드 여행사 ‘트랜스 애틀란틱’ 에길 아르나손 한센 대표는 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아이슬란드인들이 오는 4월12일 3박4일 일정으로 북한 관광을 할 계획이며 이는 북한 당국이 처음으로 아이슬란드 단체 관광객의 입국을 승인한 것이라며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8일 보도함.

● 北, 평양 국제마라톤에 美 선수 참가 허용(1/8, 연합뉴스)

- 북한이 오는 4월 14일 평양에서 열리는 ‘만경대상 국제 마라톤 대회’에 미국 선수들의 참가를 처음으로 승인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여행사 ‘우리투어’가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함.

● 이노키 참의원 13일 또다시 방북(1/9, 교도통신)

- 프로레슬러 출신인 안토니오 이노키 일본 참의원 의원(일본유신회)이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북한을 다시 방문한다고 관련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8일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소식통들은 이노키 의원이 북한과의 스포츠 교류 촉진과 일본 국회의원단의 방북 문제를 논의하려고 북한을 찾는다고 전함.
- **케네스 배, 8개월 만에 가족과 전화통화(1/9, 미국의소리(VOA))**
 - 북한에 1년 넘게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46·한국명 배준호)씨가 최근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9일 보도함.
 - 배 씨의 어머니 배명희씨는 8일 VOA와 전화 인터뷰에서 아들이 지난달 30일 평양에서 전화를 걸어왔다고 말했으며 전화는 같은 날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측이 아들을 면담한 직후 이뤄졌다고 밝힘.
- **중국, 내달 충칭서 北 여자축구대표팀 초청 경기(1/9, 중국신문망)**
 - 9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르면 중국축구협회는 다음 달 11일부터 5일간 충칭(重慶)에서 열리는 4개국 국제여자축구대회에 북한 대표팀을 초청함.
 - 중국축구협회 관계자는 “오는 5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2014 아시안컵 여자축구대회를 앞두고 중국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대회를 마련했다”면서 “특히 북한은 여자축구에서 ‘아시아 3강’을 형성하고 있어 중국팀에 좋은 상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
- **獨 연구소, 올해 북한 농민에 축산교육(1/10,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럽의 농업연구기관인 유기농연구소(FiBL)의 독일 사무소가 올해 북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선진 축산업 교육에 나선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함.
 - FiBL 독일 사무소 측은 올해 하반기부터 북한 농업 지도자들에게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RFA에 밝힘.
- **北 마식령스키장 이용료 하루 25유로(1/1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최근 개장한 강원도 원산 마식령스키장의 ‘1일 이용권’이 25유로로 정해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북한 전문 여행사 ‘영파이오니아 투어스’를 인용해 11일 보도함.

- 이 여행사가 밝힌 스키장의 하루 이용권은 스키장 입장료와 리프트, 스키 장비 이용료를 모두 포함해 25유로로, 한화 3만6천원에 해당되며 반일권은 15유로임.

● **스위스, 올해 北에 식량·수질개선 지원 계획(1/11, 자유아시아방송(RFA))**

- 스위스 정부가 올해 북한에서 식량 지원, 수질개선, 산림농법 전수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함.
-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청(SDC)은 전날 RFA에 올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 어린이 100만명에게 영양 지원을 하고, 연말까지 평안 남북도 등 5개 도(道) 농촌지역에 수도·정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힘.

● **北통신, 日 군비증강 비난…“북위협론은 음흉한 구실”(1/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최신 무기 도입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 “군비 증강 책동과 재침 야망을 가리려는 음흉하고 비열한 처사”라고 비난함.
- 통신은 논평을 통해 지난달 일본이 올해 방위비 예산을 늘리면서 북한의 위협을 증액 사유 중 하나로 내건 사실을 거론하며 “일본이 꾀치는(지껄이는) 그 누구의 공격설은 해외 침략 야망 실현에 광분하는 일본이 필요로하는 구실로서 유사시 조선반도(한반도) 주변에서 제해·제공권을 장악해보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주장함.

● **北 “아베 ‘강한 일본’ 연두소감은 군국주의자 망발”(1/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연두소감에서 ‘강한 일본’을 언급한 것에 대해 “군국주의 광신자의 본색을 드러낸 위험천만한 망발”이라고 맹비난함.
- 신문은 ‘되찾을 것은 폐망과 파멸뿐’이란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아베가 떠벌린 ‘강한 일본’이라는 것이 부활한 군국주의 일본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힘.

기타 (대외 일반)

- 美 국무부 부대변인 등 ‘北, 불필요한 군수부문 자금 탕진’ 지적에 대해 “미국과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는 우리(北)에게 있어서 그것은 더 논할 여지조차 없다”며 미국의 ‘국방예산·反北정책’ 비난(1.6, 평방)
- 日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13.12.26) 결과는 “비난과 냉대, 국제적 고립뿐”이라며 中·러·美 정부와 세계 주요 언론들 비판 및 일본내 반발 여론 환기(1.6, 평방)
- 日 항공자위대에 ‘항공전술교도단(가칭)’을 설립 계획 관련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무력강화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1.7, 평방)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 “남북관계 개선 위해 南 대북정책 바꿔야”(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함.
 - 신문은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진을 추동하는 고무적 기치’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해 북한의 노력에도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못한 것은 “남조선 당국이 동족을 적대시하고 대결 분위기를 고취하는 대북정책을 추구하고 반통일적인 ‘원칙론’에 매달렸기 때문”이라고 밝힘.
- 北 통신 “南, 민족의 안전·평화에 옳은 입장 가져야”(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8일 ‘민족의 안전과 평화에 대한 옳은 입장을 가져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반도의 긴장 격화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안전과 평화적 통일을 저해하는 근원”이라며 우리 정부가 “민족의 안전과 평화에 대한 옳은 입장을 가지고 북남관계 문제를 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함.
- 北 신문 “南, 통일 바라다면 외세의존정책 버려야”(1/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우리민족끼리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남한 정부가 외세와 야합해 ‘동족대결소동’을 벌이고 있다며

“외세에 의존한다면 언제 가도 북남 사이의 신뢰를 쌓을 수 없고 관계개선을 이룩할 수 없다”고 밝힘.

-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자들이 진정으로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신뢰’에 대해 운운할 것이 아니라 북남관계에 대해 백해무익한 시대착오적인 외세의존정책을 버리고 민족자주의 원칙, 우리민족끼리의 입장에 서야 한다”고 강조함.

● **北 조평통 “南 ‘안녕하십니까’ 유행은 민심의 반영”(1/1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설 이산가족 상봉을 거부한 다음 날인 10일 최근 유행하는 ‘안녕하십니까’라는 표현이 “민심의 반영”이라며 남한 정부가 민심을 탄압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힘.
- 조평통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서기국 보도에서 최근 남한의 대학교를 비롯한 공공장소와 집회 등에서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말이 ‘반정부 민심’의 상징으로 퍼지고 있다며 “남조선 각 계층의 저주와 분노가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함.

● **北통신 ‘키 리졸브’ 한미연습 계획 비난(1/1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0일 한미 군 당국이 2월 말부터 2주일간 키 리졸브 연습을 진행하고 잇따라 독수리 연습을 계획했다며 “미제와 남조선 호전광들의 광란적인 북침 핵전쟁 책동으로 조선반도에는 사소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변질 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함.
- 통신은 “호전광들은 이번에도 ‘연례’, ‘방어’의 외피를 씌워 합동군사연습의 공격적이며 호전적 성격을 가려보려 한다”며 “그러나 우리 공화국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작전계획에 따라 방대한 핵전쟁 장비들이 투입되는 침략전쟁 연습의 정체는 이미 드러났다”고 주장함.

● **北 공대, 南대학에 편지 “안녕하십니까 벽보에 화답”(1/11,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 최고의 이공계 종합대학인 김책공업종합대학(김책공대) 학생위원회가 고려대학교에서 시작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에 화답해 11일 고려대를 비롯한 한국 대학생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함.

- 김책공대 학생위는 ‘남녘의 고려대학교와 전체 학우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지금 온 남녘땅을 휩쓸며 세차게 타번지고 있는 그대들의 ‘안녕하십니까’ 벽보 게시 열풍에 화답해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밝힘.

나. 경제사회문화

● 정부, 北에 ‘설 이산가족 상봉’ 공식 제의(1/6, 연합뉴스)

- 정부는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재개하고 이에 앞서 이 문제를 논의할 적십자 실무접촉을 오는 10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갖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함.
- 통신은 정부가 6일 오후 3시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을 통해 유증근 대한적십자사 명의 통지문을 강수린 북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냈으며, 이번 제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함.

● 北, 설 이산상봉 거부…“좋은 계절에 만날 수 있어”(1/9, 연합뉴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이 9일 통일부에 보낸 통지문은 “남측에서 전쟁연습이 그칠 사이 없이 계속되고 곧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겠는데 총포탄이 오가는 속에서 상봉을 마음편히 할 수 있겠느냐”며 3월 초께 시작될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설 상봉의 거부 이유로 지목했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함.
- 서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와 장성택 숙청 사건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 “종래의 대결적 자세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을 피력함.
- 서기국은 “남측에서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이 없고 우리의 제안도 다 같이 협의할 의사가 있다면 좋은 계절에 마주 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정부, 北 이산상봉 거부에 유감표명…“진정성 보여라”(1/9, 연합뉴스)

-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설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대해 북한이 거부 방침을 전해온 뒤 발표한 입장을 통해 “북측이 연례적 군사훈련 등을 인도적 사안

- 과 연계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함.
- 김 대변인은 “북측은 말로만 남북관계 개선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면서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우리 측의 제의에 성의 있게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말함.
 - 김 대변인은 북한이 ‘우리 제안도 같이 협의할 의사가 있다면 좋은 계절에 마주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북측이 제기하는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 관광 재개 등과 연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강조함.

■ 기타 (대남)

- ‘남북間 대결상태 해소 등 올해 조국통일운동에서 반드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해야 한다’고 지속 강조하고 ‘외세배격의 우리민족끼리 이념밑에 자주통일운동 전개’ 주장(1.6, 중통·노동신문)
- 신년사 ‘대남 제의’에 대한 ‘양면전술 위장전술 진성성’ 등 발언 관련 ‘비방 중상을 중지할 데 대한 우리(北)의 제의에 대한 도전이며 남북관계 개선을 전면 부정하는 도발적 망동’이라며 ‘南 당국은 올바른 자세와 입장을 가지고 관계개선을 위한 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1.7, 평방)
- 신년사 ‘조국통일’ 부문 관련 ‘민족 앞에 나선 최대의 민족사적 과제’라며 ‘남북, 해외 전체 조선민족은 김정은 영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 백두산 위인들의 조국통일유훈을 현실로 꽃피워 나가야 한다’고 再次 주장(1.7, 중통·노동신문)
-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비방중상 중단) 및 외세배격의 우리민족끼리 이념 견지’ 강조 ‘김정은 신년사’ 연일 주창(1.8, 평방·중통)

01.13-01.19

1월

3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2. 대외 관계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마식령 스키장 체제선전에 적극 활용(1/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2면 ‘눈부신 주로’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2014년 새해를 앞두고 마식령 스키장이 요란하게 개장된 것은 세계가 조선(북한)을 또다시 새롭게 알게 한 역사적 사변”이라며 “마식령은 최첨단의 문명세계를 펼치는 호화로운 영(嶺)”이라고 평가함.
- 신문은 “우리의 후대들이 향유할 몫이라고만 생각했던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당대의 향유의 재부로 됐다”라며 “다른 나라의 재벌들이 맛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던 호화스러운 생활도 우리 자신의 보통생활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라고 강조함.
- 또한 마식령 스키장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이 따뜻하게 흘러넘치는 사랑의 주로”, “위대한 헌신과 노고의 자욱이 깃든 애국애민의 주로”라고 표현하면서 김 제1위원장의 ‘인민중시 원칙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부각함.

● 北김정은 국가과학원 시찰…“아낌없는 과학기술 투자”(1/1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국가과학원을 방문해 과학자와 기술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들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평안남도 평성의 국가과학원을 둘러보고 “우리가 강성해지고 잘 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고립압살책동이 그 어느 때보다 약탈해지고 있는데 맞게 과학기술의 힘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고 통신이 전함.
- 또 “적들과의 대결전에서 연전연승을 이룩하자면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며 “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함.

- **北 최룡해, 평양 방직공장 합숙소 건설현장 시찰(1/15, 조선중앙통신)**
 - 최룡해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합숙소 건설 현장을 현지 시찰해 시공 실태와 자재 공급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건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고 지열 난방을 도입하기 위한 대책들을 협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함.

- **北, 최고인민회의 지역·군사 부문 선거족 구성(1/1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오는 3월 9일 실시되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선거를 위한 도, 시, 군 선거위원회와 군사 부문 선거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함.

- **北, 신세대에 충성 강조…“배신자 용서 못해”(1/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자’란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우리는 새 세대들이 항일혁명투사들의 정신 세계에 언제나 자기를 비춰보며 부단히 수양하고 단련해나가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충실성의 전통, 혁명의 대를 곳곳이 이어나가게 해야 한다”고 역설함.
 - 신문은 “당 및 근로단체 조직에서 특히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며 “부모가 혁명가라고 하여 자식이 저절로 혁명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함.

- **北 김정은, 군악단 연주 감상…“전투적 군악” 강조(1/1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군악단의 연주를 감상하고 군과 주민의 사기를 높일 군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군악은 인민군대의 상징이고 열굴”이라며 “전투적 기백이 차넘치는 군악을 더 높이 올려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과 낙관, 원수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멸적의 투지를 안겨줘야 한다”고 강조함.

- 北, ‘張 세력’ 박춘홍·량청송 당 부부장 숙청한 듯(1/17,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해 12월 장성택 처형 이후 장성택 세력 제거작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춘홍·량청송 노동당 부부장이 숙청된 것으로 보인다
 - 통신이 17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게재된 김정은 공개활동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이름은 장성택과 마찬가지로 수행자 명단에서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됨.

- 北 김정은, 공연 관람도 ‘선군’…軍 악단 선호(1/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7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등 군 수뇌들과 함께 인민군 군악단의 연주회를 관람했다고 전함.
 - 특히 김 제1위원장은 군악단 연주회에 ‘대만족’을 표시하고 이 연주회가 새해 들어 자신에게 “큰 힘을 줬다”고 크게 치하함.

■ 김정은동향

- 1/15, 김정은 黨 제1비서, 국가과학원 현지지도(1.15,중통·중방)
 - 최태복, 한광복, 리재일, 박태성, 황병서, 마원춘 동행
 - 장철(국가과학원 원장), 김운기(국가과학원 당위 책임비서) 영접
- 1/16, 김정은 黨 제1비서, 1.15 ‘권향심’(평북 운전군, 100살)에게 생일상 전달(1.16,중통)
- 1/17,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 군악단의 연주회 지도(1.17,중통·중방)
 - 최룡해, 리영길, 김수길, 럽철성, 최휘, 황병서 등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北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박봉주(내각 총리/보고) 등 참가下 ‘김정은의 새해 신년사 과업 관철’ 토의 및 ‘해당하 결정서 채택’ 등 진행(1.18,중통)
 - 회의에서는 지난해에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된데 대해 언급했으며, 올해 내각 앞에 나선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했음.

나. 경제

● 北 “전력·석탄 증산 집중하자”…에너지문제에 총력(1/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전력, 석탄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전력과 석탄 생산에 힘을 집중해 그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 오늘의 경제사업에서 이보다 더 긴급한 과제는 없다”고 밝힘.
- 신문은 “전력은 현대산업의 기본동력이며 석탄은 공업의 생명선”이라며 전력·석탄산업의 증산은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절박한 요구”라고 강조함.

● 北 “평안도 등 서부지구 탄광 집중 투자”(1/1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리영용 석탄공업성 부상을 인하여 “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유리한 서부지구 탄광들에 노력과 설비, 자재들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도함.
- 리 부상은 “(석탄공업)성에서는 올해에 높은 석탄증산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짜고 들고(치밀하게 계획) 있다”며 “성 안의 정무원(고위 공무원)들은 각지 탄전들에 나가 작전과 지휘를 기동성 있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함.

● 북한 평양에 외자계 햄버거점 속속 오픈(1/13, 아사히신문)

- 북한 평양에 외국계 자본의 햄버거 점이 속속 문을 열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3일 싱가포르발로 보도함.
- 관계자에 따르면 4년 반 전 평양에 생긴 햄버거 1호점이 호평을 받아 현재 옥외 매대를 포함 햄버거점이 10곳이 넘었음.
- 싱가포르 투자가가 출자한 이 햄버거점 이름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역대 지도자를 뜻하는 ‘삼대성’(三大星)으로, 작년 6월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한 곳을 방문, 햄버거를 시식했다는 전함.

● 北, 작년 태국산 고무 수입 급증…“경공업 원료 수요”(1/14, 연합뉴스)

- 코트라는 작년 1~9월 태국의 대북 고무 수출액이 6천720만 달러(약 710

억 원)로 집계됐고 이는 2012년 한 해 태국의 대북 고무 수출액(1천400만 달러)의 4.8배에 달하는 액수라고 연합뉴스가 14일 보도함.

- 통신은 태국의 대북 고무 수출액이 2010년과 2011년만 해도 연간 100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2012년부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는 김정은 시대 북한이 ‘인민생활 향상’을 내걸며 경공업 발전에 힘을 기울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함.

● **월드비전, 올해 대북지원에 100만달러 투입(1/16, 자유아시아방송(RFA))**

- 국제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은 올해 북한에서 식수·영양 지원, 농업기술 전수, 재난 구호 등의 사업을 벌여 100만 달러(약 10억6천만 원)를 쓸 계획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함.
- 월드비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식수 지원사업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며 평안남도의 정수시설이 완공되면 지역 주민 5천300 명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유럽 NGO, 北 남포항에 물류창고 건설 계획(1/17, 자유아시아방송(RFA))**

- 영국의 대북 지원단체인 ‘북녘어린이사랑’(Love North Korea Children) 측은 국제구호단체인 옥스팜 홍콩지부의 지원을 받아 남포항에 구호품 물류창고를 짓는 등 대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함.

● **北 지방도시에도 판매용 아파트 건설(1/17,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북한 주민 소식통들을 인용해 평양뿐 아니라 평안북도 신의주시, 양강도 혜산시, 평안남도 평성시 같은 지방 도시들에도 판매용 아파트가 잇달아 건설되고 있다고 보도함.
- 소식통들은 기업소들이 북한 당국의 묵인 아래 판매용 아파트를 짓고 있으며 이들 아파트가 주로 외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 주택’으로 불리며 “약 100㎡ 규모 아파트의 가격은 약 3만 달러(약 3천200만 원) 정도”라며 “실내 장식이 전혀 안 돼 있어 실제 입주하는 데는 수천 달러의 추가 비용이 든다”고 말함.

- **유엔, 650만달러 대북 긴급지원(1/18,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이 북한에서 활동하는 산하 기구들에 650만 달러(약 69억 원)를 긴급 지원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함.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은 북한을 비롯한 8개국의 유엔 기구들에 8천600만 달러를 긴급 지원하면서 북한에는 650만 달러를 배정함.

- **北 “농사는 정치적 문제”…연일 증산 독려(1/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 올해 알곡 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함으로써 올해 당이 제시한 알곡 고지를 기어이 점령해야 한다”고 밝힘.
 - 또 “농사를 잘 지어 쌀더미를 높이 쌓으면 경제강국 건설도 문명국 건설도 문제없다”며 올해 농사는 ‘경제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식 사회주의의 만세 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게 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문제”라고 강조함.

- **北 경제개발구 발전과제 제시…“정치군사환경 중요”(1/19, 연합뉴스; 사회과학원 학보)**
 - 연합뉴스가 19일 입수한 북한 계간지 ‘사회과학원 학보’ 최신호(2013년 11월15일 발행)는 ‘경제개발구들을 설치하고 발전시켜 경제강국 건설을 다그치는 데서 나서는 중요문제’라는 글에서 경제개발구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 5가지를 제시하면서 “정치적 군사적 환경을 잘 마련하는 것”을 네번째 ‘중요문제’로 제시함.
 - 학보는 “그것은 투자자들이 투자에 앞서 투자하여야 할 나라의 정치군사적 환경을 고려하여 투자하기 때문”이라며 “경제개발구에서의 정치군사적 환경은 투자의 안정성 보장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함.

다. 군사

● 北, 노농적위군 창설일 맞아 ‘김정은에 충성’ 강조(1/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1면 사설에서 “노농적위군은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드는 혁명적 무장력”이라며 “대오 안에 최고사령관(김정은) 동지의 명령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영군체계와 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독려함.
- 이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중요 계기마다 민간무력의 전투적 기상을 만천하에 떨치도록 내세워주었다”며 “그 어떤 천지풍파 속에서도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목숨으로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함.

2 대외 관계

● 로드먼, 베이징 귀환…“좋은 일 하고 싶었을뿐”(1/13, 연합뉴스)

- 귀국길에 오른 데니스 로드먼은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북한 여행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며 “이런 기회를 준 김정은 장군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13일 보도함.
- 로드먼은 “이것 하나만은 확실히 말하고 싶다”면서 “(나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에게 현재 북한에서 어떤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 주려고 했던 것”이라며 북한 방문 배경을 설명함.
- 북한에 장기간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와 관련해 북한 당국에 어떤 문제를 제기했느냐는 질문에는 “유감이다(I’m sorry). (그에 대해)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은 유감이다. 그러나 내 잘못은 아니다”면서 “나는 단지 좋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고 그게 내가 원하는 전부였다”고 말함.

● 英 텔레토비·닥터후가 북한 개방 앞당길까(1/13, 선데이타임스)

- 영국 선데이타임스는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의 지원 아래, BBC가 북한 국영 TV와 함께 각종 BBC 고전 프로그램을 북한에 방영하는 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함.
- 헤이그 장관은 하원 외무위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번 방영 논의가 장기적으로 북한이란 닫힌 사회에서 외부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일본 이노키 의원 평양 도착…28번째 방북(1/13, 조선중앙통신; 교도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안토니오 이노키(본명 이노키 간지) 일본유신회 소속 참의원이 일행과 함께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한 후 만수대언덕에 있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에 헌화했다고 보도함.
-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노키 의원은 이번 방북의 주된 이유로 스포츠 교류 촉진을 제시했으며 김영일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 등 요인들과의 회담도 계획한 것으로 알려짐.

- **北, 소치 동계올림픽 출전권 아직 못 따(1/14, 미국의소리(VOA))**
 - 북한이 다음달 7일 개막하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따지 못해 대회에 선수를 한 명도 출전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보도함.
 - 방송은 13일 기준으로 북한 선수들이 소치 올림픽 출전권을 한 장도 확보하지 못했으며 피겨스케이팅 남자부와 페어에서 각각 대기자 명단에 오른 데 그쳤다고 전함.

- **美·中, 北 문제 정기적으로 논의(1/14, 미국의소리(VOA))**
 - 미국과 중국이 2009년 북한의 비상사태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된 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양국이 북한 문제를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보도함.
 -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중이 북한 비상사태 가능성을 논의했는지에 대한 VOA의 질문에 “미국과 중국은 북한을 포함해 상호 중요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답함.
 -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발간한 ‘중국과 대량살상무기·미사일 확산’ 보고서에서는 2009년 10월 커트 캠벨 당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비상사태를 논의했는지 묻는 말에 “모든 사안”을 논의했다고 답한 사실이 확인됨.

- **북미 합작영화 ‘산너머 마을’美뉴저지 영화제서 상영(1/15,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과 미국의 합작영화인 ‘산너머 마을’이 이달 24일 개막하는 미국 뉴저지 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함.
 - 6·25전쟁 당시 남한 군인과 북한 간호사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는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사업을 해온 재미동포 사업가 배병준씨가 투자하고 각본을 썼고 촬영은 평양, 신의주, 개성 등 북한 현지에서 이뤄졌으며 영화 배우와 스태프도 모두 북한 사람들로 구성됨.

- **北내부영상 다큐 美방영…“주민들 김정은 능력 의심”(1/15, 허핑턴포스트)**
 - 영국의 다큐멘터리 감독인 제임스 존스는 일본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石丸次郎) 대표와 함께 다큐 ‘비밀 국가 북한’을 제작, 14일(현지 시간) 미국 공영방송 PBS에서 첫선을 보였다고 허핑턴포스트가 15일 보도함.
 - 존스 감독은 모든 북한 주민이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능력을 의심하는 것처럼 보였으면서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한 탈북여성조차도 김 위원장은 멍청이라고 했다”고 전함.

- **북-중 신압록강대교 공정률 80%…올해 개통(1/15, 신화통신)**
 - 신화통신은 14일 열린 랴오닝(遼寧)성 교통운수공작회의를 인용해 중국 단둥(丹東)과 북한 신의주 남부를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가 주탑과 교량 상판 공사를 마쳐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15일 보도함.
 - 총연장 3천26m, 왕복 4차로의 신압록강대교는 2기의 거대한 주탑에서 비스듬히 드리운 여러 개의 케이블로 다리를 지탱하는 형태의 사장교(斜張橋)며, 전체 사업비 22억2천만위안(약 3천800억 원)은 중국 측이 모두 부담함.

- **北 김영일 비서, 방북 이노키 日 의원 면담(1/1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북)일우호친선협회 고문인 김영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15일 방북 중인 안토니오 이노키(본명 이노키 간지) 일본유신회 소속 참의원과의 일행을 만나 담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함.

- **北, 마식령 스키장에 평양 주재 외교관 초청 ‘홍보’(1/16,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16일 류홍차이(劉洪才) 중국 대사를 비롯한 북한 주재 외교관, 무관, 국제기구 대표들과 그 가족들이 마식령 스키장을 방문했다고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류홍차이 중국 대사는 “여기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 마식령 스키장에 외봤다고 말할 수 없다”며 “마식령 스키장은 규모가 대단히 크고 사람들에게 정신적, 문화적 재부를 안겨주는 곳”이라고 말함.

● 北 “美 선의로 나오면 우리도 그에 맞게 행동”(1/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자주권 존중의 원칙에서 친선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로드면 방북과 농구경기가 두 나라 국민 사이의 이해를 도모하는 계기가 된다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한 뒤 “미국이 이제라도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선의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그에 맞게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함.
- 신문은 그러나 “만일 미국이 우리를 반대하여 계속 압력을 가하고 힘을 사용하는 데로 나간다면 강위력한 자위적 힘을 가진 선군 조선은 그에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함.

● 北 장성택파 적발단 국경에 파견(1/16, 요미우리신문)

- 북한이 이른바 ‘장성택 파(派)’를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 중국 및 러시아 국경에 접한 라선경제무역지대에 ‘적발단’을 파견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6일 보도함.
- 신문은 “‘매국행위’에 가담한 인물을 적발해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장씨와 관련된 인물을 일소하려는 목적”이라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전하면서 적발단 파견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독재체제 재건을 서두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함.

● 中, 北 한미훈련 중단 주장에 “모두 자제해야”(1/16, 연합뉴스)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거듭 주장한 것과 관련, “우리는 유관 당사국이 모두 자제를 유지하고 서로를 자극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현재의 안정된 정세를 공고히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함.

● 北, 中과 협력해 동평양 상업거리 착공(1/1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6일 북한이 중국 자본과 손잡고 추진하는 동평양지구 상업거리 건설의 착공식이 열렸으며 착공식에 김기석 국가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과 황스짜이(黃世再) 대중화국제투자집단유한공사 회장, 주북 중국대사관 경제무역참사가 참석했다고 보도함.

● 이노키 “北, 日 납치문제담당장관 방북 초청”(1/16, 연합뉴스)

- 일본유신회 안토니오 이노키 참의회 의원은 3박4일간의 방북일정을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일우호친선협회의 고문인 김영일 노동당 국제부장이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일본 납치문제담당상의 방북을 요망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함.

● 北, 파나마에 ‘청천강호 석방’ 벌금 7억원 내기로(1/17, AFP통신)

- 북한이 불법무기 운반 혐의로 파나마에서 6개월째 억류 중인 청천강호와 선원을 석방시키려고 다음 주 약 67만 달러(7억1천만원)의 벌금을 현지 정부에 내기로 했다고 AFP통신이 17일 보도함.

● 현학봉 駐英 北대사, 평양서 나와 베이징 방문(1/18, 연합뉴스)

- 현학봉 영국 주재 북한대사가 18일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최근 본국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현학봉 대사는 오전 북한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한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으며, 현 대사와 함께 중국을 방문한 일행 중에는 북한 외무성 산하 군축평화연구소 연구원 몇 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北 노동신문, 美의 ‘키 리졸브’ 강행 방침 비난(1/19, 노동신문)

- 북한의 노동신문은 19일 미국 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을 예정대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고 도발”이라고 비난함.
- 신문은 ‘선제공격을 위한 위협한 전쟁소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과 관련해 궤변을 하고 있다며 “평양타격을 노리고 최대규모로 벌어지는 전쟁연습이 어떻게 ‘방어적 성격’을 띠고 쫓겨가는가(떠드는가)”라고 지적함.

■ 기타 (대외 일반)

- 美 무인정찰기(글로벌 호크) 일본에 배치 계획 등 관련 '대조선 적대시정책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무모한 실천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아 태지역에 군사력을 강화하여 세계제패 야망을 기어이 실현해 보려는 기도'라고 비난(1.13,중통·노동신문·평방)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 “남북관계 개선은 南 태도에 달렸다”(1/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5면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에 서서 해결하는 데서 북남관계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를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힘.
- 신문은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하는 데서 해결해야 할 선차적인 문제는 동족끼리 서로 비방·증상하고 반목질시하는 것부터 중단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한국 정부의 태도는 이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함.

● 北, 한미군사연습 중지 요구…“남북관계 파국위기”(1/15, 연합뉴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15일 한미 군 당국의 키 리졸브 및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북남관계 개선과 대화에 대한 전면부정”이라며 “미국과 남조선 당국에 조선반도 정세와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며 파멸을 초래할 위험천만한 군사연습을 중지할 것을 엄숙히 경고한다”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함.
- 조평통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고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계기와 대화의 틀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언급한 사실을 거론하며 “남조선 집권자가 한 말이 가짜이며 속으로는 판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난함.

● 정부 “北, 이중적 행태 즉각 중단하라”(1/16, 연합뉴스)

-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연례적인 한미 키 리졸브 연습 전면 중지를 요구하며 남북관계 파국을 위협한 것과 관련, “북한이 연례적 방어 훈련을 비난하며 우리를 위협했다”면서 “대남 비방증상과 위협 등 신뢰를 위협하는 이중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함.

- 이 당국자는 “북한은 신년사에서 말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시급한 현안인 이산가족 상봉을 거부한 바 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北 “30일부터 상호 비방 중단…적대행위 중지 제안”(1/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국방위원회는 1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중대제안’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의 입장이라며 “오는 1월 30일부터 음력 설명절을 계기로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중상하는 모든 행위부터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자는 것을 남조선 당국에 정식으로 제의한다”고 밝힘.
- 국방위는 또 “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며 남한 정부에 2월 말 시작할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 등의 한미군사연습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거듭 촉구함.
- 특히 서해 5개 섬의 ‘열점지역’을 포함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대를 자극하는 행위를 전면중지할 것을 강조한다며 “이 제안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는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밝힘.

● 北 단체 “南 ‘북한인권 소동’에 매달리지 마라”(1/17, 우리민족끼리)

- 북한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17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법 통과 의지를 강조한 데 대해 “동족대결을 격화시키려는 악랄한 책동”이라고 비난했다고 북한의 인터넷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보도함.
-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이어 “남조선 보수집권 세력은 비방중상과 반목 질시가 북남 사이의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 마련에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모략적인 북인권 소동에 더이상 매여달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촉구함.

● 정부, 北제안 사실상 거부…“사실왜곡·여론호도 유감”(1/17, 연합뉴스)

- 정부는 17일 “북한이 사실을 왜곡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북한

- 국방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소위 ‘중대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17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우선 북한의 상호 비방 중단 제안과 관련, “남북 간 비방중상 중지 합의를 위반하면서 그동안 비방중상을 지속해 온 것은 바로 북한”이라면서 “북한은 불과 2주 전 신년사를 통해 비방중상 중단을 주장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우리에게 대한 비방중상과 위협을 계속해 왔다”고 비판함.
 - 그는 “이것이 바로 북한이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행태”라며 “비방중상을 설 전후해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일단 자기들이 비방중상 중지 제의를 한 이후부터 멈춰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북한의 비방중상 중지를 요구함.

● 北 통신, 북핵 위협 대응 한미연습 비난(1/1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한미 군 당국이 최근 하와이에서 북한의 핵위협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 연습을 한 데 대해 “무분별한 망동”이라고 비난함.
- 통신은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 핵전쟁을 가상한 군사연습 감행’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방부가 지난 14~15일(현지시간) 하와이의 미국 태평양사령부에서 제3차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토의식 연습(TTX: Table Top Exercise)을 한 사실을 거론함.
- 또한 남한과 미국이 2011년 시작한 이 연습에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사용징후에 포착되면 선제타격한다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올해 처음 적용했다고 지적함.

● 北 매체, 南에 ‘중대제안’ 수용 재차 촉구(1/17, 우리민족끼리)

- 북한은 17일 남한 정부가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을 수용할 것을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재차 촉구함.
- 우리민족끼리는 홈페이지에 올린 ‘태도를 바로 가져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달 30일부터 상호 비방의 전면중단 등을 제시한 중대제안에 대해 “북과 남 사이에 조성된 현 사태를 수습하고 온 겨레에게 닥쳐올 핵재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도의 하나”라고 주장함.

- **北 “중대제안 실천행동 먼저 할 것”…南 수용 촉구(1/18, 노동신문)**
 -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18일 국방위원회의 ‘중대 제안’을 먼저 실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남한도 이에 부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함.
 - 신문은 ‘대결의 악순환을 끝장내기 위한 실천적 제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의 중대 제안을 실현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우리는 이미 선언한대로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밝힘.

- **北, 국방위 ‘중대제안’ 이후 연일 대남 평화공세(1/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에 대한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애국적 결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중대제안에 대한 각계 반응을 소개함.
 - 김일성종합대학 철학부의 김룡진 교원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 평화변영의 넓은 길을 열어나갈 대안이 바로 국방위원회 중대제안에 있다”며 남한 정부에 “중대제안을 성실히 받아들이고 북남관계 개선의 길에 주저없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 또 북한의 간판 역도선수 엄윤철은 6·15공동선언을 거론하며 “북과 남의 체육인들이 통일기를 휘날리며 단일민족의 슬기와 기상을 과시하던 그 때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라며 지금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노력할 시기라고 강조함.

나. 경제사회문화

- **北, 우리 민간단체들에 “파쇼 타도” 신년서신(1/16, 연합뉴스)**
 - 관련당국과 북한 관련 민간단체들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측 대북지원 단체, 통일 단체, 종교·사회 단체, 개인 등 60여곳에 팩스 등을 이용해 ‘2014년 신년 서신’을 보내왔다고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함.
 - 한 개신교 단체가 받은 신년 서신에서 북한은 “주님의 뜻을 받들어 불의를 타파하고 정의를 실현하며 파쇼(파쇼의 북한식 표현) 독재를 깃부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기독교 본연의 자세”라고 주장함.

●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완공...설 전 가동 목표(1/16, 연합뉴스)

-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어제 개성공단 RFID 공사 작업을 마무리했다”며 “일주일 정도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하고 개선·보완을 거쳐 설 연휴 전인 1월 말부터 일일단위 상시출입을 실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함.

● 남북, 개성공단 ‘3통’ 분과위 24일 개최(1/17, 연합뉴스)

-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산하 ‘3통’(통신·통행·통관) 분과위원회 회의가 24일 열릴 예정이라고 통일부가 17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이 (개성공단) 사무처를 통해 분과위 개최 문제를 협의해왔고 이 중 3통 분과위 일정이 우선 확정됐다”며 “나머지 분과위 일정은 사무처를 통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함.
- 북한은 오전 공동운영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남측에 3통 분과위 회의 일정을 제안했고 우리 측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짐.

■ 기타 (대남)

- 우리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민주당·통진당·정의당’ 등의 비난을 거론 “민심은 천심”이라며 ‘현 집권자를 비롯한 당국자들은 민심의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1.13,평방)
-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1.15), 韓美 ‘키 리졸브, 독수리’ 군사연습 강행時 “북남관계가 파국적위기에 처하게 될 것은 물론 상상을 초월하는 참화와 재난이 빚어질 수 있다”며 중지 요구·위협(1.15,중통·중방)
- [北 국방위 중대 제언(1.16)] ‘정부·정당·단체들의 위임에 따라 원칙적 문제들을 제안한다’며 ‘1월30일부터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 중상하는 모든 행위와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고 핵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 조치를 호상 취해 나가자’고 주장(1.16,중통·중·평방)
- [중통사 논평]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연습’ 계획 관련 ‘조선반도 정세를 새로운 대결국면으로 몰아가려는 군사적 도발’이라며 ‘관계개선과 대화에 대한 전면 부정이며 핵 전면 대결전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韓美 비난(1.16,중통)

01.20-01.26

1월

4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2.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공수부대 야간훈련 ‘불시’ 참관 (1/2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항공육전병부대(우리의 공수부대)의 야간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함.
 - 통신은 “각 군종·병종 부대의 야간 실전능력을 대단히 중시하는 최고사령관(김정은) 동지는 항공육전병 구분대들이 야간전에 대처할 수 있게 준비됐는가를 검열하고자 불의에(불시에) 야간훈련을 조직하고 지도했다”고 밝힘.
 - 김 제1위원장은 “불리한 야간 조건에서도 전투원과 비행사들이 어려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다”고 치하하고 나서 “군인들이 언제 어떤 정황과 조건에서도 전투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려면 훈련을 실전처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 **‘중대제안’ 한 北 김정은, 특수전부대 훈련 잇단 참관(1/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동지께서 ‘오중흡7연대’ 칭호를 받은 인민군 제323군부대의 전술훈련장을 찾아 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자연지리적으로나 기상학적으로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훈련을 진행했는데 만점”이라며 “지휘관들이 군인들의 앞장에서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면서 전투를 지휘했기 때문에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고 크게 치하하고 이 부대에 최고사령관 명의의 ‘감사’를 전함.

- **장성택 일가 모두 처형…장용철·전영진 대사 포함(1/26, 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로 장성택의 일가 친인척 대부분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26일 전함.
 - 북수의 대북소식통은 26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로 장성택의 친인척에 대한 대대적인 처형이 이뤄졌다”며 “장성택의 친인척은 어린 아이까지 모두 죽임을 당했다”고 전함.

- 소식통에 따르면 장성택의 누이인 장계순과 매형인 전영진 쿠바 대사, 장성택의 조카인 장용철 말레이시아 대사와 그의 아들인 20대 중반의 태령·태웅은 작년 12월 초 평양으로 소환돼 처형됨.

■ 김정은동향

- 1/20, 김정은 黨 제1비서, 軍 항공육전병 구분대들의 야간훈련 지도(1.20,중통·중방)
 -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변인선, 김격식, 김수길, 리병철, 박정천, 황병서 동행
- 1/22,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원산시에 건립하는 사업에 기여한' 강원도 금강관리국 일꾼 등에게 [감사] 전달(1.22,중방)
- 1/23, 김정은 黨 제1비서, 마두산 혁명전적지 시찰(1.23,중통·중방)
 - 황병서, 마원춘, 김영철, 박정천 동행
- 1/23, 김정은 黨 제1비서, 오중흥7연대 칭호를 수여받은 軍 제323군부대 전술훈련 지도(1.23,중통·중방)
 - 리영길, 김수길, 리병철, 김영철, 박정천, 황병서 동행
- 1/23, 김정은 黨 제1비서, 국가과학원에 '윤전기재들' 선물 전달(1.23,중통·중방)

나. 경제

● 北, 올해부터 평양역 현대화 사업(1/21, 조선신보)

- 북한 철도성의 김순옥 국장은 철도운수사업 계획과 관련해 “올해부터 평양역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기 위한 사업이 시작되게 된다”고 밝혔다고 조선신보가 21일 보도함.
- 김 국장은 또 철도성이 올해 추진할 사업으로 철도의 과학기술 발전을 언급하고 “현대적인 철도차량들을 연구개발한다”며 철길을 증량화, 현대화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힘.

● 北 이동통신 '고려링크' 매출 급증...“가입자 증가 덕”(1/22, 연합뉴스)

- 고려링크의 지분 75%를 가진 이집트 통신업체 오라스콤이 최근 자사 웹사이트를 공개한 작년 1~9월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고려링크의 매출은 2억3천44만 달러(약 2천460억 원)로 집계됐으며, 이는 2011년 11월 말부터 2012년 9월 말까지 고려링크의 매출 1억6천31만 달러보다 43.7% 증가한 액수라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함.

- **北 “황금평 송전선 공사 90% 이상 진행”(1/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압록강 하류의 섬인 황금평과 평안북도 신도군을 잇는 송전선 공사가 22일 기준으로 90% 이상 진행됐다고 보도함.
 - 노동신문은 평안북도 송·배전부가 황금평~신도군 송전선 공사를 이달 중으로 끝낸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작년에는 신의주시 연하지구~용천군 진흥리 구간 송전탑 조립 공사도 완료했다고 전함.

- **美, 지난해 대북 수출 1천400만 달러 승인(1/23,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상무부가 2013년 회계연도(2012년 10월~2013년 9월)에 약 1천 400만 달러(약 149억)의 대북 수출을 승인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함.
 - 상무부 산업안전국은 최근 미국 의회에 제출한 ‘수출정책 대외정책보고서’에서 2013년 회계연도에 접수한 대북 수출 30건 가운데 14건을 승인했다며 북한에 보내진 물품 총액을 밝혔으며, 상무부가 승인한 대북 수출의 99.9%는 인도주의 지원품인 식품, 의약품 등 기본 소비재로 나타남.

- **北, 작년 對中 무연탄 수출액 15.5% 늘어(1/24,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 수출한 석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연합뉴스가 전함.
 - 24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북한이 작년 한해 중국에 수출한 무연탄 총액은 13억 7천 371만 달러로 2012년 11억 8천 979만 달러에 비해 15.5%(1억 8천 392만 달러) 증가함.

- **英, 최근 5년간 北에 186억 규모 인도적 지원(1/25, 미국의소리(VOA))**
 - 영국 정부가 최근 5년간 북한에 1천 40만 파운드(약 186억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5일 보도함.
 - 앨런 던컨 영국 국제개발부 부장관이 지난 22일 의회에 제출한 대북 인도적 지원 내용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5년간 1천 38만 9천 파운드(약 186억 4천 만원)를 지원함.

다. 사회문화

- **北 결핵 치료 수요보다 공급 턱없이 부족(1/21, 글로벌포스트;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소리(VOA)는 21일 인터넷 매체 ‘글로벌 포스트’를 인용해 북한의 결핵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이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힘.
 - 지난해 11월 동료와 함께 2주일간 북한을 방문했던 스탠퍼드대 의대 게리 스클닉 교수는 “북한에서는 소수의 결핵 환자들만이 현대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며 “결핵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려면 적어도 6개월 동안 4가지 항생제를 투약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재원이 부족하다”고 말함.

- **北 노동신문, 고아 등 취약계층 챙기기 부각 눈길(1/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절세위인의 후대사랑,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간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고아와 양로원 노인들을 잘 챙기는 각지의 노동당 간부들을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함.
 - 신문은 “(고아원) 원아들과 양로원 보양생(노인)들의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잘 돌봐주는 것을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각지 당조직과 당 일꾼들은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밝힘.

- **北, 개정 교육법서 ‘과학기술 인재 육성’ 강조(1/26, 연합뉴스; 민주조선)**
 - 북한이 지난해 교육법을 개정해 과학기술에 관한 내용을 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26일 전함.
 - 연합뉴스가 26일 입수한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1월 17일자는 ‘법규해설’ 코너에서 북한이 12년제 의무교육의 시행에 맞춰 작년에 교육법을 개정했다며 관련 내용을 소개함.
 - 민주조선은 교육법이 1장에서 교육사업의 제반 원칙으로 ▲건전한 사상과 과학기술지식, 튼튼한 체력을 가진 인재 육성 ▲수재교육 강화 ▲교육부 지원 강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힘있게 추진하는 문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전함.

2 대외 관계

가. 일반

- **北 억류 케네스 배 기자회견…“석방 원해”**(1/20, 조선중앙통신; 신화통신)
 - 케네스 배 씨는 20일 평양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가 조선정부와 밀접하게 협력해서 조기에 석방되기를 희망한다”라며 “나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조선과 서방 간의 우의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기를 희망하며 조선이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20일 조선중앙통신과 신화통신이 보도함.

- **북한 김정남, 이달 말레이시아 입국**(1/21, 요미우리 신문)
 - 김정남이 이달 들어 거점으로 삼아온 싱가포르를 떠나 말레이시아에 입국했으며, 수도 쿠알라룸푸르 시내의 한국식당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다고 2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함.

- **北 “자본주의 나라와도 친선관계 발전 노력”**(1/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인류의 안전과 번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과 ‘발전도상나라’(개발도상국)들의 친선 강화를 언급하며 “우리는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선린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힘.
 - 신문은 “우리 공화국 정부는 국가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평등과 호상존중(상호존중)의 원칙에서 경제기술협조와 문화적 교류를 발전시키며 이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다”고 덧붙임.

- **북한 나선특구에 중국 전력 공급사업 지지부진**(1/22,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이 공동 개발 중인 북한 나선특구에 중국 측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함.
 - 한 대북소식통은 22일 “북한 측은 나선특구 입주기업들이 일단 자신들에게 전기를 납부한 뒤 이를 중국 측에 전달하기를 희망하지만, 중국 측

은 전기료를 직접 수금하는 방식을 원한다”면서 “일단 북한 측에 돈이 들어가면 이를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말함.

● **北, 신임 알제리 주재 대사에 최혁철 임명(1/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알제리 주재 조선(북한) 특명전권 대사로 최혁철 동지가 임명됐다”라고 보도함.

● **北마식령스키장 관광상품 잇달아…내주 외국인에 개방(1/23,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소리(VOA)방송은 23일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에 마식령스키장을 개방한다면서 미국에 있는 북한 전문 여행사 ‘우리투어’의 존 댄츨러 올프 실장을 인용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첫 스키 여행은 오는 27일 시작된다”고 밝힘.
- 댄츨러 올프 실장은 VOA에 “현재까지 6명의 관광객이 방북 신청했고 대부분 미국인”이라며 관광객들은 27일 평양에 도착해 다음 날 마식령스키장으로 이동, 30일까지 스키를 즐기고 31일 귀국할 계획이라고 전함.

● **중국 지린성, 북한 연결 교량 10곳 신축·보수(1/23, 중국신문사)**

- 23일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바인차오루(巴音朝魯) 지린성장은 22일 성(省) 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에서 올해 사업계획 보고를 통해 “지역의 개방 수준을 한층 높이고 북한과 접경한 훈춘(琿春) 취안허(圈河)와 투먼(圖們) 등지의 10개 국경 교량에 대한 보수·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지린성 공안 변방총대(국경경비대) 우옌(武岩) 총대장은 “이들 10개 국경 교량은 모두 북한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무역 통로지만 모두 낡아 통행이 위험한 상태”라며 “교량 신축과 개조를 추진하면 접경 지역 주민에 더 많은 경제적 실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함.

● **北, 푸에블로호 나포일 맞아 “미국은 교훈 잊지말라”(1/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푸에블로호 사건 때의 수치와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미제가 그때의 교훈을 망각하고 새 전쟁 도발책동에 미쳐 날뛰다면 푸에블로호 사건 때보다 더 비참한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함.

- 신문은 “미국은 (푸에블로호 사건 당시) 섬겨 바쳤던 사죄문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교훈을 똑바로 찾아야 한다”라며 “침략은 반드시 수치와 파멸로 이어지며 무분별한 모험으로는 상상 밖의 파국적 후과(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 조미 대결의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라고 주장함.

● **장성택 처형후 소환됐던 북한 무역일꾼 ‘원위치’(1/23, 연합뉴스)**

- 23일 북·중 접경 지역 대북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달 장성택 처형 이후 선양(瀋陽), 단둥(丹東), 연변(延邊) 등지에서 본국으로 대거 소환됐던 북한의 상사 주재원과 대표처 인원 가운데 상당수가 중국으로 돌아왔다고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단둥의 한 소식통은 “장성택 숙청과 처형이 일사천리로 이뤄져 중국에 파견된 무역일꾼이 대폭 물갈이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철수 형태로 귀국한 일부를 제외하곤 모두 돌아와 업무를 재개했다”고 말함.

● **北, 북중친선 잇달아 부각…“수교 65년 뜻깊은 해”(1/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설명절을 맞아 조(북)중친선 모임이 평양 순안구역 조중친선택암협동농장에서 열렸다고 보도함.
-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조중친선택암협동농장, 중국 문화부,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이 공동으로 연 이 모임에는 북측에서 김진범 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과 홍광웅 평양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중국측에서 류홍차이(劉洪才) 북한 주재 중국 대사 등이 참석함.
- 류 대사는 이 자리에서 “새해에도 여러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들이 이룩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중국대사관 명의로 이 농장에 지원증서를 전달하기도 함.

● **북한, 중국 쿤밍에 문화교류센터 개소(1/24, 신화통신)**

- 북한이 중국 서남부 윈난(雲南)성에 처음으로 북한식당과 미술·공예품 전시공간 등을 갖춘 문화교류센터를 열었다고 신화통신이 24일 전함.
- 통신에 따르면 북한 오륜무역총회사는 중국 윈난신즈(新知)집단과 손잡고 윈난성의 성도인 쿤밍(昆明)에 지난 22일 ‘북·중 문화협력교류센터’를 개소함.

- 양측은 지난해 5월 윈난성 정부의 승인을 받은 뒤 반 년가량의 준비 기간을 거쳐 쿤밍의 유명한 호수 관광지인 덴츠(전<삼수변에 眞>池) 부둣가에 센터를 열음.

● **중국 연변TV, 북한과 설 특집 프로그램 공동 제작(1/24, 연변일보)**

- 중국 지린(吉林)성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의 TV방송국이 올해 춘제(春節·설) 특집 프로그램을 북한과 공동 제작해 방영한다고 연변일보가 전함.
- 일보에 따르면 연변TV방송국은 매년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는 설 특집 프로그램에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 올해 사상 처음으로 북한과 공동 제작하기로 합의함.

● **국제구호단체, 北어린이 310만명에 일본뇌염 예방접종(1/25, 자유아시아방송(RFA))**

- 국제구호단체인 독일 카리타스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북한 어린이 일본뇌염 예방접종 사업을 최근 끝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함.
- 독일 카리타스는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평양과 평안북도, 함경남도, 황해남도의 2~4세, 9~16세 어린이 310만 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함.

● **북한, 중국서 태양광에너지 기술·장비 전수(1/25,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 25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베트남, 미얀마 등과 함께 중국의 재생에너지 전문기업들로부터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설비를 구매함.

● **北 노동신문 “日, 안중근 의사 함부로 모독 말라”(1/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일본 당국자가 최근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반일애국 열사를 함부로 모독하지 말라”고 지적함.
- 신문은 중국 하얼빈역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개관했다고 밝히면서 “조선인민뿐 아니라 중국인민에게도 헤아릴 수 없는 불행을 안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열사의 장거를 찬양해 기념관을 건설한 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고 강조함.

■ 기타 (대외 일반)

- 日 아베 총리의 연두소감 발표(강한 일본 되찾기 이제 시작)에 대해 “군국주의 광신자의 본색을 드러낸 망발”이라며 ‘평화를 바라는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가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우롱’이라고 비난 (1.20,중통·평방·노동신문)
- ‘미국은 평화의 교란자, 전쟁광신자라고 지속 비난 및 ‘평화는 청원이나 구걸로써 보장할 수 없고 오직 투쟁으로써만 쟁취할 수 있다’며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군력을 강화할 것’ 주장(1.22,중통·노동신문)
- ‘고종 황제 독살’ 95돌 즈음 ‘위안부·독도 영유권 주장’과 아베의 ‘강한 일본’ 발언을 거론하며 ‘역사의 반인륜적 죄악을 저지른데 대해 성근하게 반성하고 과거청산의 길에 나설 것’을 촉구(1.22,중통·노동신문)

나. 6자회담(북핵)

● 北 “제재는 핵 문제 해결 방도 아니다”(1/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0일 이란 핵협상이 작년 11월 타결됐음에도 미국 의회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난함.
- 신문은 미국이 이란 핵협상 타결로 “핵무기 개발이니 뭐니 하면서 이란에 대해 국제적 압박을 가하고 내정간섭 책동을 일삼던 구실을 잃어버렸다”며 “이에 심사가 뒤틀린 미국은 이 나라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겠다고 야 단법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함.

● 러 “북한 6자회담 재개 준비 신호 보내와”(1/21, 연합뉴스)

- 연합뉴스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북한 지도부는 어떤 전제 조건도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하지만 다른 여러 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자신들의 태도가 진정성이 있음을 입증할만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설명함.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 ‘중대 제안’ 수용 거듭 촉구…“의심부터 버려라”(1/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0일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남조선 당국은 우리 국방위원회 중대 제안을 받아들일 대신 터무니없이 ‘도발’을 운운하며 대결 광기를 부리고 있다”며 “(심)지어 남조선 군부세력은 도발에 대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응징’이니 하고 미친듯이 날뛰고 있다”고 비난함.
 - 신문은 “불신과 대결의 감정을 속에 품고 북남관계 개선을 운운할 때는 지나갔다”며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구원하고 대결의 역사를 끝장내자면 남조선 당국이 동족에 대한 편견과 불필요한 의심부터 털어버려야 한다”고 밝힘.
- 北, ‘통일 대박론’은 “급변사태 바라는 흡수통일 망상”(1/20, 통일신보;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20일 입수한 북한의 대외 선전용 주간지 ‘통일신보’(1월18일자)는 ‘통일은 대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글에서 박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밝힌 사실을 거론하며 이 말에는 “급변사태에 기대를 건 흡수통일의 망상이 깔려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북한이 “천만 군민이 영도자의 두리(둘레)에 철통같이 뭉쳐 있다”며 ‘급변사태’나 ‘북한 붕괴론’은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헛된 망상”이자 “너무도 천진난만한 생각”이라고 일축함.
- 北 유화공세 계속…“평화수호 의지 확고부동”(1/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평화수호는 우리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의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땅에서 대결과 전쟁 위협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조선민족에게 부과된 중대한 역사적 과제”라며 “민족사의 이 엄숙한 부름 앞에 북과 남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힘.

- 신문은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우리 공화국에 있어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 국방위원회가 지난 16일 ‘중대 제안’을 내놓은 것도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함.

● 北 “한반도 비핵화 원하면 美 핵공격 수단 반입 말라”(1/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핵재난의 근원을 청산해야 한다’는 논설에서 2월 말부터 시작할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핵타격 수단들이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쓸어들(몰려들) 것은 뻔하다”며 이로 인해 한반도 긴장과 핵전쟁 위기가 고조될 것이라고 지적함.
- 신문은 “남조선 당국은 진실로 북남 사이의 관계개선, 조선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바란다면 우리가 제안한 대로 미국의 핵 공격 수단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분별없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함.

● 北 국방위 “중대제안, 위장평화공세 아니다”(1/2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4일 국방위원회 이름으로 남한에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지난 16일 내놓은 ‘중대제안’이 위장평화공세가 아니라는 것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힘.
- 국방위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특명에 따른 남조선 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 각계층 인민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우리의 중대제안은 결코 위장평화공세도, 동족을 대상으로 벌이는 선전심리전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통신이 전함.
- 공개서한은 “우리는 이미 일방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자극이나 비방중상을 전면중지하는 길에 들어섰다”며 “우리의 중대제안은 결코 그 무슨 새로운 ‘도발’을 전제로 한 구실이나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뺄뺄어진 여론이나 바로잡기 위해 내놓은 명분 쌓기는 더욱 아니다”라고 주장함.

● 北 노동신문 ‘남북관계 개선’ 집중 부각…비난 없어(1/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공동선언들의 성실한 이행에 조국통일이 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말로만 신뢰를 외워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남북정상이 합의했던 공동선언의 중요성을 강조함.

- 또한 “공동선언들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라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이행된다면 북남관계의 개선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함.
- 신문은 ‘북남관계 개선에 대한 민심의 강렬한 요구’라는 글에서는 남한에서 민주당 등 야당과 언론, 전문가들이 중대제안을 지지한다며 “남조선 당국은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세의 흐름을 따라 남북관계 개선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함.

● **정부, 北공개서한 반박…“행동으로 진정성 보여야”(1/24, 연합뉴스)**

- 정부는 24일 “북한이 진정 남북관계 발전을 원한다면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북한 국방위가 발표한 ‘공개서한’을 반박함.
- 정부는 오후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이 발표한 ‘정부 입장’을 통해 북한 주장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실천적 행동을 촉구함.
- 김 대변인은 “북한은 소위 중대제안이 위장 평화공세가 아니라고 하지만 위장 평화공세인지 아닌지는 한 번의 말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은 지금부터라도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힘.

● **北, ‘중대제안’ 유엔안보리 공식문건으로 배포(1/2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지난 16일 국방위원회 명의로 한국 정부에 보낸 ‘중대제안’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공식문건으로 배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함.
- 통신은 “남조선 당국에 보낸 중대제안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자’가 23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공식문건 S/2014/ 37호로 배포됐다”라고 전함.

● **北, 국방위 ‘공개서한’ 주민반응 대대적 소개(1/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1면 절반을 할애해 ‘국방위원회 공개서한에 대한 각계의 반향’이란 제목의 기사를 싣고 “지금 전국 도처에서 우리 인민은 국방위가 공개서한을 보낸 데 대한 지지찬동의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다”고 밝힘.

- 신문에 따르면 김용철 전력공업성 부상은 “(공개서한은) 조국통일을 진실로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주장”이라고 강조했으며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인 김영환 박사는 “북과 남의 우리 겨레가 얼싸안고 통일 만세를 목청껏 외칠 그날이 벌써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같다”고 전함.

나. 경제사회문화

● 북한, 2014 인천아시안게임 참가 첫 시사(1/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올해 북한 축구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경기를 소개하면서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벌어지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축구경기에 남녀 축구팀들이 다 참가한다”라고 밝힘.

● AI 영향으로 남측 닭·계란 개성공단 반입 금지(1/24, 연합뉴스)

-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한국산 닭과 계란의 개성공단 반입이 금지된다고 연합뉴스가 24일 전함.
-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은 24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보낸 안내장에서 “AI 확정 판정에 따라 남측 닭과 계란의 (개성공단으로의) 반출이 금지된다”고 밝힘.

● 北, 이산가족 상봉제의…“설 지나 편리할때 금강산서”(1/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24일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전격 제외했다고 전함.
- 통신은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남측 적십자사에 통지문을 보내 “북남 사이의 흠어진 가족, 친척 상봉행사를 진행하자”라고 제안했다고 보도함.
- 통지문은 “상봉행사는 이미 북남 적십자단체들이 합의하였던대로 금강산에서 진행하되 날짜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설이 지나 날씨가 좀 풀린 다음 남측이 편리한대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힘.

기타 (대남)

- 北, '南 당국이 대결관념을 버리고 동족과 과감히 손잡는 용단을 내린다면 남북관계에서 풀지 못할 난관은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올바른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중대제안' 수용 거듭 촉구(1.20, 중통·중방·노동신문)
- '용산참사'(1.20) 5주기 즈음 '철거민들의 생존권과 생명들을 빼앗아간 천인공노할 살인 만행사건'이라고 '이OO정권' 비난 및 '지금 남조선에서는 용산참사가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다'며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1.20, 중통)
- '평화수호는 北의 일관한 정책이며 不變 의지'라며 이번 '北 『국방委』 對南 중대제안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선전 공세 및 '온 겨레의 지지' 선동(1.21, 중통·노동신문·중방)
- 北 중대제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사실왜곡' 등 입장 표명 관련 '중대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하며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망쳐놓고 정세를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는 죄악'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1.22, 중통·노동신문·중·평방)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1.27-01.31

1월

5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특수전부대 평양 초청해 기념사진(1/2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특수전부대인 ‘오중흡7연대’ 칭호를 받은 인민군 제323부대의 지휘관과 군인들을 평양으로 초청해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이들을 격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함.
- **北 기층조직 ‘당세포’ 역할 강조…‘민심잡기’ 포석(1/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1면 사설 ‘사상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오늘의 총진군에서 당세포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에서 “당세포는 당을 받드는 역철불변의 초석”이라며 “당세포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과 노선,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근본담보”라고 밝힘.
 - 신문은 “당세포들의 역할을 높여나가는 것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사상전, 선전선동의 된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며 “오늘의 사상전은 유일적영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중대사업이라고 거듭 강조함.
- **北,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구 구성(1/2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3월 9일 시행하는 최고인민회의의 제13기 대의원(우리의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선거구를 구성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함.
 - 통신은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법에 따라 도(직할시), 시(구역), 군들과 무력부문에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 선거분구들이 조직됐다”고 밝힘.
- **北 박봉주 총리, 축산기지 건설현장 시찰(1/29, 조선중앙통신)**
 - 북한 박봉주 내각 총리가 강원도 세포지구의 축산기지 건설현장을 찾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전함.
 - 박 총리는 현지에서 건설실태와 자재보장 상황을 점검했으며 관계부문 일꾼협의회를 열어 건설 목표를 확정하고 자재, 설비를 제때 보장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며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을 언급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 과업에 따라 건설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함.

● 北, “사상전·선전선동 강화”…선전일꾼 독려(1/3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1일 2면에 ‘사상전, 선전선동의 위력은 당 선전일꾼들에게 달려있다’라는 제목의 안효동 황해남도 배천군 당위원회 비서의 글을 싣고 노동당 선전선동부 소속 간부들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함.
- 신문은 “당 선전일꾼들은 당원과 근로자들을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무장시키고 그 관철로 조직동원하는 정치적 교양 자이며 고무자”라고 내세움.

■ 김정은동향

- 1/28,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에서 조선인민군 제323군부대 군인들과 기념사진 촬영(1.28,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리영길, 김수길, 리병철, 황병서 참가
- 1/29, 김정은 黨 제1비서, 80번째 생일을 맞은 ‘리룡암’(국가과학원 석탄과학분원 석탄채굴공학연구소

■ 기타 (대내 정치)

- 박봉주(내각 총리),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현장을 현지요해(1.29,중앙통신)
- 총리는 모든 건설자들이 신년사에서 제시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건설을 힘 있게 다그칠 것을 언급. 김정은 신년사 과업관철 위한 인민무력부 군인궐기모임, 1.4 4.25문화회관에서 진행(1.4,중통)

나. 경제

● 北, 작년 중국산 곡물 수입 29만 8천t…5.9% ↑ (1/27, 연합뉴스)

- 2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이 작년 한 해 중국에서 수입한 밀가루, 쌀, 옥수수 등의 곡물은 모두 29만 8천 257t으로 2012년 28만 1천 633t에 비해 5.9%(1만 6천 624t) 늘었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함.
- 북한이 지난해 수입한 중국산 곡물을 중량 기준으로 살펴보면 밀가루가 52.3%로 가장 많았고 옥수수(25.7%), 쌀(16.6%), 콩(5.1%) 등의 순으로 집계됐으며 북한의 중국산 곡물 수입액은 2012년 1억 2천714만 달러(약 1천 378억 원)에서 지난해 1억 4천 601만 달러(약 1천 583억 원)로 14.8% 증가함.

- **北, 中 인접 평북 경제개발구 ‘시범모델’로 띄우기(1/27, 내나라)**
 - 북한의 대외홍보용 공식 포털사이트 ‘내나라’는 27일 ‘평안북도가 경제지대(경제개발구) 개발을 진행한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평안북도는 경제지대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리하다”고 강조함.
 - 내나라는 특히 평안북도 압록강경제개발구가 들어서는 신의주시를 소개하며 “신의주는 조(북)중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도 소재지로 나라의 경공업 산지이며 조중 변경무역의 중심지, 중국과의 무역상품 집산지, 무역화물 유통중심지”라고 부각함.

- **북한에 필로폰 만연…중국거처 수출까지(1/28, LA타임스)**
 - 북한에 필로폰 밀조와 거래가 성행하고 있고 일부는 중국을 거쳐 외국으로 수출까지 하고 있다고 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28일 보도함.
 - 신문은 북한에 산재한 소규모 공장에서 몰래 만든 필로폰이 북한 사회에 널리 퍼져있으며 필로폰을 감기약이나 강장제처럼 사용하고 학생들은 밤샘 공부할 때 스스럼없이 필로폰을 복용하며, 심지어 배고픔을 잊기 위해 필로폰을 쓰는 사람도 있다고 보도함.

- **北암시장서 초코파이 개당 10달러에 팔려(1/28, CNN)**
 - 미국 CNN방송은 뉴욕 주재 코리아소사이어티의 스티븐 노에르퍼 수석 부회장을 인용해 초코파이가 북한 암시장에 널리 퍼져 구매력 환산 기준 개당 약 10 달러에 유통되고 있다고 28일 보도함.

- **北신문 “먹는 문제 해결 위해 바다 잘 이용해야”(1/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0일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수산 부문 발전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 신문은 1면 ‘포구마다에 만선의 뱃고동 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자’ 제목의 사설에서 “인민생활 향상에서 수산 부문은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며 “우리가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비는 바다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다”고 밝힘.

- **北, 농작물 우량종자 등록·생산 국가 관리(1/31, 연합뉴스)**
 - 북한이 우수한 농작물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종자의 등록과 생산을 관리하는 체계를 법제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1일 연합뉴스가 전함.
 - 연합뉴스가 입수한 북한의 ‘농작물종자관리법’은 “국가는 농작물 종자 관리사업에 선차적 관심을 돌리고 그 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리도록 한다”고 규정함.

- **北 ‘농업 분조장대회’ 개최…포전담당제 강화할 듯(1/31,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31일 “전국 농업부문 분조장대회가 평양에서 진행된다”며 분조장대회 참석자들이 이날 평양에 도착해 광범기 노동당 계획재정 부장과 리철만 내각 부총리 겸 농업상 등의 영접을 받았다고 전함.
 - 그러면서 “김일성 동지께서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한 50돌이 되는 올해 열리는 농업부문 분조장들의 대회합은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서 중요한 계기”라고 강조함.

다. 군사

- **軍 “북한군 동계훈련 진행중…특이동향 없어”(1/30, 연합뉴스)**
 - 현재 정상적인 군 동계훈련을 진행 중이며 군사적으로 특이한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30일 연합뉴스가 전함.
 -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북한군은 현재 정상적인 동계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특이동향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밝힘.

라. 사회문화

● 北 신생 ‘햇불체육단’ 두각…‘체육열풍 주도’(1/27, 조선신보)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소속인 이 체육단의 남자 축구팀은 창단 1년도 안 됐지만 주요 경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27일 조선신보가 전함.
- 신보는 “작년 국내 축구애호가들 속에서 화제가 된 축구팀은 햇불팀”이라며 “신진에 불과한 햇불팀이 국내 연맹전들에서 눈부신 경기성과를 거두며 강팀으로 등장했다”고 소개함.

● 北, 12년제 의무교육 올해 4월 입학기부터 시행(1/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01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올해 4월 시작하는 새 학기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함.
- 기존의 11년제 의무교육은 3년의 과도기를 거쳐 12년제로 점진적으로 전환되는데 “올해에는 유치원 높은반(만 5세에 해당), 소학교, 초급, 고급 중학교의 1학년 학생들이 12년제 교육강령에 따르는 교육을 받게 된다”고 통신이 보도함.

● 북한, 국경지대 親중국과 3천명 산간으로 추방(1/27, 산케이신문)

- 북한이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 후 추종 세력 제거를 위해 국경 지대의 친(親) 중국과 3천 명 이상을 산간 지방으로 추방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7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 관계자는 북한 당국이 장성택 추종자를 제거하기 위해 평양과 국경 지대에 파견된 적발단이 무역업자, 중국인을 상대로 한 호텔·카지노 종업원, 탈북자 가족 등을 체포·구속했으며 이와 별도로 3천 명 이상을 산간 지방으로 몰아냈다고 주장함.

● 北도 설 맞아 ‘들썩’…“아이들엔 색동옷”(1/2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9일 평양아동백화점에서 설을 앞두고 어린이들을 위한 여러 종류의 색동옷을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함.

- 통신은 “아롱다롱 치마저고리와 바지저고리를 입고 좋아라 돌아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부모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라며 “조선에서 어린이들에게 색동옷을 해 입히는 풍습은 매우 오래된 것”이라고 소개함.

● **北에서 아직 AI 발생 안해(1/30, 자유아시아방송(RFA))**

- 남한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로 비상이 걸렸지만, 북한에서는 AI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세계보건기구(WHO)를 인용해 30일 보도함.
- WHO 제네바 사무소는 북한에서 AI 예방을 위해 닭, 오리, 거위 등 가금류에 대한 감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감시 결과) 아직 북한에서 AI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밝힘.

● **北 마식령스키장에 대만·일본 제품도 도입(1/30,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지난달 개장한 강원도 마식령스키장에 고가의 유럽산 장비 외에 일본과 대만산 운동기구와 제품도 도입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함.
- 마식령스키장 건설사업 저지 운동을 벌인 일본의 가토 켄(加藤健) 아시아국제인권 대표는 29일 RFA에 북한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미국 여행업체가 자사 웹사이트에 올린 사진에서 마식령스키장에 대만 업체의 이름이 선명히 드러난 운동기구가 설치된 것을 발견했다고 밝힘.

● **北, 설 맞아 전역서 축포 발사행사(1/30,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30일 평양시에서 열린 축포발사 행사를 생중계하며 축포가 “뜻깊은 2014년 설명절을 맞이한 온 나라 전체인민에게 보내는 축하 인사”라고 밝힘.
- 중앙TV는 김일성광장과 대동강유보도(강안도로), 주체사상탑 앞 광장과 모란봉기슭을 비롯한 시내의 여러 곳에는 축포 발사 관람을 위해 수많은 시민이 모여들었다고 전함.

- **北, 전역서 설 행사·민속놀이…경축 분위기(1/3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1일 2014년 설을 맞아 전역의 주민과 군인, 청소년 학생들이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다고 전함.
 - 통신에 따르면 평양시민이 만수대 언덕과 김일성종합대학, 인민무력부 등에 세워진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찾았고 원산, 강계, 함흥 등 각 도청 소재지에 세워진 동상에도 주민들의 참배 행렬이 잇따름.

2 대외 관계

가. 일반

- **北 “아태지역 美 무력증강은 신냉전 초래”(1/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무력증강은 패권전략의 산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최근 일본에 스텔스 전투기 F-22를, 남한에 F-16 전투기를 각각 증강배치하기로 했으며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무력증강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무력증강은 지역에서 핵전쟁 위험을 증대시키고 새로운 냉전을 몰아오는 위험한 움직임”이라며 미국이 군사적 우세로 아시아태평양을 지배하려 한다고 비난함.
- **중국, 두만강 北접경지역 관광·무역 활성화(1/27, 연변인터넷방송)**
 - 27일 연변인터넷방송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지린성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안투(安圖)현과 북한 삼지연군을 연결하는 쌍무평(雙目峰) 임시 통상구의 개통을 승인하는 등 중국이 올해 들어 두만강 유역 북한 접경지역과의 관광, 무역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함.
- **북한, 베이징서 ‘김정은 신년사 설명회’…수교국 대상(1/27,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이 27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평양에 공관을 운영하지 않는 수교국을 상대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발표한 신년사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함.

- 손무신 북한 외무성 본부대사는 이날 오전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베이징 및 서울에서 북한 대사를 겸임하는 수교국 대사들을 초청,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안다고 현지 외교 소식통이 이날 밝혔으며 초청 대상국은 필리핀, 태국, 브라질 등 베이징 또는 서울 주재 대사가 북한대사를 겸임하는 80여 개국인 것으로 알려짐.

● 단둥-평양 열차, 하루평균 250명 이용(1/27, 중국신문사)

- 27일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와 마주한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지난해 열차를 이용해 방북한 인원은 4만5천249명, 방중한 인원은 4만6천748명으로 집계됐으며, 하루평균 252명이 단둥-평양 열차를 타고 양국을 오간 셈이라고 보도함.

● 주북 中대사, 북중 친선모임 개최(1/27, 조선중앙통신)

- 류홍차이(劉洪才) 주북 중국 대사가 27일 설을 맞아 북한 외무성 직원들을 초대해 북중 친선 모임을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IOC, 北 소치 올림픽 출전 요청설 부인(1/28, 미국의소리(VOA))

-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북한이 소치 동계올림픽의 출전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전함.
- IOC 대변인은 소치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따지 못한 북한에 특별히 참가를 허용하는 와일드카드를 검토 중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동계올림픽에서는 와일드카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함.

● 北, 美 특수전부대 증강 계획 비난(1/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스쳐보낼 수 없는 특수전무력 증강책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2001년 3만3천 명이었던 특수작전사령부 병력을 올해 7만 2천 명으로 증강할 계획이라는 홍콩 언론의 보도를 거론하며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범죄적인 특수작전을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비롯한 미국의 전쟁이 대체로 특수부대 작전에서 시작됐으며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대한 지배와 약탈, 나아가서

전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다름아닌 특수무력”이라고 지적함.

● **북한-일본 당국자 베트남서 비밀 접촉(1/28, 아사히신문)**

- 북한과 일본 정부의 당국자가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26~27일에 걸쳐 비밀리에 접촉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8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일본 측에서는 6자 회담의 수석대표인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3명이 하노이를 방문했고 2012년 8월 북한과 일본의 외교부 과장급 협의에 출석했던 북한 외무성의 유성일 일본과장이 같은 시기에 현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 **北, 日 교과서지침 비난…“침략 ‘돌격대’ 양성 시도”(1/2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음흉한 심보의 발로’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의 교과서 제작 지침은 “일본 당국이 ‘독도 영유권’을 새 세대들에게 강제주입해 군국주의를 고취하며 해외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우려 하는 것”이라고 밝힘.
- 통신은 “독도는 그 누가 함부로 침범할 수도, 넘겨다볼 수도 없는 조선의 신성한 영토”라며 “우리 민족은 일본의 독도강탈 책동에 대해 절대로 수 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중국,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진’ 적극지지…“기쁘다”(1/28, 연합뉴스)**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2월 17~22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자고 제안하고 북한이 앞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대제안을 한 데 대한 중국의 입장을 요구받자 “우리는 관련보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남북 양측이 가까운 시기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데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함.
- 화 대변인은 “남북은 같은 민족으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면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중국은 남북 양측이 교류 협력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힘.

● 인도네시아에 북한 구권화폐 대량유입(1/29, 연합뉴스)

- 인도네시아에 출처가 불분명한 북한의 구권화폐가 대량으로 유입, 환전 조직들이 인도네시아인과 한국인을 상대로 환전을 시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함.
- 자카르타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29일 한 인도네시아인이 북한 화폐에 대해 문의해와 확인한 결과 2009년 화폐개혁 전에 사용된 5천원권으로 확인됐으며 환전조직이 같은 종류의 화폐를 환전하기 위해 동포사업가에게 접근했던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힘.

● ‘남북관계 개선’ 강조한 북한, 연일 미국 비난(1/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조선반도에 끊임없는 위협과 도발을 몰아온 주범’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달 말 시작되는 ‘키 리졸브’ 등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평양 공격을 염두에 둔 미국의 ‘도발’이라고 주장함.
- 미국이 지난해에도 핵 항공모함과 B-52H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해 북한을 “선제 타격하기 위한 핵전쟁 소동”을 벌였다고 “미국이야말로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위협의 가해자, 도발자”라고 몰아붙임.

● 北, 이번엔 베이징서 ‘중대제안 진정성’ 선전(1/29, 연합뉴스)

-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를 이틀 앞둔 29일 오전 주중 북한대사관이 중국주재 외신기자들을 대거 대사관으로 불러 북한 국방위원회가 최근 남한 측에 제안한 ‘중대제안’의 의미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낸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는 모두발언에서 “많은 나라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중대제안은 이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중대제안’의 배경과 내용을 30여분간 설명함.

● 北중양통신-시리아 통신 협조합의서 조인(1/30,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사와 시리아아랍통신사 간 보도자료 교환 및 협조에 관한 합의서가 30일 평양에서 조인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北,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공관 이전 재추진(1/3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 설치한 총영사관을 나훗카시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전하는 사업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 전함.
 - 블라디보스토크시는 전날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에 림청일 나훗카 주재 북한 총영사 일행이 지난 28일 시 고위 간부들을 만나 총영사관 이전과 관련한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고 밝힘.

■ 기타 (대외 일반)

- [중앙통신사 논평] 日 문부과학성이 중·고등학교 학습지도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기로 확정된 것은 '새 세대들에게 강제 주입하여 군국주의를 고취하며 해외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우려 하는 것'이라고 비난(1.28, 중앙통신)

나. 6자회담(북핵)

- **美中 수석대표, 6자회담 재개조건 논의(1/27, 연합뉴스)**
 -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7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가진 미중 수석대표 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 등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함.
- **지재룡 주중 北대사 “6자회담 재개 지지”(1/29, 연합뉴스)**
 -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는 29일 오전 중국 베이징(北京)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중국 및 외신 언론을 초청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6자회담이라는 쪽배에 먼저 타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도 함께 타기를 원한다”며 “우리는 6자회담의 재개를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함.
 - 지 대사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조선(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공격 위협의 산물로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부득불 가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함.

● 데이비스 美6자회담 대표 “비핵화 北 태도변화 기대”(1/29, 연합뉴스)

- 미국측 6자 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9일 북한 비핵화 대화 재개 문제에 대해 “북한이 아직 아무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태도와 행동을 바꾸길 희망한다”고 밝힘.
- 데이비스 대표는 29일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찾는 것은 북한의 진실성과 행동”이라면서 이같이 말함.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 “남북관계 바로잡을 책임 南北 모두에 있어”(1/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민족우선, 민족중시 입장의 발현’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국방위원회가 지난 23일 남북관계 개선의 진정성을 강조한 ‘공개서한’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고 “북남관계의 파국상태를 바로잡을 근본책임은 북남당국에 있다”고 밝힘.
- 신문은 백해무익한 비방중상과 무모한 군사적 대결로 허송세월을 하는 것은 민족분열의 손실이 너무 크다며 “북남당국은 시대와 역사 앞에 현 비극적 상태를 해소하고 하루빨리 겨레에게 평화와 통일의 기쁨을 안겨 주어야 할 회피할 수 없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함.

● 정부, ‘2월17~22일 이산가족 금강산 상봉’ 제의(1/27, 연합뉴스)

- 정부는 27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북한이 동의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다음달 17~22일 금강산에서 갖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함.
- 통신은 정부가 통지문에서 “상봉 행사 준비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29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함.

● 北, 서부전선 일대에서 대남 빼라 살포중지 정황(1/27,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해 12월부터 서부전선 일대에서 대량으로 실시하던 대남 비방 전단(빼라) 살포 작전을 최근 일시 중지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함.
- 북측의 정부 소식통은 28일 “북한군이 서부전선 일대에서 실시하던 대남 전단 살포 작전을 2주 전부터 중단한 정황이 포착돼 정밀 분석 중”이라면서 “남측을 격렬하게 비난한 내용으로 작성된 빼라도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北 “南, 동족이 내미는 선의의 손 잡아야”(1/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북남관계 개선에 대한 입장을 바로 가져야 한다’란 제목의 논평에서 “선의에는 선의로 화답하는 것이 응당한 도리”라며 “남조선 당국은 동족이 내미는 선의의 손을 잡고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함.
- 신문은 “대결감정의 해소는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우리 정부에 “상호 비방·증상 및 적대행위 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북한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또다시 촉구함.

● 北,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 중지요구 전통문 보내와(1/28, 연합뉴스)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은 어제 오후 서해지구 군 통신망을 통해서 국방위 서기실 명의로 전통문을 청와대 안보실장 앞으로 보내왔다”며 “북측은 우리 측에 정당한 해상사격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엄중한 후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함.
-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오늘 오전에 국방부 정책기획관 명의의 답신 전통문을 북측에 발송했다”며 “전통문에는 해상 사격훈련은 우리 영해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정당한 훈련으로 이로 인한 이산가족 상봉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함.

● 北 ‘2월 이산상봉’ 무반응…내일 실무접촉 무산(1/28, 연합뉴스)

- 북한이 다음달 17~22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자는 우리 제안에 28일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우리 정부가 상봉 준비를 위해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29일 열자고 제의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함.
-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힘.

● 北 “군사행동 끊임없는데 관계개선 할 수 있나”(1/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군사적 적대행위는 북남관계의 근본적 개선을 가로막는 장애”라며 한국 정부에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라고 촉구함.

- 신문은 동족을 “주적으로 대하면서 군사적 적대행위를 일삼는다면 조선반도(한반도)의 긴장한 정세를 완화시킬 수 없고 불신과 대결을 해소할 수도 없다”라며 상호 비방과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중지를 골자로 한 북한 국방위의 지난 16일 ‘중대제안’에 한국 정부가 호응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함.

● 정부, 北에 독촉 통지문…“이산상봉 입장 밝혀라”(1/29, 연합뉴스)

- 정부는 금강산에서 내달 17~22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자는 우리 제의에 북한이 사흘째 답을 주지 않는 것과 관련, 대북통지문 통해 조속히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함.
- 정부는 “북측이 우리의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수용하고도 상봉행사 준비에 불분명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유감”이라며 “헤어진 가족들과 만남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고려해 북측이 우리측 요구에 조속히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힘.

나. 경제사회문화

●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시범 가동 돌입(1/28, 연합뉴스)

-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RFID) 시스템이 28일 본격적인 시범 가동에 들어가 오전 10시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우리 측 인원 51명 중 21명이 이 시스템을 이용해 북측 출입국사무소(CIQ)를 통과했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함.

■ 기타 (대남)

- “북남관계의 파국상태를 바로잡을 근본책임은 북남당국에 있다”며 북한 국방위원회 ‘대남 중대제안과 공개서한 실현의 남북관계 개선 입장’ 지속 강조(1.27,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북남관계는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개선될 수 없다”며 ‘대결감정부터 대담하게 털어버리고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남북 당국의 성실한 노력’을 촉구(1.28,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02.01-02.02

2월

1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올 1월 공개활동 %가 軍(2/1,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1일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를 분석한 결과,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1월 한 달간 모두 9차례 공개석상에 등장했고 이 가운데 6차례가 군대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함.
- **北 김일성 부자 ‘컬러 조각상’은 김정은 아이디어(2/1, 연합뉴스; 조국)**
 - 북한이 지난해 최초로 선보인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컬러 조각상’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아이디어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1일 연합뉴스가 전함.
 - 연합뉴스가 1일 입수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월간지 ‘조국’ 2월호는 작년 7월 문을 연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중앙홀에 김일성 주석의 ‘천연색 조각상’이 세워진 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전함.
- **北, 3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지방 선거위 구성(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오는 3월 9일 실시할 제13기 대의원(우리의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위원회를 각지에 구성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법에 따라 도(직할시), 시(구역), 군들과 무력부문에 조직된 최고인민회의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와 선거분구들에 선거위원회가 조직돼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힘.
- **北, 김정일 생일 앞두고 축하 분위기 조성(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1면에서 지난 1월17~23일 싱가포르, 나이지리아 등에서 광명성절을 기념한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 등의 축하 행사가 열렸다고 보도함.
 - 신문은 또 2면 ‘인민의 그리움 끝없이 넘쳐나는 뜻깊은 2월’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위원장이 사망하기 하루 전인 2011년 12월16일 주민에게 물고기를 공급하기 위한 문건에 서명한 내용 등을 소개함.

김정은동향

- 2/1, 김정은 黨 제1비서, 새해를 즈음하여 여러 나라 당과 국가수반들에게 연하장 발송(2.1, 중앙통신·중앙방송)
- 중국 국가주석(시진핑), 러시아·네팔·레바논·몽골·팔레스타인 대통령 등
- 김정은에게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 발송(2.1, 중앙통신)

기타 (대내 정치)

-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 2.1 전국 농업부문 분조장대회 참가자들의 숙소 방문(2.1, 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 김기남, 곽범기, 로두철, 리철만·리무영(내각 부총리) 방문
- 인민들의 먹는문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노고를 바치고 있는 김정은 영도를 쌀로써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것을 당부

나. 경제

● 북중 작년 교역액 65억 달러…사상 최대(2/1,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의 지난해 교역 규모가 60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워 북한의 대중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17.2% 급증했다고 연합뉴스가 1일 전함.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작년 1~12월 북·중 교역액은 65억4천 500만 달러(약 7조162억 원)로 집계됨.

● 北 경제개발 ‘숨은 실세’ 김철진 부상 주목(2/2,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해 10월 내각 소속으로 신설한 국가경제개발위원회의 김철진 부위원장(차관급)이 최근 경제개발의 핵심인물로 주목받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일 전함.
- 2일 연합뉴스가 북한 매체의 보도를 분석한 결과 김철진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난해 9월 말 평양 문수물놀이장 건설현장 시찰과 같은 해 12월 31일 완공된 강원도 마식령스키장 방문 때 수행했던 것으로 확인됨.

다. 사회문화

- 北, 교육혁신 추진…대학에 ‘복수전공제’ 도입(2/2, 연합뉴스; 조국)
 - 연합뉴스가 2일 입수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월간지 ‘조국’ 2월호는 ‘조선의 우수한 과학자는 어떻게 양성되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이 “새 세기의 요구에 따라 교육방법을 혁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대학 등 고등교육부문에서 “제2전공제를 실시하며 교육사업의 과학화·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밝힘.

2 대외 관계

- 北 신문 “美, ‘중대제안’ 시비말고 핵무력 철수해야”(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미국 정부가 남북 간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등을 제안한 ‘중대제안’을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함.
 - 신문은 ‘미국은 제 할 바나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글에서 윌리엄 번스 국무부 부장관,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미국 당국자들이 최근 북한의 도발 위험성과 핵위협을 언급한 데 대해 “여론의 초점을 다른 데로 돌려보려는 허무맹랑한 망발”이라고 반박함.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신문 “南이 남북관계 개선 행동 보여야”(2/1, 노동신문)
 - 동신문은 1일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면서 남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천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거듭 요구함.
 - 신문은 ‘실천행동에 함께 나서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당국은 불필요한 의구심과 편견을 버리고 우리의 애국애족적인 호소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서야 하며 실천행동으로 북남관계 개선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며 “북남관계의 전도는 남조선 당국의 행동 여하에 달려 있다”고 강조함.
- 北, ‘공개서한’도 유엔안보리 공식문건으로 배포(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국방위원회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공개 서한이 “1월 30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공식문건 S/2014/53호로 배포됐다”고 1일 보도함.

나. 경제사회문화

- 작년 남북 교역액 42% 급감…8년만에 최저(2/1, 연합뉴스)
 - 남북관계 경색으로 작년 남북 간 교역액이 42%나 급감하면서 8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연합뉴스가 전함.
 -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2013년 남북 간 교역량은 반출 5억 2천 60만 달러, 반입 6억 1천 524만 달러로 총 11억 3천 584만 달러로 집계됨.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2.03-02.09

2월

2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사상전 거둬 독려…“은나라 선전선동 포성 일제”(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1면 사설 ‘사상전, 선전선동의 포성으로 온 나라가 부글부글 끓게 하자’에서 “사상전, 선전선동의 된바람으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 풍모를 일신시키고 강성국가 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에 보다 큰 박차를 가하자는 것이 현시기 우리 당의 의도”라고 밝힘.
 - 신문은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도록 하는데 사상전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라며 누구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절대적 신뢰심을 지니고”, 그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촉구함.

- **北 김정은, 평양시 육아원·애육원 방문(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시의 고아양육시설인 육아원과 애육원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애육원에서 보육조건, 생활환경 등을 파악한 데 이어 육아원의 아기방과 주방 등을 둘러본 뒤 아이들의 영양 상태에 만족해했다고 통신이 설명함.

- **北 사회단체 잇달아 총회…“김정은 유일영도” 결의(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사회단체들이 잇달아 총회를 소집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유일 영도체계’ 확립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함.
 - 근로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는 3일 평양에서 제7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김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선군 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지름길을 밝혀준 강령적 지침”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관철할 방안을 논의함.
 - 통신은 3일 청년단체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와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도 열려 ‘단결과 영도의 유일중심’을 토론했다고 밝힘.

- **北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로 첫 추대(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오는 3월 실시되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우리의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추대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전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을 대의원 후보자로 추대하는 ‘제111호 백두산선거구 선거자 대회’가 3일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과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이 세워진 평양 인민무력부 청사 앞에서 열렸다고 보도함.

- **北, 로성실 여성동맹 위원장 교체…김정순 임명(2/4,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4일 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제66차 전원회의가 전날 평양에서 열렸으며 “회의에서는 로성실 위원장을 사업상 관계로 소환하고 김정순을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거했다”고 밝힘.
 - 중앙통신은 여성동맹 중앙위원장을 바꾼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연합뉴스는 장성택 숙청의 여파에 따른 인사일 가능성이 있으며, 신임 김정순 위원장은 그동안 북한 매체에서 여성동맹 고위간부로서의 소개되지 않았던 인물로서 통일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 “지방 단위의 연맹 간부로 안다”고 전함.

- **北 각지 선거구서 김정은 대의원 후보 추대행사 마쳐(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전역의 선거구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로 추대하는 행사가 모두 끝났다고 조선중앙방송이 8일 보도함.
 - 방송은 “김정은 동지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후보자로 높이 추대하는 선거자회의가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서 진행됐다”며 “제111호 백두산선거구 선거자대회와 각지 선거구 선거자대회에 이어 시, 구역, 군, 무력기관 선거구에서도 선거자회의가 열렸다”고 밝힘.
 - 선거자회의에서 연설자들은 “온 나라 천만 군민은 원수님(김정은)을 따르는 길에 선군 조선의 창창한 미래가 있고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위업의 승리가 있다는 확신에 넘쳐 있다”고 강조했다고 방송은 전함.

■ 김정은동향

- 2/1, 김정은 黨 제1비서, 새해를 즈음하여 여러 나라 당과 국가수반들에게 연하장 발송(2.1, 중앙통신·중앙방송)
 - 중국 국가주석(시진핑), 러시아·네팔·레바논·몽골·팔레스타인 대통령 등
 - 김정은에게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 발송(2.1, 중앙통신)
- 2/4,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시 육아원과 애육원을 방문(2.4,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평해, 리재일, 박태성, 황병서, 마원춘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 2.1 전국 농업부문 분조장대회 참가자들의 숙소 방문(2.1, 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 김기남, 곽범기, 로두철, 리철만·리무영(내각 부총리) 방문
 - 인민들의 먹는문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노고를 바치고 있는 김정은 영도를 쌀로써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것을 당부
- 「여맹」 중앙위 제66차 전원회의, 2.3 평양에서 진행(2.4, 중앙통신)
 - 로성실 위원장을 사업상 관계로 소환하고 김정순을 여맹 중앙위 위원장으로 선거
- 김정은 黨 제1비서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3.9 예정) 대의원 후보자로 추대하는 '제111호 백두산선거구 선거자 대회' 진행(2.4, 중앙통신·중앙방송)
 - 최룡해(총정치국장/보고), 리영길(총참모장), 장정남(인민무력부장) 참가
-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후보자로 추대하는 제29호 대선선거구 선거자대회, 2.4 김일성종합대학 체육관에서 차회림(평양시 인민위원장/보고)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2.5, 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를 제13기 대의원후보자로 추대하는 선거자대회, 제427호 강계선거구와 제304호 해청선거구, 제82호 평성선거구에서 각각 진행(2.6, 중앙방송)

나. 경제

● 유엔 긴급구호기금, 작년 北에 164억원 지원(2/4, 미국의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이 지난해 북한에 1천510만 달러(약 164억원)를 지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함.
- CERF는 3일 발표한 '2013년 예산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에 '자금부족 지원금' 1천300만 달러와 수해 대응을 위한 '긴급대응 지원금' 210만 달러 등 모두 1천51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힘.

- **北, 경제 각 부문 생산계획 달성 연일 선전(2/4~5,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5일 평안남도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노동자들이 비료 생산에서 매일 계획보다 수백t의 비료를 더 생산하는 “혁신적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고 전함.
 - 평양방송도 4일 ‘여러 부문 일꾼들, 첫 달 계획 완수’라는 제목으로 농업, 건설, 화학, 금속, 수산 분야에서 1월 생산 목표를 달성했으며,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실적이 올라갔다고 보도함.

- **北, 남포 경제개발구 선전…“투자에 좋은 교통여건”(2/5, 내나라)**
 - 북한의 대외홍보용 포털사이트 ‘내나라’는 5일 ‘투자유치가 좋은 매력적인 경제지대’라는 글에서 북한이 작년 11월 발표한 13개 경제개발구 중 하나인 남포시 와우도수출가공구의 개발 계획을 소개하며 “이 지역(와우도수출가공구)은 가까이에 조선 서해가 있고 옆에 대동강을 끼고 있으며 큰 무역항과 철도, 도로를 비롯한 교통조건이 발달한 것으로 하여 투자유치 환경이 좋은 지역”이라고 밝힘.

- **北 농업 분조장대회 개최…“농업생산 결정적 전환”(2/6, 조선중앙방송)**
 - 북한 협동농장의 기층 조직을 이끄는 분조장들이 총집결한 ‘전국 농업부문 분조장 대회’가 6일 평양체육관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6일 보도함.
 - 박봉주 내각 총리는 보고에서 이번 대회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열렸다고 “농업 생산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함으로써 강성국가 건설을 앞당기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라고 말함.

- **北, 농장 분조장 역할 강조…“식량 자급자족하자”(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1면에 게재한 사설 ‘농업부문 분조장들은 당의 농업정책을 결사관철하는 기수가 되자’에서 “오늘부터 평양에서 전국농업부문 분조장대회가 진행된다”며 분조장이 농업부문 투쟁에서 기수가 돼야 한다고 독려함.
 - 사설은 또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자면 농촌에서 분조의 관리 운영을 잘하는 것과 함께 분조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분조장이 사업기풍과 작업태도에서 혁신을 가져올 것을 주문함.

- **WFP, 北 영양과자 공장 7곳 중 5곳 폐쇄키로(2/6, 미국의소리(VOA))**
 - 나나 스카우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북한 담당 대변인은 자금이 부족하고 식품재료인 곡물도 다 떨어져 북한 내에서 운영하는 7개 영양과자 공장 가운데 5곳을 2월 말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6일 보도함.
 - WFP는 2012년 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대북지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스카우 대변인은 올해 들어서는 국제사회에서 곡물을 전혀 기부받지 못했다고 전함.

- **스위스, 北에 분유 400만 달러 어치 지원(2/7, 자유아시아방송(RFA))**
 - 스위스 정부가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분유 400만 달러 어치를 지원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밝힘.
 - 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 담당 대변인은 RFA에 스위스 정부가 북한에 제공할 분유 650t(약 400만 달러 상당)이 오는 5월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함.

- **北 김정은 “분배 평균주의 해롭다”…농업혁신 강조(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6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 농업 부문 분조장 대회’ 참가자에게 서한을 보내 농업 혁신을 주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사회주의농촌테제의 가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라는 제목의 서한에서 “농업전선은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에서 힘을 집중해야 할 주타격방향”이라며 농업증산을 강조함.
 - 또한 “농업부문에서 자체로 농사짓는 운동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며 “농장원의 생산 열의를 높이기 위해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도록 했는데 협동농장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적용해 농업생산에서 은(성과)이 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함.
 - 김 제1위원장은 “분배에서 평균주의는 사회주의 분배 원칙과 인연이 없으며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리는 해로운 작용을 한다”며 “국가적으로 나라의 식량수요와 농장원들의 이해관계, 생활상 요구를 옹계 타산한 데 기초하여 알곡 의무수매 과제를 합리적으로 정해주어야 한다”고 주문함.

- “北 나선 나무심기 관광상품 출시”(2/8,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에 있는 북한 전문여행사가 북한 나선지역에서 직접 나무 심기에 참여하는 이색 관광상품을 새로 내놨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전함.
 - 미국인들이 운영하는 북한 전문여행사 ‘크라훈 투어스’(Krahun Tours)는 “오는 3월과 4월에 북한 ‘나무 심기 관광’을 기획했다”고 전날 밝힘.

- “北서 골프와 관광 동시에”…골프관광 상품 출시(2/9, 연합뉴스)
 - 9일 미국의 북한전문여행사 ‘우리투어’ 홈페이지에 따르면 사흘에 걸쳐 골프를 2.5라운드를 즐기고 평양과 개성, 비무장지대(DMZ) 등을 관광하는 ‘북한 골프 클래식’ 상품을 내놓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우리투어에 의하면, 이 상품의 관광 시기는 4월30일~5월6일 또는 9월 5~11일 두 가지로, 가격은 2천850 달러(약 306만원)임.

다. 군사

- 北, ‘KN-08’ 미사일발사대 자강도 전천서 조립(2/4, 38노스; 연합뉴스)
 - 연합뉴스의 4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델리사 헨엄, 엠버 리 연구원은 3일(현지시간)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 공동 기고문을 통해 전천군 일대에서 북한이 2012년 처음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의 이동식 발사대 조립 공장으로 추정되는 건물 두 채를 발견했다고 밝힘.

- 北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대장에서 상장으로 강등(2/4,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북한 장정남 인민무력부장(우리의 국방장관에 해당)이 대장에서 상장(별 3개)으로 강등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함.
 - 조선중앙TV가 4일 오후 8시경 방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후보자로 추대하는 제111호 ‘백두산’ 선거구 선거자대회 영상에서 장 인민무력부장은 상장 계급장을 달고 연설하는 모습이 포착함.

라. 사회문화

- 北, 교육혁신 추진…대학에 ‘복수전공제’ 도입(2/2, 연합뉴스; 조국)
 - 연합뉴스가 2일 입수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월간지 ‘조국’ 2월호는 ‘조선의 우수한 과학자는 어떻게 양성되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이 “새 세기의 요구에 따라 교육방법을 혁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대학 등 고등교육부문에서 “제2전공제를 실시하며 교육사업의 과학화·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밝힘.
- 北 지난해 최우수 남녀축구선수에 박광룡·허은별(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4일 “2013년 최우수 남자축구선수로 기관차체육단 박광룡이, 여자축구선수로 4·25체육단 허은별이 각각 선정됐다”라며 “이들은 지난해에 있는 국제 축구경기들에서 조선팀이 우승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힘.
- WFP 평양소장이 전한 ‘10년 전과 달라진 북한’(2/5, 자유아시아방송(RFA))
 - 작년 3월 평양에 부임한 디르크 슈테겐 세계식량계획(WFP) 평양사무소장은 10여년 전과 비교해 평양 거리의 모습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평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5일 보도함.
 - 테겐 소장은 “상점과 식료품점 수가 크게 늘었다”며 “예전에는 외국인과 평양 시민이 상품 구매하는 곳이 달랐는데 외국인과 내국인 구분 없이 같은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변했다”고 소개함.
 - 또한 “사람마다 손전화를 가지고 다닐 뿐만 아니라 옷차림새가 눈에 띄게 변했다”며 “2000년대 초 평양 시민은 거의 갈색 계열의 어두운 색 옷을 입었지만 요즘 평양 거리를 걷는 시민의 옷차림은形形色색으로 다양해졌다”며 생동감을 찾은 평양시의 풍경을 전함.
- 北 AI 예방에 총력…보건성 긴급협의회 소집(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빈틈없는 작전, 완강한 실천으로’란 제목의 기사에서 내각 보건성이 “세계적으로 유행되는 돌림감기와 홍역, 조류독감(AI) 등 전염병들의 전파를 막기 위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완강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전함.

- 신문은 “(AI 등) 전염병들의 유행 동태를 계통적으로 장악해온 보건성에서 치밀한 작전과 계획을 세웠다”라며 “긴급협의회가 열린 데 이어 도, 시(구역), 군 비상방역위원회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전염병을 미리 막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고 밝힘.
 - 특히 “국경통과지점과 비행장, 항만 주변에서 사업하는 보건부문 일꾼들이 책임성을 더욱 높여 외국 출장을 다녀오는 사람들에 대한 검병(검역) 사업을 보다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함.
 - 신문은 또 ‘확대되고 있는 전염병의 위험성과 그 예방대책’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닭공장, 오리목장, 타조목장을 비롯해 가금류와 조류를 가진 동물원과 협동농장들, 가정들에서 소독체계를 바로 세우고 위생학적 요구에 맞게 가두어 기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함.
- **北, 김정일 생일 일주일 앞두고 갖가지 기념행사(2/9,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 노동신문은 9일 광명성절을 기념해 이달 14~20일 평양에서 열리는 ‘김정일화(花) 축전’의 선전화(포스터)가 제작됐다고 그 사진을 게재함.
 - 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간부들은 노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8번째를 맞은 이번 김정일화축전이 “축전 사상 특기할 축전”이 되도록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 신문은 2면을 김 위원장의 혁명 일화로 채웠으며, 김 위원장이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새벽에도 논밭에 나가 현지도도를 했다는 그의 ‘애국헌신’을 부각하는 이야기를 전함.
 - 또한 조선중앙방송은 광명성절을 맞아 열리는 ‘얼음조각 축전’ 준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9일 보도함.

2 대외 관계

가. 일반

● 재미 한인단체 “북한서 나무 65억그루 심기 추진”(2/3, 연합뉴스)

- 미국 뉴저지에 있는 비영리단체인 ‘월 그린 코리아 무브먼트’(OGKM, 조국을 푸르게, 대표 김호진)가 지난해 북한에 65억 그루의 나무를 심기 위한 운동을 추진한다며 12월26일 북한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공개했다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함.
- 북한 김경준 국토환경보호상이 서명한 것으로 돼 있는 위임장은 “조국을 푸르게’ 측에 수림화(산림녹화), 원림화(도시녹화)를 위한 65억 그루의 나무 생산에 필요한 종자와 묘목, 설비, 자재, 자금 및 기술자료 지원과 이를 위한 기증자들과의 연계와 모임을 맡아 할 것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북한, 12년 만에 동계올림픽 불참(2/4, 연합뉴스)

-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관계자가 4일 “북한이 이번 대회 출전권 획득에 실패한데다 각 국제연맹(IF)에서 와일드카드도 받지 못해 선수는 물론 임원도 이번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함.

● 北 “日 아베는 아시아판 히틀러”(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4일 ‘아시아판 히틀러의 출현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오늘 군국주의 재침으로 내닫는 일본의 앞장에 바로 아베가 서 있다”며 ‘아베를 위시한 극우익 세력의 망발’은 “제1차 세계대전 후 패망한 독일에서 재침 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전쟁열을 고취하던 히틀러를 연상케 하고 있다”고 주장함.
- 통신은 “그(아베 총리)의 재침 야망은 아시아 지역의 대결과 마찰 구도를 극한점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지난날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산주의와의 싸움을 부르짖던 파쇼광 히틀러나 오늘날 군국주의 재침을 합리화하기 위해 대조선(대북) 대결론을 떠벌리는 아베의 망동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강조함.

- **北, 평양과기대 미국인 교수 부부 재입국 거부(2/5, 미국의소리(VOA))**
 - 북한이 평양과학기술대학 미국인 교수 부부의 재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함.
 - 지난해 8~11월 평양과기대에서 계량경제학과 경영학을 가르쳤던 로버트 모이니헌과 샌드라리 모이니헌 부부는 오는 3월 다시 방북해 강의할 예정이었으나 이들은 지난해 말 북한 당국으로부터 재입국 비자가 거부됐다는 통보를 받음.

- **北 “美, 남북관계 개선 방해”…연일 대미 비난(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5일 5면 ‘북남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방해책동’이라는 개인 필명 글에서 “미국은 북남관계 개선의 흐름을 각방으로 방해하고 있다”라며 “우리의 북남관계 개선 노력에 찬물을 뿌리면서 동족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극구 조장하는 한편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계속 격화시키려고 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북한이 지난달 ‘중대제안’ 통해 요구한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등 한미합동군사연습 중지를 미국이 거부한 사실을 예로 들면서 이는 “남조선 당국에 북의 중대제안을 받아들이지 말고 무조건 합동군사연습을 벌려야 한다는 노골적인 압력”이라고 공격함.

- **北, 라오스 주재 대사에 리상근 임명(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라오스 주재 특명전권대사로 리상근 동지가 임명됐다”고 밝힘.

- **北, 올해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 취소 통보(2/7,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올해 대규모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을 취소하겠다고 북한 관광전문 여행사에 통보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중국의 북한 전문여행사 ‘고려여행사’는 6일 자사 홈페이지에 “북한 측이 올해 아리랑 공연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발표해달라고 요청해왔다”라고 밝혔으나 공연 취소 이유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음.

● 北 김영남, 모스크바서 러 상원 의장 만나(2/7, 조선중앙통신)

- 소치 동계올림픽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6일(현지시간)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 의장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함.
- 통신은 “김영남 위원장은 제22차 겨울철 올림픽경기대회 개막행사에 명예손님으로 참가하기 위해 소치로 가던 길에 6일 모스크바에서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마트비엔코 러시아 연방평의회 의장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했다”고 전함.
- 마트비엔코 의장은 “전통적인 로조(러-북) 친선관계를 강화발전시키는 것은 러시아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통신은 앞서 김영남 위원장이 5일 블라디보스토크를 경유하면서 블라디미르 미클루세프스키 연해주지사를 만났으며, 미클루세프스키 주지사가 “앞으로 로조 사이의 경제협조와 문화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함.

● 北 “美 MD 체계 추진은 군비경쟁 몰아오는 범죄”(2/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8일 ‘음흉한 패권적 기도의 발로’란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MD 체계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새로운 대결과 군비경쟁을 몰아오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함.
- 특히 “미국이 우리의 미사일 개발에 대처한 MD 능력 강화에 대해 법석 떠들고 있다”라며 “미국은 우리의 미사일 위협을 결코 패권적 목적을 이루려는 어리석은 책동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함.
- 이어 “미국이 세계적 규모에서 형성되는 저들의 MD 체계 구축의 명분을 세우고자 우리의 미사일 위협을 운운하는 것은 저들의 침략적이며 패권주의적인 시도를 가리려는 궤변”이라고 비난함.

● 北 노동신문, 미국에 ‘핵전쟁연습’ 중단 거듭 요구(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감출 수 없는 핵전쟁 광신자들의 정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진실로 평화와 핵군축에 관심이 있다면 반공화국(반북) 핵선제공격 야망을 더는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당면하여 남조선에서 감행하려는 핵전쟁 연습부터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말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미일 양국 '밀약'의 존재를 시인한 것을 거론하며 “남조선과 일본을 핵 전초기지로 만들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이 미국의 침략적 기도”라고 주장함.
- 또 “일본의 핵무장화 책동은 자국 영토에 미국의 핵무기 반입, 비축을 허용하는 대가로 상전(미국)의 묵인, 비호 하에 강행돼왔다”며 “미국이 진짜 핵위협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저들의 핵우산 밑에서 어떤 독버섯이 기생하고 있는가 하는 데나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

● 파나마 “北 청천강호 벌금 69만달러 냈다”(2/9, 라프렌사)

- 파나마 신문 라프렌사는 파나마운하관리청(PCA)의 성명을 인용해 8일 (현지시간) 옛소련산 전투기 등 불법 무기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된 북한 청천강호가 벌금 69만 3천333달러를 냈다고 보도함.
- PCA는 애초 미신고 물품인 불법 무기류를 적재한 데 대해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북한 측의 요구로 낮춰졌다고 전함.

기타 (대외 일반)

-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심각한 정치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군사적 우위에 의거하여 지배와 예측의 낮은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골적으로 책동하고 있다’며 ‘반제 자주역량의 단결 강화와 ‘반제투쟁’을 선동(2.3,중앙통신·노동신문)
- 美 고위관리들(국무성 부장관, 차관보 등이 방한하여 ‘북의 중대제안’과 관련한 진정성 발언 등에 대해 “공화국에 대한 노골적인 모독이고 고의적인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2.3,평양방송)
- 미국 잡지가 발표(2014년 미국 핵 에너지)한 보고서(미국은 현재 핵탄두 약 7,400개 보유 및 그중 2,130개 실전 배치)를 거론하며 ‘미국은 인류를 핵공포 속에 몰아넣는 핵위협을 장본인, 군비경쟁의 주범’이라고 비난(2.4,중앙통신·민주조선)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2.5 ‘제22차 동계올림픽(러시아 ‘소치’) 개막행사(“명예손님”) 참가를 위해 궁석웅(외무성 부상) 등 수행원들과 평양 출발(2.5,중앙통신·평양방송·중앙방송)
- [논평] 美 태평양함대 사령관 등 대북 발언(1.22, 아시아에서 북한이 미국의 최대 안보우려 국가 등)에 대해 ‘亞-태중시정책 실현을 위한 군사력증강책동의 합리화 술책’이라며 미국을 “세계최대의 안보위협 국가, 안보파괴국가”라고 비난(2.5,중앙통신)
- 일본 정부의 ‘과거 성노예문제 태도(사과와 보상을 할 만큼 했다 등)’는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에 또다시 칼질을 해대는 것과 같은 아만적인 처사”라고 비난하며 ‘과거청산 용단’ 지속 촉구(2.5,중앙통신·민주조선)
- 北 대표, 1.29 유엔 「안보리」 “전쟁과 평화”에 관한 공개토론회에서 ‘△자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 원칙을 국제관계의 근본 원칙으로 견지, △유엔이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반인륜적 범죄(일본 과거범죄)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2.5,중앙방송·중앙통신)

- '원칙이 강한 나라는 붕괴되지 않으며, 원칙을 지키는 인민은 정복되지 않는다'며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구현해 나가며 제국주의자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고 주장 (2.6,중앙통신·노동신문)

나. 6자회담(북핵)

● 케리 美국무 이달 중순 방한...북핵 정상회담 협의(2/3,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가 한미연합훈련 시작 직전인 이달 셋째 주에 방한하기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함.
- 통신은 케리 장관의 방한 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차단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소강상태에 있는 비핵화 대화 재개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도 예상된다고 보도함.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주영 北대사 “한미 군사훈련, 전쟁 촉발할 수도”(2/3, 파이낸셜 타임스)
 - 현학봉 영국 주재 북한대사가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합동 군사훈련으로 인한 한반도 전쟁 촉발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이 3일 보도함.
 - 현 대사는 “한미 양국이 다음 달 실시하는 합동 군사훈련은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이는 또한 남북한이 추진 중인 이산가족 상봉 계획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함.
 - 또한 “우리는 남한에 기회를 줘야 하며 만약 남측이 이 기회를 놓친다면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만약 군사훈련을 강행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전쟁 직전으로까지 몰고갈 것”이라고 위협함.

- 北 “南, 외세의 핵 끌어들이는 행위 중단해야”(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민족공동의 목표’라는 글에서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북남 사이의 신뢰와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외세의 핵을 끌어들이 동족을 해치는 위협천만한 행위를 중단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외세와 야합하여 핵전쟁 연습을 벌이면서 북남관계의 파국을 심화시킨다면 두고두고 매국 반역행위로 역사와 민족의 규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 北, ‘이산상봉 실무접촉 제의’ 보도(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일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장이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통지문을 보냈으며 “통지문은 흠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위한 북남 적십자 실무접촉을 5일 또는 6일 남측이 편리한 날짜에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통일각에서 진행할 것을 제의한다고 지적했다”고 밝힘.

● 남북, '2월20~25일 이산가족 금강산 상봉' 합의(2/5, 연합뉴스)

- 남북은 5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오는 20~25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서를 채택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상봉자 규모는 남북 쌍방 각 100명으로 하되 지난해 9월 추석 상봉 추진 때 교환한 명단에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상봉 행사 준비를 위한 우리측 실무 점검단은 7일 금강산으로 들어가며, 상봉 시작 5일 전에는 현지에서 행사를 진행을 위한 우리 선발대가 파견됨.
- 우리측은 이날 접촉에서 상봉예정일 직전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무산된 작년 추석 상봉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이 같은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 북측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통일부는 전함.

● 北,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 결과 보도(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5시 14분께 “흠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위한 북남 적십자 실무접촉이 5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통일각에서 진행됐다”라며 “접촉에서 쌍방은 상봉행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를 협의하고 합의서를 채택했다”고 보도함.

● 北, 군사훈련·비방중상 중지 요구…“이산상봉 재고”(2/6, 조선중앙방송)

- 북한 국방위원회는 6일 정책국 대변인 성명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이 열린 5일 미국의 B-52전략폭격기가 서해 직도에서 훈련을 가졌다며 “동족을 공갈하고 위협하는 미국의 핵전략 폭격기 편대가 하늘에서 떠돌고 그 아래에서 신뢰를 쌓는다고 별이는 연극을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6일 보도함.
- 성명은 “대화과 침략전쟁연습, 화해와 대결소동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며 “치열한 전쟁마당에서 이뤄진 회담과 대화도 그때에는 불과 불이 오가는 대결행위를 멈추고 진행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라고 주장함.
- 또한 “지난 시기 전쟁으로 인해 생겨난 흠어진 가족친척 상봉행사를 위협 천만한 핵전쟁 연습 마당에서 치른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남조

선 당국은 체질화된 대결 본색을 버리고 민족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단호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함.

● **정부, 훈련중단 北요구 일축…“키리졸브 진행”(2/6, 연합뉴스)**

- 정부는 6일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과 북한에 대한 비방증상 증지를 요구 하며 이산가족 상봉 합의 재고를 위협한 북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상봉합의 이행을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함.
- 정부는 북한의 군사훈련 중단 요구를 일축하면서 이달 하순에 시작되는 키리졸브(KR) 및 독수리(FE) 연습이 “이산가족 상봉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힘.

● **이산상봉 실무점검단 예정대로 방북…시설점검 착수(2/7, 연합뉴스)**

- 금강산에서 오는 20일부터 열릴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측 실무점검단이 7일 오전 예정대로 방북했다고 연합뉴스가 7일 보도함.
- 대한적십자사와 현대아산 관계자 및 협력업체 직원들로 구성된 실무점검단 64명은 차량 27대에 나눠타고 이날 오전 8시50분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를 출발, 오전 9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금강산으로 향한다고 뉴스는 전함.

● **北매체 “南, 이산가족 아픔 운운할 체면 있나” 비난(2/8,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산가족 상처’ 발언에 대해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이산가족의 아픔을 달래줄 마음이 있다면 속에 깊숙이 품은 칼부터 꺼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함.
- 우리민족끼리는 개인 필명의 논평에서 남한 정부가 “이산가족의 아픔에 대해 운운할 체면이 있는가”며 이산가족의 아픔을 생각했다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깨지 않도록 미국과 조율하고 보수언론의 보도를 자제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이제나저제나 혈육과의 상봉만을 애타게 고대하는 이산가족의 가슴에 대못은 누가 박고 적반하장격으로 감히 누구를 걸고 들며 행악질을 해대는가”라고 비난함.
- 이어 “남조선 당국이 이산가족의 아픔을 운운하는 것은 남조선 각계층의 반정부 기운을 녹갯혀(누그러뜨려)보려는 서퍽짜리 생색내기에 불과하

다”라며 “(남한 정부는) 협애한 편견과 체질화된 대결 본색을 버리고 민족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단호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함.

나. 경제사회문화

● 남북, 개성공단 인터넷 협의 실무접촉(2/7, 연합뉴스)

- 남북은 7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성공단에 인터넷 서비스를 공급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통신 분야 실무접촉을 벌였고 연합뉴스가 7일 보도함.
-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접촉에서는 지난달 24일 3통 분과위 제4차 회의에서 논의한 인터넷 연결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힘.

■ 기타 (대남)

- ‘군사적 대결상태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될 수 없으며 설사 진행되더라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南 당국은 군사적 적대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지속 주장(2.4,평양방송)
- 연합뉴스를 인용하여 우리 검찰이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 구형한 내용을 보도(2.4,중앙통신)
- 남북관계 문제를 “우리민족끼리 입장에서 풀어나가는 것은 자극히 당연하다”며 “우리민족끼리는 조선민족의 자주적 운명개척의 근본원칙, 근본방도”라고 주장(2.5,중앙통신·노동신문)

02.10-02.16

2월

3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3. 대내 동향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이달말 黨 사상일꾼대회…10년만에 열려(2/1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0일 2004년 2월 이후 10년만에 “조선노동당 제8차 사상 일꾼대회가 2월 하순 에 평양에서 진행되게 된다”고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 일주의화하는 데서 당 사상사업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일대 정치사 상 공세로 천만군민을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힘.

- **北 김정은, 농업 분조장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2/1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평양에서 열린 전국 농업부문 분조 장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촬영장에서 대회 참가자들에게 “농업부 문 분조장들에 대한 당의 믿음은 매우 크다”며 “모든 분조장들이 자기들 의 임무를 잘 알고 그대로 실천해 농업 생산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농촌의 선구자, 기수가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함.

- **北, ‘백두혈통’ 이상화 장소 ‘혁명전적지’ 부각(2/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1면 사설에서 “우리는 사상전이 힘있게 벌어지는 격동 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 화해나감으로써 주체혁명의 백전백승의 역사를 끝없이 빛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당 조직들에서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답사와 참관 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어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답사와 참관 과정에 우등불(모닥불) 모임과 응변 모임, 결의 모임 같은 것도 잘 조직해야 한다”고 덧붙임.

- **北 김정은, 사격경기용 총탄공장 시찰(2/12,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경기용 총탄공장과 메아리사격관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2일 보도함.
 - 총탄공장을 둘러본 김 제1위원장은 ‘멋쟁이 공장’이라며 만족감을 표시하고 이번 리모델링으로 “경기용 총탄 생산을 늘리고 질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마련됐다”고 평가함.

- **사상교육 총공세 나선 北 “언론이 사상전 앞장서야”(2/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출판보도부문이 앞장에 서서 사상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자’란 제목의 사설에서 “사상은 무기 없이 세계를 지배한다”며 “오늘의 사상전·선전선동전은 신문·통신·방송을 비롯한 출판보도부문이 기수가 돼 주도해나가야 할 언론 총공세”라며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함.
 - 신문은 당면한 언론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유일 영도체계 확립을 내세우고, 언론인들이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오로지 김 제1위원장의 ‘참된 동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함.

- **北, ‘제2의 백두산’ 마두산 띄우기…3대세습 정당화(2/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지난 11일에 이어 13일 마두산 지역에서 ‘마두산을 백두산으로.’ 등의 글이 새겨진 ‘구호나무’가 대거 발굴됐다고 보도함.
 - 신문은 마두산에서 발굴된 51점의 구호나무에서 ‘백두산 3대 장군’(김일성·김정숙·김정일)을 찬양하고 ‘혁명신념’, ‘일편단심’ 등 영도자에 대한 변심없는 충성을 강조한 구호들을 소개했으며 김 주석의 빨치산 소부대가 1930년대 말~1940년대 초 마두산에 ‘비밀근거지’를 만들고 은신하며 나무들에 이런 구호를 써넣었다고 주장함.

- **北, 정월대보름 ‘분위기’ 부각…우상화 선전도(2/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내 조국의 밝은 달을 바라보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원수님(김정은)의 품에서 우리 인민은 매일, 매 시각 아름다운 삶을 누리려간다”며 북한 주민들이 대보름 달빛을 보며 “원수님 품을 떠나 우린 못살아”라고 목청껏 외칠 것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정월대보름과 관련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일화를 소개하며 “정월대보름은 장군님(김정일)의 숭고한 민족애에 받들려 다시 태어났다”고 전함.

● 北, 김정은 시대 ‘첫 선거’ 준비에 총력(2/14,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4일 북한에서 대의원 선거를 위한 준비사업이 본격화됐다고 하며 “선거구, 선거분구 위원회들은 선거사업과 관련한 일정별 사업계획에 따라 선거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함.
- 조선신보는 “2월 초 현재 전국 각지에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와 선거분구들이 일제히 조직돼 자기 활동을 개시했다”며 현재 평양시내의 모든 선거구와 선거분구에 선거위원회 간판이 나붙었다고 밝힘.
- 신문은 또 “선거위원회들에서 현재 선거자 명부 작성사업에 진입했다”며 특히 “지역 주민들 누구나가 이번 선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선거장을 잘 꾸리는 등 열의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함.
- 이어 평양시 선거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해 “김정은 시대의 첫 선거를 맞이하는 시민들은 김정은 원수님을 자기 선거구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로 높이 모실 것을 열망하는 편지들을 보내오고 있다”며 주민들의 충성심을 부각함.

● 北신문, “백두혈통은 이어질것”…대이은 충성 강조(2/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2월 16일)을 하루 앞둔 15일 ‘백두혈통’을 강조하며 대를 이어 최고지도자에게 충성할 것을 강조함.
- ‘소백수 푸른 물은 굽이쳐 흐른다’ 제목의 정론에서 김일성 주석이 지난 1992년 아들 김 위원장의 50번째 생일을 맞아 지은 ‘광명성 찬가’를 소개하며 여기에는 “소백수처럼 백두의 혈통은 굳건히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조선(북한)은 수령복과 함께 후계자복을 타고난 나라”라며 “혁명 대를 이어 계속되는 장기적인 위업”이라고 거듭 주장함.
- 이어 김 제1위원장의 기상과 배짱, 의지가 백두산을 닮았다고 하며 “백두산 가문의 천품을 그대로 지니신 또 한 분의 희세의 위인을 모시여 주체 혁명 위업은 승리의 궤도를 따라 변함없이 힘차게 전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찬양함.

- 신문은 “수령복, 장군복, 후계자복을 대를 이어 누리는 크나큰 행운을 온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며 백두의 혈통을 만대에 받들어갈 천만 군민의 신념의 맹세가 하늘땅을 뒤흔다”라고 주장함.

● **北, 김정일 생일 중앙보고대회…김정은에 충성 강조(2/15,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은 15일 오후 평양체육관에서 당·정·군 주요 일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김정일 동지 탄생 72돌 경축 중앙보고대회’를 실황 중계함.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 제1위원장이)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철저히 구현하고 있다”며 “(그의) 영도에 의해 전례 없는 건설의 번영기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칭송함.
- 김 상임위원장은 ‘백두혈통’ 계승을 강조하면서 전체 당원과 군 장병에게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동지 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절대 불변의 신념을 지니고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목숨으로 사수하며 전당, 전군, 전민이 당 중앙의 두리에 단결해야 한다”라고 촉구함.
- 그는 “올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확대 발전 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일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임.
- 15일 대회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김창섭 국가안전보위부 정치국장, 로두철 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최태복·김기남 당 비서, 박봉주 내각총리, 박도춘 당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강석주 내각 부총리, 김영일·김평해·곽범기 당 비서,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리무영 내각 부총리,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 등이 참석함.

● 北 김정은, 김정일 생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2/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6일 0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2번째 생일을 맞아 군 지휘부와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참배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수길·림철성 군 총정치국 부국장 등이 참가함.
- 통신은 “참가자들은 장군님(김정일)의 간곡한 유훈을 순간도 잊지 않고 영원히 최고사령관(김정은) 동지의 영도만을 충직하게 받드는 참된 충대전우로 살며 투쟁할 불타는 맹세를 다졌다”고 전함.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등 당과 정부의 고위 간부, 근로단체 및 중앙기관 간부들은 이날 김정은 제1위원장과 별도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중앙통신이 소개함.
- 북한은 또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을 맞아 김락겸 전략로켓군사령관을 상장(우리의 중장)으로 진급시키는 등 군 장성급 38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 김정은동향

- 2/10, 김정은 黨 제1비서, '전국 농업부문 분조장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2.10,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기남, 최태복, 김평해, 곽범기, 조연준, 리재일, 리철만 등 참가
- 2/12, 김정은 黨 제1비서, 새로 개건된 경기용총탄공장과 메아리사격관 시찰(2.12, 중앙방송·평양방송)
 - 최부일(인민보안부장)과 마원춘(黨 부부장) 동행
- 2/13,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순녀(해주시 사회급양관리소 노동자) 등 '당과 수령에 충실성을 지니고 좋은 일을 한' 근로자-인민보안원들에게 '감사' 전달(2.13, 노동신문)

■ 기타 (대내 정치)

-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의 날(3.9 예정) 즈음 '비밀투표 방법에 따라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진행 된다'며 '모든 17세 이상 공민은 선거에 참가할 수 있고 대의원으로 선거 받을 수 있다'고 '北 선거제도'를 선전(2.10, 중앙통신)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 5월1일경기장 개건보수 정형을 현지에서 요해(2.12, 중앙통신·중앙방송)

나. 경제

● 北, 학생·과학자 이어 농민도 “딴 일에 동원말라”(2/11, 연합뉴스)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6일 ‘전국농업부문 분조장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에는 농민이 농사에 집중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함.
- 서한은 농촌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농촌지원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협동농장들의 노력과 영농설비들을 농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일에 동원시키는 현상을 없애야 한다”고 밝힘.

● WFP “지난해 北 주민 식량소비 상태 개선”(2/14, 연합뉴스)

- 14일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최근 웹사이트에 발표한 대북 지원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북한 가구의 46%가 식량 소비 면에서 ‘적당’(acceptable)으로 분류돼 북한 주민의 식량 소비상태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14일 보도함.
- WFP에 따르면 ‘취약’(poor)에 해당하는 가구는 17%였으며 ‘경계’(borderline)에 속하는 가구는 38%였지만 이는 1년 전인 2012년 4분기 상황에 ‘적당’, ‘취약’, ‘경계’가 각각 26%, 24%, 50%인 상황에 비해 개선된 것임.
- 지난해 북한 주민들의 식량 소비 상태가 나아진 것은 식량 배급량이 증가한데다 WFP의 지원이 계속됐기 때문으로 분석됐으며 WFP는 북한 주민 1인당 하루 평균 배급량이 작년 10월 390g으로 늘어난 데 이어 11~12월에는 400g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함.

■ 기타 (대내 경제)

- 최고인민회의 정령 제3,584호(2.11 발표, 순안면옥 등 11개 단위에 ‘2중3대혁명붉은기’ 평양곡산공장 가공직장 등 33개 단위에 ‘3대혁명붉은기’ 수여(2.14,중앙방송)

다. 군사

● 北, 노동적위군 지휘관 열성자회의 개최(2/12,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11일 우리의 민방위부대 격인 노동적위군 지휘관 열성자회의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2일 보도함.
- 방송은 “이번 회의는 노동적위군 안에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혁명적 영군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민방위무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강조함.

● 북한, 작년 성탄절에 탄도 미사일 엔진 실험(2/13, NHK)

- 북한이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처형하고 나서 신형 대륙 간 탄도미사일용으로 추정되는 엔진 연소 실험을 했다고 NHK가 13일 보도함.
- 방송은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작년 12월25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 로켓 엔진 연소실험을 한 것이 확인됐으며 대상이 된 엔진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용으로 보이며 연소 실험은 이번을 포함해 6번째라고 밝힘.

라. 사회문화

● 北, 독감 예방에 총력…검역 강화(2/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세계적으로 A(H1N1)형의 돌림감기(유행성 감기)가 급속히 전파되어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조선에서 돌림감기를 미리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힘.
- 통신은 이어 “외부로부터 돌림감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비행장과 항만, 국경역 등에서 여행객들과 화물들에 대한 검역이 엄격히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임.

● 소치 동계올림픽 기간 北 ‘국제피겨축전’ 열어(2/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조선에서 제23차 ‘광명성절’(김정일 생일) 경축 백두산상 국제휘거(피겨)축전 준비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라며 축전은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된다고 밝힘.

- 통신은 특히 축전준비위원회 관계자 리철운을 인용해 올해 피겨축전의 규모가 지난해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러시아, 벨라루스,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등 여러 나라에서 선수들이 축전 참가를 요청해 왔다”고 전함.
- **北 김정일 생일 앞두고 ‘명절’ 분위기 고조(2/13, 조선중앙방송)**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광명성절을 맞아 강원도의 고아양육시설인 원산육아원에 노루고기와 꿩고기를 선물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3일 보도함.
 - 방송은 육아원 원장과 직원이 김 제1위원장의 “후대(後代)사랑, 미래사랑”을 칭송하며 “원아들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잘 키워 꼭 나라의 훌륭한 기둥감들로 내세우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함.
- **北, 노동신문사 사장 1년 만에 리영식으로 교체(2/13, 연합뉴스)**
 - 북한이 노동신문사 사장을 1년 만에 리영식으로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통신은 노동신문이 1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설혁명’ 제시(1974년 2월 12일) 40주년 기념보고회 기사에서 리영식을 노동신문사 책임주필로 소개했다며 사장과 책임주필을 겸하는 노동신문사의 특성상 사장이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 **北 신문 ‘세계교육사례’ 연재…교육도 ‘국제화’인가(2/16, 연합뉴스; 교육신문)**
 - 연합뉴스가 16일 입수한 북한 주간 교육신문 2월 6일자는 3면 ‘세계교육 교양참고자료’ 코너에 ‘큰 포부를 심어주자’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함.
 - 이 글은 ‘어느 한 나라’의 중학교에서 새 학기마다 ‘학생대회’를 열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모범 교사를 표창하고 있다며 이는 학생과 교사를 고무하는 “아주 이상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함.
 - 신문은 1월 30일자부터 세계교육교양참고자료 코너를 만들어 관련 글을 실기 시작하였으며, 30일자의 글은 “많은 나라들에서 굳어진 교육 관념을 대담하게 갱신하고 새로운 교육 방법을 실시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기성 관념’을 과감히 버릴 것을 촉구함.

- 교육신문은 향후 이 코너를 통해 “최근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탐구, 도입하고 있는 새로운 교육 형태와 방법들”을 소개해 “지식경제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2월 7일 9시부터 10일 14시 사이에 강원도 고성군 155cm, 안변군 104cm, 통천군 92cm, 원산시 73cm, 함경남도 고원군 47cm 등 '강원도와 함경남도 일부 지역에 폭설이 내렸다'고 보도(2.10, 중앙통신)
- 제19차 백두산상 중앙기관 일꾼 체육경기대회 폐막식, 2.11 평양체육관에서 로두철(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 위원장)·리영수(黨 부장)·현상주(직업총동맹 위원장)·리종무(체육상)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2.11,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여자축구팀, 2.11 '2014년 중국 영천국제여자축구초청경기(北·中·뉴질랜드·멕시코)'에서 對멕시코팀에 2:0 승리(2.11, 중앙통신)
- 北, 2013년 최우수 남녀 유도선수로 '홍국현과 설경'을 선정(2.12, 중앙통신)
- 北, 'H7N9형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전파 방지를 위해 '새·가금류 수입금지'와 열차·짐배들에 대한 검역·방역 강화 및 주민들을 대상 위생선전과·예방대책 홍보' 등 "방역사업"에 주력(2.13, 중앙통신)
- 北 여자축구팀, 2.13 '2014년 중국 영천국제여자축구초청경기(北·中·뉴질랜드·멕시코)' 對뉴질랜드팀에 1:0 승리(2.13, 중앙통신)

2 대외 관계

● 北 “日 플루토늄 보유는 핵무장 책동”(2/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우려 단계를 넘어선 일본의 핵 무장화 책동’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에 대해 “방대한 양의 플루토늄을 저축하고 있다가 임의의 시각에 핵 무장화를 실현하지는 것”이라고 지적함.
- 신문은 일본 당국자들이 플루토늄 보유는 과학연구와 원자로 가동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순수 과학연구와 평화적 핵 활동을 위해서라면 동력 수요를 엄청나게 초과하는 그렇게 많은 양의 플루토늄이 (왜) 필요하겠는가”라고 말함.
- 또한 “핵 무장화는 일본의 변함없는 야심이며 군사대국화의 전략적 목표”라며 “집요한 핵 무장화 책동으로 오늘 일본은 핵무기를 제작·보유·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췄고 이제 남은 것은 핵무기를 만드는 것뿐”이라고 비난함.

● 北 김영남, 소치 방문 마치고 귀국(2/10, 조선중앙TV)

-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0일 귀국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함.
- 통신은 김 상임위원장은 개막식이 열린 지난 7일 소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인사를 전달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을 만났다고 보도함.

● IOC, 소치올림픽 앞두고 北선수 6만弗 지원(2/11, 자유아시아방송(RFA))

-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의 소치 동계올림픽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 선수들에게 약 6만 달러(약 6천400만 원)를 지급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함.
- IOC 산하 올림픽연대위원회는 북한 남자 피겨 선수 최현을 비롯한 3명이 소치 올림픽 출전권을 딸 수 있도록 2012년 11월부터 1인당 매월 1천500 달러(약 160만 원)를 훈련비로 지급했으나 이들 선수 모두 소치 올림픽 출전권 획득에 실패하자 올림픽연대위원회는 훈련비 지급을 중단함.

- **캐나다, 지난해 탈북자 난민 수용률 8%에 불과(2/11, 자유아시아방송(RFA))**
 - 캐나다가 지난해 탈북자 난민 신청 257건을 심사해 이들 중 8%에 해당하는 21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캐나다 이민난민국 멜리사 앤더슨 선임공보담당을 인용해 자유아시아방송(RFA)가 11일 보도함.
 - 지난해 수치는 캐나다 정부가 2012년 290명의 탈북자 출신 난민 신청자 중 230명(79.3%)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던 것에 비하면 10분의 1로 줄어든 것임.

- **北 “美,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도발자”(2/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핵위협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최근 미국 당국자들이 잇따라 북한의 ‘핵위협’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불안 요인으로 지목한 데 대해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자, 안전을 파괴하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전인류를 몇 번이고 멸살시킬 수 있는 수천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하늘과 땅, 바다에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방대한 핵 타격 수단들을 전개해 놓고 있는 미국이 그 누구의 ‘핵위협’에 대해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함.

- **北 “일제 강제연행 범죄 반드시 계산될 것”(2/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개인 필명의 논평에서 일제에 의해 강제연행된 조선인 청장년은 무려 840만여 명에 달했고 100여만 명이 학살됐다고 “일본이 아무리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려 해도 역사와 인류의 기억 속에서 일본의 과거범죄를 지워버릴 수 없다”고 강조함.
 - 신문은 일본의 현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일제 강점기의 강제연행 범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계속 군국화, 우경화의 길로 나간다면 “일본은 영원히 국제사회의 적국으로 배격당할 것”이라고 주장함.

- **유엔, 오는 5월 北 인권상황 정례검토(2/11, 미국의소리(VOA))**
 -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오는 5월 1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상황을 심사하는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실시한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1일 보도함.

- 북한은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열리는 UNHRC의 제19차 UPR 대상국에 포함돼 5월 1일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해 심사를 받을 예정이며 각 회원국은 북한 당국이 제출한 보고서와 유엔 기록, 비정부기구 보고서 등을 토대로 심사하고 UNHRC는 논의 결과를 요약한 결과문을 5월 6일 채택할 예정임.

● **北 “美 핵폭탄 밑 어떻게 마음편히 혈육의 정 나누나”(2/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이 아닌 미국이라면서 최근 서해 상공에서 이뤄진 미 B-52 전략폭격기 훈련을 거듭 비난함.
- 통신은 지난 5일 미 B-52 전략폭격기가 서해 직도 상공에서 훈련한 사실을 거론하며 “상봉 행사 참가자들 대다수가 (6·25전쟁 때)미국의 원자탄 공갈에 의해 생이별당한 사람들일진대 언제 떨어질지 모를 미국의 핵폭탄 밑에서 어떻게 마음 편히 혈육의 정을 나눌 수 있으며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평화와 안정으로 지향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함.

● **그레그 전 美대사, 北서 다양한 현안 논의(2/12, 미국의소리(VOA))**

- 북한 외무성의 초청에 따라 지난 10일 태평양세기연구소 대표단 4명과 함께 방북한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가 북한 당국과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2일 보도함.
- 그레그 전 대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미국 비정부기구 ‘태평양세기연구소’(Pacific Century Institute)의 대변인격인 토마스 플레이트 로올라 매리마운트대학 교수는 지난 5일 VOA에 그레그 전 대사 일행이 북한 당국과 어떤 주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함.
- 플레이트 교수는 그레그 전 대사 일행이 북한에 역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의 석방 문제를 논의할지를 묻는 말에 서로 대화 가 이뤄지면 무엇이든 가능하고 어떤 사안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유엔 北인권조사위, 17일 최종보고서 발표(2/12,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이달 17일 지난 1년간의 조사 결과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표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함.

- COI는 마이클 커비 COI 위원장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 보고관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고서 내용과 북한 인권 침해 사례를 담은 증거자료를 소개할 예정이며 보고서는 다음 달 17일 유엔 인권이사회(HRC)에 공식 제출됨.

● **北청천강호, 선원 32명 태우고 쿠바行(2/13, AFP통신)**

- AFP통신은 억류된 북한 선원들의 변호인 측은 이르면 13일(현지시간) 청천강호가 선원 32명을 태우고 쿠바로 향할 것이라고 밝힘.
- 최근 파나마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선원 32명은 이민청에서 수속을 끝내고 파나마 근해에 정박 중인 청천강호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장과 일등항해사, 정치 임무를 띤 요원 등 3명은 무기 밀매 혐의로 파나마 검찰의 재판을 받아야 함.

● **北, 러시아 극동에 관광사무소 설치 추진(2/13,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마식령 스키장 관광객 유치를 겨냥해 러시아 극동 하바롭스크주(州)에 관광사무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함.

● **유엔 위원단, 북한-아프리카 국가 군사거래 조사중(2/14, 아사히신문)**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전문가 패널(위원단)이 북한과 동아프리카 국가 간의 군사 거래를 조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4일 보도함.
- 안보리 이사국 관계자는 위원단이 에티오피아의 탄약 제조회사와 북한 측 단체가 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을 포착하고 제재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으며 2011년 5월 북한에서 홍해 연안국 에리트레아로 운송된 공작 기계가 양국의 무기 협력에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제기돼 에리트레아에 관련 정보를 요구했다고 밝힘.

● **北, ‘국방위 성명’ 유엔안보리 공식문건으로 배포(2/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성명 ‘남조선 당국은 온 민족 앞에 자기의 속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가 13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공식문건 S/2014/84호로 배포됐다”고 보도함.

기타 (대외 일반)

- 美 태평양세기연구소 회장 '도널드 그레그'(前 주한 미국대사)와 일행, 2월 10일 평양에 도착(2.10,중앙통신)
- 北 외무성(김형준 외무성 부상), 2.11 '2014년 새해' 즈음 '중국 대사관 성원들(‘류홍재’ 주북 중국 대사 등)과 친선모임' 개최(2.11,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박의춘(외무상), 2.11 이란 혁명승리 35주년 관련 同國 대통령·외무 상에게 각각 축전(2.11,중앙통신·평양방송)
- 주북 러시아 대사, 2.11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박의춘(외무상)·궁석웅(외무성 부상)·서호원(北-러 친선 협회 위원장·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등 초대한 가운데 “러시아 외교일꾼절” 기념 연회 개최(2.11,중앙통신)
- 駐北 이란 대사관, 2월 12일 ‘이란 혁명승리’ 35돌 즈음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 개최(2.12,중앙통신·중앙방송)
- ‘최근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비뚤어진 역사관과 도덕적 저열성이 강하게 문제시 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과거청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나서고 있다’며 “과거청산의 용단”을 촉구 (2.12,중앙통신·민주조선)
- 일본에서 “과거침략 역사를 정당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야스쿠니 신사’ 참배·자위대무력 증강과 해외팽창 등이 커가고 있다”며 이는 “자멸을 앞당기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경종(2.13,중앙통신·노동신문·평양방송)

3 대내 동향

- **北, 연일 남북관계 개선 언급하며 南 변화 촉구(2/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북남관계 개선은 시대의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북관계 개선 조치를 제안한 국방위의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을 거론하며 남한이 미국 등 외세의 간섭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함.
 - 신문은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호소에 적극 화답해 나설 때 북남관계에서는 새로운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北, ‘남북고위급접촉 개최’ 신속 보도(2/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고위급 접촉이 시작된 지 1시간 20분 만인 12일 오전 11시 24분께 “북남 고위급접촉이 12일 판문점에서 진행된다”라고 신속히 보도함.
 - 통신은 “여기에는 우리 측에서 원동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원들이 참가하여 북남관계와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함.

- **고위급 접촉 제안한 北, 연일 평화공세(2/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고위급 접촉이 열리는 12일 ‘평화수호는 우리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의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이룩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입장이며 의지”라고 강조함.
 - 신문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평화수호 의지를 시험해보려 하지 말아야 하며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기는 했지만 공격적인 표현은 자제함.

- **北 “고위급접촉 북측 대표단은 국방위 대표단”(2/1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오후 5시 4분께 “접촉에서 쌍방은 북남 관계를 개선해 민족적 단합과 평화번영, 자주통일의 새 전기를 열어나갈 의지를 확인하고 북과 남 사이에 제기되는 여러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했으며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고 밝힘.

- 통신은 이어 ▲이산가족 상봉 예정대로 진행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중단 ▲상호 관심사 계속 협의 및 상호 편리한 날짜에 고위급 접촉 등 3개항으로 된 ‘공동보도문’ 전문을 공개함.
 - 통신은 “접촉에는 우리 측에서 원동연 노동당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위원회 대표단이 참가했다”고 언급, 이번 고위급 접촉에 나선 북한 대표단이 ‘국방위원회 대표단’이라고 처음으로 밝힘.
- **北, 남북관계 개선 강조…대남비난은 자제(2/14,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4일 ‘북남관계 개선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는 제목의 글에서 “평화와 북남관계 개선을 이루느냐 아니면 체제대결의 악순환 속에 전쟁의 참화를 들쓰느냐 하는 역사의 분기점에서 서 있다”라고 주장함.
 - 우리민족끼리는 “현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은 북과 남 사이에 불신과 대결의 상태를 해소하고 호상 신뢰와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그 성패에 따라 “북남관계가 개선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강조함.
- **北, “남북공조가 북미 핵협상 촉진할 수 있어”(2/14,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4일 ‘최고수뇌부의 결심 / 분열사에 종지부를(3)’이라는 글에서 남북 간 핵재난 예방 조치 등을 제안한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에는 동북아시아 역학관계와 국제정세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깔려 있다며 “북남의 공조가 조미(북미) 간의 핵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미국의 핵타격 수단을 더 이상 끌어들이지 않을 결단이 그를 위한 단서를 마련한다”며 “남조선 당국이 동족대결의 사고방식을 바꾸기만 하면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선순환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임.
- **조선신보 “고위급 접촉, 北최고수뇌부 결심 구현”(2/15,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5일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예정대로 추진 등에 합의한 전날 고위급 접촉에 대해 “북한 최고수뇌부의 결심이 북남대화의 장에서 첫 결실을 맺었다”라고 평가함.
 - 조선신보는 ‘판문점 합의,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첫 결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고위급 접촉 결과는 “북의 최고수뇌부가 통일에 관한 결

심을 이미 정책화해 구체적 행동으로 옮겨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함.

- 이어 “1990년대 이후 ‘고위급’이라고 불린 회담이 여러 번 있었으나 이번 접촉은 양상을 달리한다”라며 “전례 없는 대면방식”이라고 강조함.
- 조선신보는 “각기 수뇌의 뜻을 직접 전달하고 그 반응을 그대로 보고할 수 있는 직위, 직책의 인물들이 대화를 위해 판문점에서 만났다”며 “북남 수뇌들의 뜻을 직접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창구가 정상가동한다면 북남 관계가 빠른 속도로 발전돼 나갈 수 있다”라고 전망함.

■ 기타 (대남)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北)의 동포애적 선의에 의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적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며 ‘南 당국도 곡해와 대결관념을 버리고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2.10, 중앙통신·중앙방송·노동신문)
-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거론 ‘평화수호 의지를 시험해 보려 하지 말아야 한다’며 韓·美 당국에게 훈련중단을 재차 촉구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분위기’ 지속 주장(2.12,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미국을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핵전쟁 위험을 조성하는 주범’이라며 ‘남한의 정당·사회단체 등 각계층의 KR·FE 연습반대 투쟁 전개’를 지속 주장(2.13, 평양방송)

02.17-02.23

2월

4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부부, ‘해군 대 공군’ 체육경기 관람(2/1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2월 16일)을 맞아 열린 해군 지휘부와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 군인들의 체육경기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함.
 - 통신은 “(경기 관람 후) 김정은 동지께서는 온 나라에 체육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는 데서 인민군대가 앞장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전함.

- **‘張 측근’ 문경덕 北 공식행사서 사라져…숙청됐나(2/18, 연합뉴스)**
 - 장성택의 측근으로 알려진 문경덕 평양시 당 책임비서가 최근 공식석상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 숙청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함.
 - 문 책임비서는 지난달 6일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신년사 관철 평양시 군중대회 이후 한 달 넘게 공식석상에서 자취를 감췄으며 평양시 책임자로서 지난 3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평양시 육아원과 애육원 시찰 때 동행하거나 현지에서 영접해야 했지만, 수행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함.

- **北 김정은 “제111호 백두산선거구 대의원 후보 등록”(2/1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한 전역의 모든 선거자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대의원선거법에 따라 대의원 후보자는 한 선거구에만 등록하게 되어 있으므로 나는 제111호 백두산 선거구에 대의원 후보자로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함.
 - 북한은 지난 3일 ‘제111호 백두산선거구 선거자 대회’를 열고 김 제1위원장을 대의원 후보로 가장 먼저 추대했으며 이날 행사가 인민무력부 청사에서 열리고 최룡해 총정치국장 등 군 고위인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미뤄 군 관련 선거구로 관측됨.

- **北, '유일사상 선포' 40주년 맞아 김정은에 충성 강조(2/19, 노동신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른바 '온 사회 김일성주의화 강령'을 선포한 기념일을 맞아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집중 부각하며 김정은 체제에 대한 충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노동신문이 19일 보도함.
 - 노동신문은 1면 사설을 비롯해 모두 4개 면을 할애해 '김일성주의화' 강령 선포의 의의, 김정일 위원장의 '업적'과 이날을 맞은 당간부와 주민들의 반응, 전날 열린 '강령 선포' 40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 소식 등을 보도함.
 - 신문은 "온 사회 김일성주의화 강령 선포는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 위업 수행에서 획기적 전환을 가져온 역사적 이정표였다"며 "(강령 선포는) 김정일 동지께서 한평생 이룩한 업적 중에서 가장 불멸할 업적"이라고 주장함.

- **北 김정은, 軍 식품공장 3개월 만에 다시 시찰(2/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 11월2일공장을 3개월 만에 또다시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함.
 - 통신은 "최고사령관(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해 11월 12일 이 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생산공정을 컴퓨터화·무인화·무진화·무균화할 데 대한 과업을 줬다"며 "생산공정의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됐다는 보고를 받고 3개월 만에 공장을 다시 찾았다"고 전함.

- **北, 선거 분위기 띄우기...“일심단결 과시될 것”(2/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0일 사설에서 "이번 선거를 통하여 원수님(김정은)의 두리(주위)에 천만군민이 천겹만겹의 성새, 방패를 이루고 찬란한 미래로 질풍같이 나아가는 선군조선의 단결의 기상이 만천하에 과시될 것"이라고 주장함.
 - 사설은 이어 온 나라에 선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선거에 관한 정치사업과 예술·보도선전에 힘쓸 것을 주문함.

- **北 신문, 상봉 관련 김정일 '업적' 선전(2/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한없이 숭고한 동포애를 지니시고'라는 글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민족분열로 생이별한 사람들의 한을 푸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그가 이산가족 상봉의 역사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함.

- 신문은 1985년 처음 이뤄진 남북 이산가족의 고향방문과 예술단의 서울·평양 교환방문이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소개함.
- 또한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이끈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을 거론하며 “장군님의 자애로운 손길 아래 2000년 8월부터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 교환사업은 온 겨레의 지지 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힘.

● **北, 제13기 대의원 선거 앞두고 투표자 명단 공시(2/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내달 9일 실시되는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우리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의 선거위원회에서 투표자 명단을 공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전함.
- 통신은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구, 분구 선거위원회들에서 선거자 명부를 공시했다”라며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준하여 작성된 선거자 명부에는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하는 선거권을 가진 모든 공민이 등록됐다”고 밝혔으며 “선거자들은 공시된 명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임.

● **北김정은, 취약계층 위한 軍수산사업소 건설현장 시찰(2/23,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취약계층에게 물고기를 공급할 군수산사업소 건설현장을 찾았다고 23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중·고등학교, 양로원 등에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공급할 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 건설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수산사업소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공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건설에 동원된 군인들을 격려함.

■ **김정은동향**

- 2/18, 김정은 黨 제1비서, 리설주와 함께 인민극장에서 공훈국가합창단의 ‘광명성절’ 경축 공연 관람 (2.18, 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영길, 장정남, 변인선, 서홍찬 등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관람
- 2/18, 김정은 黨 제1비서, 리설주와 함께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해군 지휘부와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 군인들의 체육경기 관람(2.18, 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영길, 장정남, 서홍찬, 김명식, 리병철 등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관람
- 2/19, 김정은 黨 제1비서, 전국의 모든 선거자들에게 공개서한(2.19, 중앙통신·중앙방송)
-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11호 백두산선거구에 대의원후보자로 등록하기로 하였음”
- 2/20, 김정은 黨 제1비서, 11월2일공장을 현지지도(2.20, 중앙통신·중앙방송)
- 서홍찬(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육군상장), 황병서(당 중앙위 부부장) 동행
- 2/22,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건축종합대학에 선물 전달(2.22, 중앙통신·중앙방송)
- 2/23, 김정은 黨 제1비서, 1월8일수산사업소 건설장 시찰(2.23, 중앙통신·중앙방송)
- 한광상(당 중앙위 부장), 황병서·마원춘(당 중앙위 부부장들) 동행

기타 (대내 정치)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2.17 평양대극장에서 재일본조선인 예술단(단장 : 리영수)과 담화(2.17, 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내각총리), 청춘거리 체육촌 개건 보수정형을 현지에서 요해(2.18, 중앙통신·중앙방송)
-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강령’ 선포 4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2월 1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2.18, 중앙방송·평양방송)
-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중앙선거위원회, 2월 19일 김정은이 제111호 백두산선거구에 대의원후보자로 등록되었음을 보도(2.20, 중앙통신·중앙방송)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회의, 2.20 평양에서 진행(2.21, 중앙통신·중앙방송)
- 이번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선거(3.9)를 통해 ‘김정은 두리에 선군조선의 단결의 기상이 만천하에 과시되게 될 것’이라며 쏘민의 ‘△대의원선거 참여, △다양한 정치사업 전개, △생산 바차 등 선거에 이바지 할 것’ 강조(2.20,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영남, 2월 21일 광명성절 경축 재일본조선인대표단(단장: 홍인홍 총련중앙감사위원장)과 만수대외사당에서 담화(2.21, 중앙통신·중앙방송)
- 黨 중앙위 비서들, 2월 21일 제8차 ‘사상일꾼대회’ 참가자들 숙소 방문(2.22, 중앙통신)
- 박봉주(내각 총리), 흥남비료연합기업소·2.8비날론연합기업소·용성기계연합기업소를 현지요해(2.22, 중앙통신)
- 전국의 구·분구 선거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자 명부를 공시(2.22, 중앙통신)
- 노동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 참가자들, 2월 22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및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 주체사상노작전시관 대성산혁명열사능 등 참관(2.22, 중앙통신·평양방송)

나. 경제

● 中엔벤주, 올해 북한 자가용관광 활성화 추진(2/21, 연변인터넷방송)

-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지린성 엔벤(延邊)조선족자치주가 올해 중국인을 상대로 북한 자가용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연변인터넷방송이 21일 전함.

- 방송에 따르면 엔벤주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올해 북한 자가용 관광 코스와 관련 상품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며 북·중 접경지역인 엔벤주 투먼(圖們)시, 훈춘(琿春)시, 안투(安圖)현 등 3곳에는 관광휴게소를 건설, 자가용 관광 캠프로 활용할 예정이다.

● **북한산 무연탄 중국 수출, 올해도 호조 전망(2/21, 연합뉴스)**

- 21일 중국 무역업계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연탄이 중국 내 수요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출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함.
- 지난해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무연탄은 전년보다 39.7% 늘어난 1천649만t으로, 중국의 무연탄 총 수입량 3천966만t의 41.5%를 차지했으며, 이로 인해 북한은 지난해 베트남을 제치고 중국 상대 최대 무연탄 수출국의 자리에 오름.

■ **기타 (대내 경제)**

- 北,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버섯재배’가 각 도와 시·군·구역들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 (2.21, 중앙통신)

다. 사회문화

● **北 “구제역으로 큰 피해…돼지 3천200마리 감염”(2/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서 구제역으로 큰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함.
- 통신은 리경군 농업성 국장을 인용해 “구제역은 지난 1월8일부터 평양시 사동구역에 위치한 평양돼지공장에서 발생하여 현재까지 평양시와 황해북도 중화군의 17개 단위들에 전파됐다”고 전함.
- 또한 “구제역 0형에 3천200여 마리의 돼지들이 감염됐고 그 중 360여 마리가 폐사됐으며 2천900여 마리가 도살되는 등 많은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 “소치 못간 北…주민들은 마식령서 스키”(2/23, AP)

- 러시아 소치에서 23일(현지시간) 폐막하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 북한은 선수를 한 명도 출전시키지 못했지만 마식령 스키장에는 올림픽의 꿈을 키우는 ‘초보 스키어’들의 열정이 가득하다고 AP통신이 보도함.
- AP에 따르면 북한의 스키 인구는 공식 집계상 북한 전체 인구 2천400만 명 가운데 0.02%에 불과한 수준이며, 그렇다 보니 북한이 지난해 12월31일 개장한 마식령 스키장 이용객도 적어 리프트에 줄을 서는 모습은 거의 보기 어렵고 상급자용 슬로프는 대부분 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AP는 전함.
- 하지만 AP는 최근 마식령 스키장을 찾았을 때 장비 대여소에 스키 장비를 빌리려는 초보자들이 붐비고 있었다고 현지 분위기를 옮김.
- AP는 최근 조선중앙TV가 내보낸 소치 올림픽 중계가 북한의 ‘초보 스키어’들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2 대외 관계

가. 일반

- **中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 평양 도착(2/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7일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외교부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함.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류 부부장이 20일까지 나흘간 방북해 외무성 책임자들을 만난다며 회담 의제에 대해 “중조관계와 지역형세 등 공통의 문제”라고 설명함.

- **북한 “유엔 인권조사위 보고서 전면 거부”(2/17, 로이터통신)**
 - 유엔 위원회가 17일(현지시간) 북한 인권침해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 당국이 이 보고서를 ‘전면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 보도함.
 - 스위스 제네바의 북한 대표부는 이날 로이터에 보낸 2쪽짜리 성명에서 “해당 보고서는 유럽연합(EU)과 일본 입장에서 인권을 정치화한 산물”이라면서 “미국의 적대 정책과도 연합한 결과”라고 비판함.
 - 또한 북한 대표부는 “인권 보호를 빌미로 정권을 교체하려는 시도와 압박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은 그 보고서가 언급한 인권 침해 사례가 실제 없다고 다시 확인한다”고 덧붙임.

- **北 자성남, 이달 말 유엔 대사 부임(2/19, 미국의소리(VOA))**
 - 자성남 북한 외무성 국장이 이달 말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로 부임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뉴욕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19일 보도함.

- **방북 中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 외무상 만나(2/1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을 방문 중인 류전민(劉振民) 부부장 등 중국 외교부 대표단이 19일 박의춘 외무상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이날 박의춘 외무상이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중국 외교부 대표단을 만나 담화했다고 전했다지만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 **보츠와나, 북한과 외교관계 단절 선언(2/20, AFP통신)**

- 보츠와나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 북한이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국민을 노예로 전락시키며, 굶주리게 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엔(UN) 보고서를 인용하며 북한과 ‘즉각적’으로 외교관계를 끊는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함.
- 성명서는 “보츠와나 정부는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는 국가와는 함께 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보츠와나 정부는 김정은 체제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는 동정심을 전한다고 밝힘.

● **북한서 억류된 호주선교사, 전도용 인쇄물 소지(2/20, ABC방송)**

- 관광단의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했다가 현지 당국에 억류된 호주 선교사 존 쇼트(75)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현지에서 전도 활동을 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호주 국영 ABC방송이 20일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쇼트는 자신이 머물던 평양 시내 호텔에서 북한 경찰에 체포될 당시 한국어로 번역된 기독교 전도용 인쇄물을 다량 소지하고 있었으며 쇼트 본인도 북한 당국의 심문 과정에서 자신의 북한 방문이 단순한 관광 목적이 아니란 사실을 시인했다고 북한 관리와 접촉한 중국 여행사 BTG가 밝힘.
- 이 여행사는 쇼트를 억류한 북한측 관리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지만 쇼트가 심문 과정에서 전도 목적의 북한 방문을 인정한 이상 그가 현지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 **北 외무성 대표단, 이란 방문(2/2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리길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외무성 대표단이 20일 이란을 방문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함.

● **北 외무성 “유엔 北인권보고서 배경…허위날조 자료”(2/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최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의 인권 범죄 관련 보고서를 낸 데 대해 날조된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22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외무성 대변인은 2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 위 보고서가 탈북자와 ‘범죄도주자’ 등이 지어낸 허위·날조자료를 모은 것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를 전면배격한다”고 밝힘.
- 대변인은 또 “인권을 구실로 국제형사재판소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요 뒤요 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생억지를 부리며 반공화국 모략소동에 열을 올리는 것은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이미지)을 감히 깎아내리고 압력도수(수위)를 높여 우리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극히 위험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함.

● 北 매체, ‘키 리졸브’ 연습 앞두고 미국 비난(2/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미국이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조성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깨고 있다고 비난함.
- 신문은 지난 18일 열린 ‘유엔현장 및 기구역할 강화에 관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대표가 한 연설을 소개하며 ‘키 리졸브’ 연습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주장함.
- 북한 대표는 이 연설에서 최근 남북 실무접촉이 열린 날 미국이 B-52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출격시키는 ‘도발’을 감행했다며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공화국을 타격 목표로 하는 대규모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말함.

■ 기타 (대외 일반)

- 美 국제 및 군사전문가들의 아 태지역에 대한 발언(아 태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해야 할 때이다)과 관련하여 ‘아 태지역에 새로운 군사블력을 조작하려는 책동은 지역정세를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며 ‘아시아판 나토 조작책동 반대 투쟁’ 선동(2.18, 중앙통신·노동신문)
- 日 교과서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영유권’ 주장을 명기하기로 결정한 것 관련 ‘새 세대들을 미래의 군국주의 광신자들로 키워내 침략의 돌격대로 써먹으려는 목적’이라며 ‘舊 일본과 같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 지랄발광하고 있다’고 비난(2.18, 평양방송)
- 태평양지역 미군 총사령관 발언(‘북한 핵과 미사일은 세계와 남한 위협, 韓日과 협력강화’ 등)을 ‘亞-太 지역에서 美日韓 3각군사동맹 구축기도’라고 비난 및 “우리(北)의 대미 입장과 원칙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2.20, 중앙통신·노동신문·평양방송·중앙방송)
- 北 대표, 2월 18일 유엔현장 및 기구역할 강화에 관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연설(2.22, 평양방송)
- ‘한일의정서’ 체결일(1904.2.23)을 즈음하여 ‘한일의정서’는 ‘일본이 조선을 침략전쟁에 가담시키며 장차 전면적으로 예속시킬 목적으로 한 강도적 협약’이라며 ‘개별적인 관리를 매수하여 군사적 위협공갈로 체결한 허위문서’라고 비난(2.22, 중앙통신/일제의 포악성과 간교성의 산물)

나. 6자회담(북핵)

● 中 류전민 “北과 비핵화 추진 허심탄회하게 논의”(2/20, 연합뉴스)

-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20일 “북한과 북중 양자관계,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문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힘.
- 류 부부장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것은 남북한 공동의 의무”라면서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가든지 한국에 오든지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함.
- 류 부부장은 이어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 北 외무성 “中과 6자회담 재개에 공동 노력”(2/2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이 중국과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전함.
- 외무성 대변인은 2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박의춘 외무상을 비롯한 외무성 간부들이 지난 17~20일 방북한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회담과 담화를 했다고 22일 보도함.
- 대변인은 북중 양국이 회담과 담화에서 6자회담 재개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며 “조중 쌍방은 앞으로도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강조함.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 조국전선 “김정은 영도 따라 남북관계 활로 열자”(2/21, 조선중앙통신)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가 20일 평양에서 회의를 열고 남북관계 개선의 ‘활로’를 열자고 호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함.
 - 조국전선은 이날 발표한 호소문에서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의 구성(구원해주는 별)이신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북남관계 개선의 활로를 열고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자”고 강조함.
 - 또한 “김정은 동지를 단결의 유일 중심, 영도의 유일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자”라며 “모두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에 참가해 우리의 혁명주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자”고 북한 주민의 선거 참여를 독려함.

- 北 인터넷매체, “軍 대북심리전 유지 방침” 비난(2/22,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2일 군 차원의 대북심리전이 유지될 방침이라는 국내 언론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남측에 “비방·중상 중지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함.
 - 개인 필명의 논평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과 공동보도문 발표에 대해 국제사회가 적극 환영하고 있다며 “그런데 남조선에서 이에 배치되는 언행들이 그치지 않고 있어 내외의 우려와 실망을 자아낸다”고 지적함.
 - 또한 “대북심리전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벌어지든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으로서 이번에 북과 남이 발표한 공동보도문 내용을 위반하고 그에 역행하는 그릇된 처사”라고 비난함.

- 北 신문 “남북관계 개선 원하면 비방중상 중지해야”(2/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최근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비방중상 중지가 합의됐지만 남한이 이를 어기고 있다고 비난함.
 - 신문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비방중상 중지 합의에 역행하는 일들이 남한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상대방의 제의에 오히려 모략과 중상으로 대답하는 무례한 행위”라고 주장함.

- 이어 남한의 구체적인 비방증상 행위로 군의 대북심리전 유지 방침, 통일부의 북한 인권문제 언급, 남한 언론의 북한 비난 보도를 꼽음.

나. 경제사회문화

● 北 “불리한 조건에도 대범하게 이산상봉 합의”(2/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대결상태 해소는 통일의 길을 여는 출발점’이라는 논설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의지는 ‘빈말’이 아니라며 북한이 남한에 대한 비방증상 중단 조치를 먼저 했고 군사분계선에서 적대행위를 막는 조치에도 들어섰다고 밝힘.
- 신문은 “특히 얼마 전에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의 요구를 대범하게 받아들여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 행사 개최 문제도 기대 이상으로 원만히 합의해줬다”고 덧붙임.

● 남북, 개성공단 인터넷 공급 사업자 간 협의 개최(2/21, 연합뉴스)

- 남북이 21일 오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성공단 인터넷 공급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통신 사업자 간 협의를 열었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함.
- 우리측에서는 KT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관계자 등 5명이, 북측에서는 조선체신회사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등 6명이 각각 양측 실무자로 참석함.
- 요금 체계와 인터넷망 구축공사 일정, 기관별 역할 등에 대한 사업자 간의 실무적 협의만 남은 상황으로 남북 사업자 간 협이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올해 상반기 중에는 개성공단에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이산가족 상봉 보도…‘통일 열망’ 부각(2/2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1일 보도에서 “20일 금강산호텔에서 북측 주최의 집체상봉과 환영연회가 있었다”라며 “이번 상봉행사가 진행되는 것은 2010년 10월의 17차 이래 3년 4개월만”이라고 밝힘.
- 신문은 “작년 9월에 예정된 상봉 행사는 남조선 당국의 무분별하고 악랄한 대결소동으로 인해 연기됐다”라고 주장함.

- 신문은 또 상봉 첫날 오후 열린 연회에서 북측 단장인 리충복 조선적십자회 부위원장이 이번 상봉 행사에 대해 “북과 남은 올해에 들어와 적십자 실무접촉, 고위급 접촉을 거쳐 허심탄회하고 진지한 협의 끝에 귀중한 합의를 이루었다”고 특별히 강조했다고 소개함.

● **매체들,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일제히 보도(2/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금강산 발로 지난 20일부터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렸다고 하며 “우리 측 가족, 친척들은 남녘의 혈육들에게 김정은 원수님의 품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대해 이야기했다”고 소개함.
- 또 “그들(북측 가족들)은 나라의 융성번영을 위해 일해온 나날들에 대해 (남측 가족에) 전해주며 자기들뿐 아니라 온 가족이 조국의 은덕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대해 말했다”고 전함.
- 통신은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가 이산가족들을 위해 연회를 차린 소식도 전하고 “22일 우리 측 가족, 친척들은 남측의 혈육들과 작별했다”고 덧붙임.
- 통신은 이어 “23일부터 우리 측 상봉자들이 남측의 가족, 친척들과 만나게 된다”라며 이산가족 상봉 2차 행사를 예고함.

● **北 상봉단장 “가족상봉, 남북관계 개선 첫 출발”(2/23, 연합뉴스)**

- 3년4개월 만에 재개된 남북 이산가족상봉의 북측 단장인 리충복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첫 출발”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리 부위원장은 이날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남측 주최로 열린 이산가족 2차 상봉단 환영 만찬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중대제안을 내놓았으며 그를 실현하기 위한 첫 출발로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마련했다”라고 말함.
- 리 부위원장은 “장장 70년 가까이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있는 장벽을 허물 때는 왔다”라며 “오늘의 상봉을 시작으로 북과 남은 마음을 합치고 뜻을 모아 대결과 분열의 골을 메우고 통일의 봄을 앞당겨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北, 상봉자 인터뷰로 “분단은 美 책임” 비난(2/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5면 ‘상봉장에서 울려나온 눈물에 젖은 목소리’라는 금강산 현지발 기사에서 양상환(황해남도 옹진군), 유기정(황해남도 청단군), 곽윤성(평안남도 숙천군)씨 등 북측 상봉자 3명의 인터뷰를 실음.
- 6·25전쟁 때 헤어진 사촌형을 60여 년 만에 만났다는 양상환 할아버지는 소감을 묻는 말에 “형님을 정작 만나고 보니 반가움에 앞서 우리 민족을 분열시킨 미제에 대한 분노가 더욱 뼈에 사무친다”고 말함.
- 유기정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헤어졌던 누이와 감격적으로 상봉했는데 우리 남매가 갈라지게 된 것도 바로 미국의 원자탄 때문”이라고 말했고, 외삼촌과 상봉한 곽윤성 씨도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는 것이 바로 민족의 분열이고 그냥 뇌둘 수 없는 것이 조선 민족의 원수인 미제”라고 비난함.
- 다만 노동신문은 “이번 상봉은 우리 겨레가 수십 년 갈라져 살아도 영영 둘로 가를 수 없는 한민족이며 가슴 속에서 끓고 있는 통일 열망은 실로 뜨겁고 강렬하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함.
- 또 노동신문은 ‘북남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 진행’이라는 다른 기사에서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지난 20~22일 이산가족 1차 상봉 소식을 짧게 전하고 “2월23일부터 우리 측 상봉자들이 남측의 가족, 친척들과 만나게 된다”고 밝힘.

● **서울시, 남북상봉 훈풍타고 축구 경평전 본격추진(2/23, 연합뉴스)**

- 서울시가 경평(京平)축구대회 등 평양과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3일 연합뉴스가 전함.
-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보고한 걸 보면 시는 경평전 재개를 위해 통일부와 상시 협의하고 남북 고위급 회담 때 경평전 개최가 의제에 포함하도록 요청하기로 함.

● **무협 “작년 南北교역액, 北中무역의 6분의 1로 추락”(2/23, 연합뉴스)**

- 남북관계 경색 국면 속에 작년 남북교역 규모가 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반면에 북중무역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연합뉴스가 전함.

- 한국무역협회의 '2013 남북교역·북중무역 동향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남북교역액은 전년(19억 7천 620만 달러) 대비 41.9% 급감한 11억 4천 891만 달러를 기록함.

■ 기타 (대남)

- '남북 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며 '대결상태를 해소할 때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없애고 신뢰와 화해를 도모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2.19, 중앙통신·중앙방송·노동신문)

02.24-02.28

2월

5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3. 대남 동향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원산 소년단야영소 리모델링 현장 시찰(2/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리모델링 중인 강원도 원산시의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의 야영각과 국제친선소년회관, 실내체육관, 실내수영관, 수족관, 조류사 등 여러 시설을 돌아보면서 공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만족을 표시했으며, 특히 국제친선소년회관의 설계가 잘됐다고 이곳에 최신식 영화보급시설과 음향설비를 보내주겠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함.
 - 이번 시찰에는 한광상 노동당 재정경리부장과 황병서·마원춘 당 부부장, 전용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장이 함께 함.

- 北, 김정은 체제 첫 ‘노동당 사상일꾼대회’ 개막(2/24,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노동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가 24일 평양에서 개막됐다”며 “대회에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위업을 앞장에서 만들어나가는 데서 당 사상일꾼들 앞에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토의하게 된다”고 밝힘.
 - 김기남 노동당 선전담당 비서는 이날 회의 보고에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데 중심을 두고 당 사상사업을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오직 원수님 따라 혁명의 천만리를 역세계 걸어나가는 충정의 일편단심이 천만 군민의 심장마다 차 넘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함.
 - 대회에는 최태복·김평해·곽범기 노동당 비서, 김창섭 국가안전보위부 정치국장, 조연준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태종수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 등이 참석함.
 - 노동신문은 24일 2면 사설에서 이번 대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온 사회 김일성주의화’ 강령 선포 40주년을 맞아 열린다고 전함.

- **北 김정은 “현대판 종파 청산해야”…유일영도 강조(2/26, 조선중앙방송)**
 - 김 제1위원장은 25일 폐막한 노동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에서 연설을 통해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고히 세우는데 당사상 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전함.
 - 그는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말과 문서로만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하면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문헌(김정은 논문) 토의사업을 전당적으로 진행하고 학습과 강연도 하고 결의도 많이 다졌지만 실제 당안에서 현대판 종파가 발생한 것을 미연에 적발분쇄하지 못했다”고 지적함.
 - 김 제1위원장은 “당 안에서 또다시 종파가 나타난 것은 우리 사상일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에 도전하는 분파행위는 바로 사상의 변질로부터 시작되며 사상적 배신자들이 가담게 되는 종착점은 다름아닌 반당, 반혁명”이라고 비난함.
 - 김 제1위원장은 또 “적들이 끈질기게 들이치는 자본주의 독소가 우리 지경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모기장을 2중3중으로 든든히 치면서도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기 위한 주동적인 작전을 전개해야 하겠다”고 말함.
 - 이 자리에는 김기남·최태복·김평해·곽범기 당 비서, 김창섭 국가안전보위부 정치국장, 조연준·김경옥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황병서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최휘 당 제1부부장, 동영일 군 장성과 도당 책임비서들이 함께 함.

- **北 연일 ‘사상전’ 독려…“잡사상 막는 모기장 치자”(2/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1면 사설에서 “우리식 사회주의 생활양식과 어긋나는 온갖 잡사상과 이색적인 풍조가 우리 내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상적 모기장을 든든히 쳐야 한다”고 주장함.
 - 이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돈이나 원자탄이 아니라 위대한 사상”이라며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당 사상사업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은 오늘 우리 앞에 나서고 있는 첫째가는 과업”이라고 강조함.
 - 또 ‘사상을 틀어쥐면 승리하고 사상을 놓치면 망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적대세력들’이 주민들을 ‘부패타락’시키기 위해 “컴퓨터와 기억기

(USB 등 기억장치)를 비롯한 각종 전자제품들에 부르주아 사상문화를 기입하여 들이밀고 있다”고 주장함.

● 北 기자동맹 확대회의..“사상전 나팔수 될 것”(2/28,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7일 평양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8일 보도함.
- 회의에는 김기남 노동당 선전담당 비서와 기자동맹 중앙위 위원들, 평양 시와 지방의 출판보도기관 책임일꾼들, 기자, 편집원들이 참가함.
- 이들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24일 ‘노동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에서 연설을 통해 유일영도 체계 확립을 위해 당 사상 사업에 집중할 것을 주문한 데 대해 언론이 ‘진군 나팔수’가 되겠다면서 사상전에 앞장서겠다는 결의를 다짐.
- 이들은 또 김 제1위원장의 연설은 “기자, 언론인들이 틀어쥐고 나가야 할 불멸의 대강이며 사상의 위력으로 우리 혁명 승리를 확고히 담보해주는 만능의 보검”이라며 “출판보도부문에 불을 지피고 언론전, 선전선동전의 장엄한 포성을 울려 나가야 한다”라고 말함.

● 北 “사상전 포성으로 강산 뒤흔들자”…‘사상전’ 총력(2/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사상전의 포성으로 강산을 뒤흔들자”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향한 절대 충성과 유일 영도체계 확립을 위한 사상전을 독려함.
- 신문은 2면 ‘정론’ ‘사상전의 포성으로 강산을 뒤흔들자’에서 “모든 승리와 기적의 첫 자리에 바로 사상중시, 사상선행의 원칙이 있다”라며 ‘위대한 김정은 동지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이것이 우리의 사상이고 신념”이라고 강조함.

■ 김정은동향

- 2/24, 김정은 黨 제1비서, 강원도 원산시의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 시찰(2.24,중앙통신)
- 2/25, 김정은 黨 제1비서, 노동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 2일회의 및 폐막식(최태복 폐회사) 참석(2.26,중앙통신·중앙통신)
- 김기남, 최태복, 김평해, 곽범기, 김창섭, 조연준, 김경옥, 리재일, 최취, 황병서, 동영일과 도당책임비서들 참가
- 2/26, 김정은 黨 제1비서, 노동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2.26,중앙통신)

기타 (대내 정치)

- 조선노동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 2월 24일 평양에서 개막(2.24, 중앙통신)
 - 김기남(보고), 최태복(개회사), 김평해, 곽범기, 김창섭, 조연준, 태종수 등 참가
- 전국의 선거자들에게 보내준 '김정은의 공개서한'에 호응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자 결의모임,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전체 선거구들에서 진행(2.24, 중앙통신)
- 노동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강습, 2.26 평양에서 진행 및 '김정은 연설(2.25,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 나가자) 결사관철과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고히 세우는 사업에 당사상사업 총력' 등 강조(2.26, 중앙통신·중앙방송)

나. 경제

● 北, 농업개혁 속 “간부 부인 2천여명 농사일 자원”(2/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황해북도) 신계군 안의 여성들이 사회주의 농촌 진지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라며 “최근 2천여 명의 여성들이 군 안의 농장들에 진출했다”고 전함.
- 신문은 “군당위원회 일꾼(간부)들의 아내들이 남 먼저 농촌 진출의 깃발을 들었다”라며 이들의 뒤를 이어 군 인민위원회,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 군 인민보안서 간부의 부인들과 여러 분야에 근무하던 여성들이 농촌에 진출했다고 밝힘.
- 이어 간부 부인들이 농사일을 자원한 소식이 전해지자 병원 등 보건부문과 식당, 편의봉사시설 등 ‘비생산 단위’에서 근무하던 여성들도 잇따라 농민이 되기로 자원했다고 소개함.

● 北, ‘농촌테제’ 발표 50주년 맞아 농업 개혁 강조(2/25,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사회주의 대지에 빛을 뿌리는 농촌테제’란 제목의 기사에서 김일성 주석이 1964년 2월 2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 농촌건설의 기본원칙과 과업, 방도를 밝혔으며 김 주석의 ‘업적’을 부각함.
- 이어 “오늘 김정은 동지에 의해 위인들(김일성·김정일)의 농촌건설 사상과 영도가 빛나게 이어지고 있다”며 “김정은 동지는 전국 농업부문 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새 세기 농촌건설의 진로를 명시했다”고 밝힘.

- 노동신문도 1면 사설에서 “농사의 주인은 땅을 다루는 농민들”이라며 “모든 농장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자체 실정에 맞게 올바르게 적용해 농업 생산에서 은이(성과가) 나게 해야 한다”고 독려함.
- 이어 “농촌테제 발표 50돌이 되는 올해에 당이 제시한 알곡 고지를 기어 이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라며 식량 증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냄.

● 유니세프, 올해 대북예산 2천300만 달러 산정(2/25,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올해 대북사업 예산으로 2천300만 달러(약 246억원)를 산정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전함.
- 유엔아동기금은 올해 대북 예산 가운데 영양사업에 가장 많은 840만 달러를 투입해 식량이 부족한 임신부와 가임여성, 12개월에서 6살 미만의 유아 490만명에게 복합영양보충제를 제공할 계획이며, 식수·위생 분야에 590만 달러를 배정했고 보건(530만 달러)과 교육(58만 달러) 사업도 진행할 예정임.
- 보건사업은 1살 미만의 영아 35만명과 임신부 36만명에게 면역력 강화 백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고 식수사업에는 주민 20만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계획이 포함됐다고 RFA가 소개함.

● 1월 북중 교역액 전년보다 16% ↑ …‘張 속칭’ 영향없어(2/28,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의 올해 1월 교역 규모가 전년 동기보다 약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28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북중 교역액은 5억4천600만 달러(약 5천830억 원)로 집계됐으며, 이는 작년 1월의 4억7천100만 달러보다 15.9% 증가한 액수임.
- 지난달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억2천300만 달러, 수입액은 3억2천300만 달러였으며, 북한의 대중 수출액과 수입액은 작년 1월보다 각각 18.0%와 14.5% 증가함.
-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연탄의 지난달 수출액은 1억155만 달러(약 1천85억 원)로, 작년 1월보다 21.3% 늘었으며, 같은 기간 북한 철광석의 대중 수출액은 2천365만 달러로, 전년 동기(2천330만 달러)와 비슷함.

- **세계식량계획, 대북 지원에 320만弗 긴급 투입(2/28,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대북 지원 사업에 320만 달러(약 34억원)의 본부 기금을 긴급 지원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함.
 - 나나 스카우 WFP 북한 담당 대변인은 이날 RFA에 북한 어린이·임산부 영양지원 사업에 이달 초 WFP 본부 기금 320만 달러를 긴급 투입했다고 밝힘.

기타 (대내 경제)

- 농업성 안의 공무원들, 김정은 서한을 받들어 학습과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가져오기 위한 대책들 강구 (2.24, 중앙통신)
- 평양시, 화천9호발전소 건설 성과(발전소 좌안1선가물막이 공사 종료) 선전(2.25, 중앙통신)
- 김일성 저작 발표 50주년을 맞아 '저작은 농촌문제 해결에서 완벽한 해답을 준 불후의 고전적 문헌이며 당의 위대한 사회주의 농촌건설 강령'이라며 '사회주의 농촌건설 위업은 승리만을 떨쳐갈 것'이라고 강조(2.25,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정일을 '경제강국 건설의 토대를 마련한 절세의 애국자'라며 "기계제작공업의 CNC화 실현, 주체비료·비날론 생산" 등 '지식경제형강국건설 노고 등 혁명생애 업적' 칭송(2.26, 중앙통신)
- 평양식료연합기업소, 2월 생산계획 완수(2.27, 중앙방송)
-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꾼회의, 2월 27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2.27, 중앙통신)
 - 박봉주, 객범기, 로두철, 태종수, 김용진(보고)·리철만·리무영(내각부총리들) 등 참가
- 김일성 저작(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발표(1964.2.25) 50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 2월 28일 박봉주(내각 총리/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2.28,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책공업종합대학은 "나노박막형 태양빛전지를 나라의 실정과 원료조건에 맞게 개발하였다"며 "태양빛 전지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도 해결하였다"고 보도(2.28, 중앙통신)
- 평양화학품공장, 2월 인민경제계획 초과 완수(2.28, 중앙방송)

다. 군사

- **北, 사거리 200km이상 탄도미사일 4발 발사(2/27, 연합뉴스)**
 - 북한이 27일 오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북한이 오늘 오후 5시42분부터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일대에서 북동 방향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발사했다"고 밝힘.

- 군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 발사한 발사체는 스커드 계열로 추정하고 있으나 신형 지대함 미사일인 KN-02의 개량형이거나 300mm 이상 신형 방사포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 사회문화

- WHO “北 자궁경부암 사망률 동아시아 평균 2배”(2/27, 미국의소리(VOA))
 - 북한 여성의 자궁경부암 사망률이 동아시아 평균의 2배에 이른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WHO와 스페인 ‘카탈라 종양연구소’가 공동 운영하는 ‘인유두종바이러스 정보센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27일 보도함.
- 北 국토환경보호 부문 일꾼회의…“국토관리 매진하자”(2/28, 조선중앙방송)
 - 북한 국토환경보호 부문 일꾼회의가 27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8일 보도함.
 - 회의에는 박봉주 내각총리, 광범기 당 비서, 로두철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과 당·정·군 국토환경보호 부문 일꾼 등이 참석함.
 - 참석자들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주문한 대로 지하·산림·해양 등 자원을 보호하고 나무심기를 전 군중적 운동으로 벌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토관리 총동원 운동의 불길이 온 나라에 거세차게 타 번지게” 해야 한다고 강하천에 여러 시설물을 건설하고 홍수 방지 대책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 北 기자동맹 위원장 차승수로 교체 확인(2/2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7일 평양에서 진행됐다”라며 차승수를 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소개함.

기타 (대내 사회·문화)

- 국가우표발행국, 사회주의 농촌테제 발표 50돌을 기념하여 ‘개별우표’ 1종 발행(2.24, 중앙통신)
- 北, 옥류이동병원과 전국 소아병원들을 연결하는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새로 수립(2.24, 중앙방송)
- 北 기관차체육단 선수들은 ‘2013년 진행된 국제·국내 경기들에서 190여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며 ‘기관차체육단 선수들의 성과’를 선전(2.25, 중앙통신)

- 산업과학연구소에서 고구마를 주원료로 “새로운 건강식품 고구마 아이스크림” 생산 및 인체건강에 미치는 효능(항암효과 등)과 제조법·경제성 등 소개 선전(2.26, 중앙통신)
- 北 중앙동물원, ‘21종의 50여 마리 관상용 및 애완용 개들과 30종 400여 마리의 앵무새와 기니아 피그(guinea pig)를 새로 들여왔다’고 소개(2.27, 중앙통신)
- 백두산상 체육경기대회(2.4~28) 폐막식, 2월 28일 최태복(당 중앙위 비서)·리종무(체육상/폐막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빙상관에서 진행(2.28, 중앙통신)

2 대외 관계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北 4년째 ‘위험국가’ 지목(2/25, 자유아시아방송(RFA))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이달 중순 파리에서 총회를 열어 북한을 이란과 함께 국제사회의 금융거래에 가장 큰 위험국가로 지목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전함.
 - 이 기구는 2007년부터 북한에 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관련자산을 동결할 것을 권유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RFA가 밝힘.
- “北, 유엔식량농업기구에 구제역 방역 지원 요청”(2/26,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구제역 피해와 관련해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전함.
 - FAO는 북한이 지난 23일 구제역의 방역 및 퇴치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다음 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북한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대책회의를 했다고 밝힘.
 - FAO 관계자는 “구제역은 전염 속도가 매우 빠른 가축 전염병인 만큼 이른 시일 내에 북한의 구제역 피해지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말함.
- 중국기업 대북 투자는 ‘난색’, 인력 도입은 ‘환영’(2/26, 중화망(中華網))
 - 중국 인터넷매체 중화망(中華網)은 랴오닝성 다롄(大連)에 본사를 둔 대형 수산물 가공업체인 아시아어항(亞州漁港·asiasea)이 북한 측과 인력 공급 계약을 맺고 지난 22일 1차로 49명의 근로자를 도입했다고 26일 전함.

- 아시아어항 관계자는 “2~3년 전에는 숙련된 근로자의 월급이 3천~4천 위안(53만~70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5천~6천 위안(88만~105만 원)에 달하고 성수기에 잔업수당을 포함하면 월 1만 위안(175만 원)에 육박한다”면서 “이번에 북한 근로자 도입이 성사돼 인건비를 30%가량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

● 英 “北 주민에 외부접촉 기회 주려 교류사업”(2/27, 미국의소리(VOA))

- 영국 정부가 대북 교류사업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와 접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함.
- 휴고 스와이어 영국 외교부 부장관은 지난 24일 의회에서 영국이 북한과의 전면적 외교관계를 통해 북한의 핵 계획과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직접 전달하고, 적절한 수준의 교류를 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 북한·일본, 내달 3일 선양서 적십자 실무회담(2/27, NHK)

- 일본 외무성은 내달 3일부터 중국 선양(瀋陽)에서 일본과 북한의 적십자사가 실무협의를 개최한다고 27일 발표했다고 NHK가 보도함.
- NHK에 따르면 이번 협의는 북한측 요청으로 열리게 됐으며, 형식은 적십자사간 접촉이지만 일본 외무성 북동아시아 과장과 북한 외무성 당국자가 배석할 예정이어서 정부 간 정식 대화에 앞선 당국 간 예비회담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분석함.

● 北 통신 “유엔 北인권보고서는 美 적대행위 산물”(2/2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최근 발표한 최종보고서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적대행위’의 산물이라고 비난함.
- 통신은 28일 논평에서 COI 보고서에 대해 “국제무대에서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북한)의 영상(이미지)을 깎아내리고 압력 도수를 높여 우리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극히 위험한 정치적 도발이며 수십년 동안 미국이 감행하고 있는 추악한 적대행위의 산물”이라고 밝힘.

- 北, 3·1절 맞아 日 만행 규탄…“과거사 청산해야”(2/28, 조선중앙통신)
 -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 문제 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이 3·1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것은 “조선민족 말살을 노린 엄청난 대량학살 범죄”라고 밝힘.
 - 대변인은 과거 만행을 정당화하는 일본 당국자들의 최근 망언을 거론하며 “일본은 시대착오적인 과거청산 회피, 역사왜곡 행위에 매달리며 정의의 목소리를 끝끝내 외면한다면 두번 다시 나라와 민족을 파멸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함.

기타 (대외 일반)

- 日 수상 ‘이베’의 야스구니신사 참배를 비호 두둔하는 정객들의 발언 관련 ‘일본의 고위 정객들의 잡소리는 국제사회의 우롱이 아닐 수 없다며 ‘이제라도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로 될 것’이라고 조언(2.24, 중앙통신)
- 박의춘(외무상), 2월 25일 주북 파키스탄 신임대사(사이예드 하산 하비브)와 담화(2.25, 중앙통신)
- 일본 외상의 발언(유사시 일본에 미국의 핵무기 반입을 반대하지 않음)에 대해 ‘상전의 핵무기 반입을 허용하는 대가로 상전의 목인·비호를 받으며 핵무장화를 추진하고 군사대국화를 실현하려는 음흉한 속심이 깔려있다’고 비난하며 ‘일본의 비핵3원칙 견지할 것’을 촉구(2.25, 평양방송)
- 김영남과 박봉주(내각 총리), 2월 25일 쿠웨이트 ‘독립’ 53주년과 ‘해방’ 23주년을 즈음하여 同國 추장과 내각수상에게 각각 축전(2.25, 중앙통신·중앙방송)
- 미국의 ‘남북관계 개선 회방책동(‘北의 이산가족상봉 합의는 일시적 유회책’ 등으로 비방중상) 지속 비난과 “미국의 간섭책동을 묵인하고 수수방관한다면 북남관계는 언제가도 개선될 수 없다”고 ‘反외세 배격투쟁’ 강조(2.26, 평양방송)
- 미국의 ‘KR·FE연습은 “우리(北)를 겨냥한 핵전쟁연습”이라며 ‘더욱 문제로 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깨고 남한 당국이 동족과 화해협력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비난(2.26, 평양방송)
- ‘미국이 경제침체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로를 아 태지역에서 찾으며 패권주의전략을 실현하는데 광분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국제사회는 미국의 패권주의적 책동에 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2.27, 중앙통신)
- 日 외무성이 동해를 일본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유포한 것 관련 ‘역사주의 원칙과 학술적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강도적 논리’라며 ‘영토평창 야망 실현의 선행공정’이라고 비난(2.27, 평양방송)
-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거론하며 ‘미국은 대화와 평화의 파괴자, 대결과 긴장격화의 장본인’이라고 비난하고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평화와 통일에 도전하는 내외 호전세력의 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고 주장(2.28, 평양방송·노동신문)
- 미국이 태평양에 군함을 주둔시키는 것과 일본의 자위대 무력강화 등을 거론하며 ‘亞·太 지역이 세계 패 전략실현을 위한 미국의 책동과 일본의 군국주의적 책동으로 거대한 군사적 대결마당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2.28, 중앙통신)

3 대남 동향

● 北 신문 “실천적 조치로 남북관계 개선해야”(2/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온 겨레의 기대에 보답하여야 한다’라는 글에서 “지금 북과 남 사이에는 긴장완화와 평화보장,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 추진 등 절실한 문제들이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북남관계 문제와 관련해 논쟁이나 하며 허송세월하는 것을 시대와 민족은 용납치 않는다”고 주장함.
- 이어 “부당한 구실과 주장, 요구와 조건을 내대며 북남관계 개선을 질질 끈다면 그것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는 태도와 입장이 아니다”며 “말려서 가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북남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임.

● 北 노동신문 “이산상봉, 남북관계 전면개선 출발점”(2/25,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 노동신문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끝난 25일 ‘관계 개선의 밑거름이 된 상봉 행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흠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출발점으로 하여 북과 남 사이에 다방면적인 대화를 진행하고 전면적인 화해, 협력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것은 막을 수도, 거스를 수도 없는 민족의 요구”라고 밝힘.
- 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 “앞으로 이산가족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북남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북남관계 개선의 흐름을 타고 흠어진 가족, 친척 상봉뿐 아니라 모든 문제가 겨레의 요구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현실은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임.

● 北신문 “키리졸브 연습은 긴장완화 노력에 대한 도전”(2/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5일 개인필명의 논평에서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을 거론하고 “북남관계 개선과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공화국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라고 주장함.
- 이어 ‘키 리졸브’ 연습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이라는 한미 양국의 입장에 대해 “전쟁연습의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성격을 가리기 위한 서푼 짜리 술책”이라고 반박하고 “북남대결을 고취하면서 대조선지배 야망을 실현하려는 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전략”이라고 강조함.

● 北경비정 1척, 어젯밤~오늘새벽 3차례 서해NLL 침범(2/25, 연합뉴스)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저녁 10시56분부터 연평도 서방 13노티컬마일(23.4km) 해상에서 북한군 경비정 1척이 NLL을 3차례 침범했다”며 “우리 군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경고통신 등의 대응조치에 따라 오늘 새벽 2시25분경 (북한군 경비정이) NLL을 넘어 북상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25일 새벽 0시25분 마지막 침범했을 때는 “북상하지 않으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우리 군의 경고통신에도 북한 경비정은 지그재그로 북상하면서 2시간 정도 NLL 남쪽에 머문 것으로 알려짐.

■ 기타 (대남)

- 北, ‘南의 일부 보수언론들은 여전히 공화국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있다’며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비상중상을 중지할 데 대한 합의를 뒤집어엎는 온당치 못한 행위’라고 비난하며 ‘南 당국이 남북합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2.25, 중앙통신·민주조선)
- ‘6.15공동선언은 역사상 처음으로 되는 남북 정상 상봉에서 마련된 최고의 남북합의문건’이라며 ‘現 남북관계 문제는 6.15공동선언에 대한 태도와 이행의지에 달려있다’고 주장(2.25, 중앙통신·노동신문)
- 北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 2월 27일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2.27, 중앙방송·평양방송)
- 北, 김정욱씨 석방촉구 통지문 수령 거부(2/28, 연합뉴스)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2월

북한동향 일지

<1월 일지>

| 보도일자 | 내 용 |
|-------------------|---|
| 1/1, 중통·중·평방·조중TV | 김정은 黨 제1비서, 새해 '신년사 발표 |
| 1/1, 중통·중·평방 | 김정은·리설주, 새해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
| 1/5, 중통·중방 | 박봉주(내각 총리), 청천강계단식발전소·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및 평남 개천시 용진협동농장 현지요해 |
| 1/7, 중통·중·평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수산물 냉동시설 시찰 |
| 1/8, 중통·중·평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리설주와 함께 '로드먼' 등 美 NBA 출신 前 선수들과 북한 선수들의 농구경기(평양체육관) 관람 |
| 1/11, 중통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1.7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위원회 조직 |
| 1/12, 중통·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제534군부대 지휘부 시찰 |
| 1/15, 중통·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국가과학원 현지지도 |
| 1/15, 중통·중방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합숙 건설정형 현지요해 |
| 1/17, 중통·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 군악단의 연주회 지도 |
| 1/18, 중통 | 北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박봉주(내각 총리/보고) 등 참가하 '김정은의 새해 신년사 과업 관철' 토의 및 '해당하 결정서 채택' 등 진행 |
| 1/20, 중통·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軍 항공육전병 구분대들의 야간훈련 지도 |
| 1/22, 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원산시에 건립하는 사업에 기여하' 강원도 금강관리국 일꾼 등에게 [감사] 전달 |
| 1/23, 중통·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마두산 혁명전적지 시찰 |
| 1/23, 중통·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오중흥7연대 칭호를 수여받은 軍 제323군부대 전술훈련 지도 |
| 1/23, 중통·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국가과학원에 '윤전기재들' 선물 전달 |
| 1/28, 중통·중방·평양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에서 조선인민군 제323군부대 군인들과 기념사진 촬영 |
| 1/29, 중통·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80번째 생일을 맞은 '리룡암'(국가과학원 석탄과학분원 석탄채굴공학연구소 연구사)과 '정진창'(열공학연구소 연구사)에게 생일상 전달 |
| 1/29, 중통 | 박봉주(내각 총리),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현장을 현지요해 |

<2월 일지>

| 보도일자 | 내 용 |
|-------------|---|
| 2/1, 중통·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새해를 즈음하여 여러 나라 당과 국가수반들에게 연하장 발송 |
| 2/4, 중통·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시 육아원과 애육원 방문 |
| 2/4, 중통 | 『여맹』 중앙위 제66차 전원회의, 2.3 평양에서 진행 |
| 2/4, 중통·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3.9 예정) 대의원 후보자로 추대하는 ‘제111호 백두산선거구 선거자 대회’ 진행 |
| 2/5, 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후보자로 추대하는 제29호 대선선거구 선거자대회, 2.4 김일성종합대학 체육관에서 차희림(평양시 인민위원장/보고)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2.5, 중방) |
| 2/6, 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를 제13기 대의원후보자로 추대하는 선거자대회, 제427호 강계선거구와 제304호 해청선거구, 제82호 평성선거구에서 촉촉 진행 |
| 2/10, 중통·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전국 농업부문 분조장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 |
| 2/12, 중방·평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새로 개건된 경기용총탄공장과 메아리사격관 시찰 |
| 2/12, 중통·중방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 5월1일경기장 개건보수 정형을 현지 요해 |
| 2.13, 노동신문 |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순녀(해주시 사회급양관리소 노동자) 등 ‘당과 수령에 충실성을 지니고 좋은 일을 한’ 근로자-인민보안원들에게 ‘감사’ 전달 |
| 2/17, 중통·중방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평양대극장에서 재일본조선인 예술단(단장 : 리영수)과 담화 |
| 2/18, 중통·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리설주와 함께 인민극장에서 공훈국가합창단의 ‘광명성절’ 경축 공연 관람 |
| 2/18, 중통·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리설주와 함께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해군 지휘부와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 군인들의 체육경기 관람 |
| 2/18, 중통·중방 | 박봉주(내각총리), 청춘거리 체육촌 개건 보수정형을 현지요해 |
| 2/18, 중방·평방 |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강령’ 선포 4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2월 1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
| 2/19, 중통·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전국의 모든 선거자들에게 공개서한 |
| 2/20, 중통·중방 |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중앙선거위원회, 2월 19일 김정은이 제111호 백두산선거구에 대의원후보자로 등록 |
| 2/20, 중통·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11월2일공장을 현지지도 |
| 2/21, 중통·중방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회의, 2.20 평양에서 진행 |
| 2/21, 중통·중방 | 김영남, 2월 21일 광명성절 경축 재일본조선인대표단(단장: 홍인흠 총련중앙감사위원장)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 |

| | |
|-------------|---|
| 2/24, 중통 | 전국의 선거자들에게 보내준 '김정은의 공개서한'에 호응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자 결의모임,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전체 선거구들에서 진행 |
| 2/22, 중통·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건축종합대학에 선물 전달 |
| 2/22, 중통 | 박봉주(내각 총리), 흥남비료연합기업소·2.8비날론연합기업소·용성기계연합기업소를 현지요해 |
| 2/22, 중통 | 전국의 구·분구 선거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자 명부 공시 |
| 2/23, 중통·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1월8일수산사업소 건설장 시찰 |
| 2/24, 중통 | 김정은 黨 제1비서, 강원도 원산시의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 시찰 |
| 2/24, 중통 | 조선노동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 2월 24일 평양에서 개막 |
| 2/26, 중통·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2.25 노동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 2일회의 및 폐막식(최태복 폐회사) 참석 |
| 2/26, 중통 | 김정은 黨 제1비서, 노동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 |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